

# 모심과 살림

2호  
2013년  
겨울

## 생명운동이론지

**모심의 눈** 교황 프란치스코와 자본주의 넘기

**제언** 생명모성의 출현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

문명의 전환과 노동의 미래

생명의 시선과 탈근대적 노동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삶과 노동

협동조합에서의 노동

좌담 노동의 현실과 현실의 대안

**기고** 공생과 호혜의 관점에서 한국협동조합사 읽기  
농사 - 손과 발, 몸뚱이에 새겨진 오랜 기억

**살림의 길** 생명문화 종교적 혁명의 가능성  
생활협동 협동조합 붐이 끝난 뒤  
사회실천 위기의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

**지구의 창**

다람살라의 스마트폰

스위스 소매유통의 두 거대 소비자협동조합 코프·미그로

후쿠시마, 재난 이후의 삶과 대안

모심  
살림  
연구소



# 모심과살림



## 모심과 살림 1호 (2013년 여름)

**[특집] 전환기의 사회운동,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인간과 문명, 그리고...

생명운동의 전승과 새로운 주체

생명운동과 합리성은 공존할 수 없는가?

전환의 시대, 사회운동의 방향과 역할

사회운동 방식의 전환

우리의 꿈은 평등해지는 것인가, 행복해지는 것인가?

## 모심과 살림 0호 (2012년)

**[특집]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

생명운동과 탈근대 협동운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실험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하여

협동조합은 '충분히' 여성적인가?

영성과 협동조합



생명운동이론지

2호  
2013년  
겨울

# 모심과 살림

떠내는 글

## ‘넘어서기’를 꿈꾸며

연말연시,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묵은 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모심과 살림』 세 번째 책을 펴냅니다. 아직은 몸에 꼭 맞는 옷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빛깔과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전보다는 조금 더 다채로운 상처림으로 독자들을 만납니다.

2013년 겨울, 『모심과 살림』에서는 ‘노동’에 주목했습니다.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을 주제로 특집 면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쏟아지는 이런저런 뉴스 속에 유독 눈길이 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1초에 1통을 배달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이야기. 국회의원 앞에 고개 숙인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포착한 한 장의 사진. 고되고 불안한, 그야말로 ‘안녕하지’ 못한 노동 현장이자 삶의 현장입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 소식은 여전한 대립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넘기’를 말하기에는 조금 성급할까요? 하지만 ‘감히’ 지금 우리 삶과 사회를 지배하는 노동 패러다임 ‘너머’의 그 무엇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노동,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개인적·사회적 성숙을 돕는 ‘좋은 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노동’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상당 부분 좁은 의미의 (임)노동에 한정짓는 경향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리켜야 할 방향과 모습은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듯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괴로운 일, ‘영혼 없는 노동’을 줄이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늘려가는 것이겠지요. 남는 것은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근대의 노동(labor)을 넘어설 것을 주문하는 류하의 글이 반갑습니다. 보다 생생한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특집 좌담에서는 불안한 노동 현실 안에서 노동 시간 단축과 협동조합, 돌봄노동 등 '다른' 일을 가능케 하는 열쇳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넘어서야 할 것은 노동만이 아닙니다. 슈마허의 말을 빌리면 '나쁜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 현대 문명, 그 핵심은 산업주의이지만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모심의 눈에서는 2013년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인물 교황 프란치스코로부터 '자본주의 넘기'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정부는 '경쟁'을 촉진한다는 기조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협동조합' 열풍이 가라앉을 줄 모릅니다. 살림의 길에서는 베네수엘라를 거쳐간 '협동조합 붐'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춰봅니다. 또한 기고 지면을 통해 천도교 공생조합운동을 재조명함으로써 현실의 협동운동을 성찰하고 나아가 남북한 공생과 호혜의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구의 창에서는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스위스 협동조합 탐방기를 실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 밖 이야기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펼쳐고 있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 변화하는 다람살라의 모습에 던지는 물음표를 함께 담았습니다.

농사일의 어제와 오늘을 맛깔나게 풀어낸 글로 특집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농업노동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생명노동, 공동체 노동으로서의 고유한 의미, 또 한편 이를 무색케 할 '합법적 주7일 근무'라는 농업노동자들의 현실 등은 질문과 숙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곳곳에서 포착되는 '전환'의 또 다른 모습, 이른바 '자급노동'과 '탈노동'을 향한 새로운 흐름과 실천들도 다음을 기약합니다.

2014년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열망이 아프게 스러져갔습니다만, 분명 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태면서, 그 속에서 '주고받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명을 창조하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 [salim@hansalim.or.kr](mailto:salim@hansalim.or.kr) 02-6931-3604

**모심과 살림 2호**

발행인 박맹수

편집인 주요섭

편 집 김현

디자인 디자인 이인

펴낸날 2013년 12월 31일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 책값은 7천원입니다.

004 퍼내는 글 · 편집부

모심의 눈 008 교황 프란치스코와 자본주의 넘기 · 주요섭

제언 022 생명모성의 출현 · 반아

특 집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

036 문명의 전환과 노동의 미래 · 강수들

057 생명의 시선과 탈근대적 노동 · 류하

074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삶과 노동 · 임윤옥

085 협동조합에서의 노동 · 김재겸

102 좌담 노동의 현실과 현실의 대안

기고 123 공생과 호혜의 관점에서 한국협동조합사 읽기 · 이경란

147 농사 - 손과 발, 몸뚱이에 새겨진 오랜 기억 · 백승우

살림의 164 생명문화 종교적 혁명의 가능성 · 이찬수

길 171 생활협동 협동조합 봄이 끝난 뒤 · 하만조

181 사회실천 위기의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 · 정규호

지구의 191 다람살라의 스마트폰 · 오은영

창 202 스위스 소매유통의 두 거대 소비자협동조합 코프·미그로 · 우미숙

215 후쿠시마, 재난 이후의 삶과 대안 · 시마무라 모리히코

# 교황 프란치스코와 자본주의 넘기

교황 프란치스코가 '화제'다. 아니 '화두'다. 가톨릭 역사상 첫 남미 출신 교황이기도 하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3년 올해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다. 교황의 자본주의 비판 때문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경제불평등은 살인자와 같다”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매섭게 질타한다. 첫 해외 방문지 브라질에서 교황은 100만 인파를 향해 “불평등과 부정부패를 일상화하고 있는 야만적 자본주의와 가진 자의 횡포에 맞서 싸우라”고 호소한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어록은 최근 한국 신문에서도 단골 소재가 되었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 교황의 권고문서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칼럼을 쓰고, 한겨레신문에 소개된 “보이지 않는 현현”이란 제목의 기사 칼럼이 눈에 들어온다. 철도 파업 등 한국의 현실과 결부되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교황의 말씀이 실감나게 인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본주의 비판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 물론 마르크시즘이나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반자본주의’나 ‘비

---

\*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非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석학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론'과도 다르다. 자본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똑같지만, 라이시는 시민의 눈으로 말하고 교황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본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인간 안에 심어진 신적인 어떤 씨앗"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 즉 인간의 존엄과 신성이 무너지고 있는 '사태'를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회 수사의 단호한 신앙고백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본주의 비판의 정체는 '초월적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넘기'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 그 자체의 부정이 아니다. 돈도 물질도 삶의 일부다. 문제는 자본이 왕이 되고 신이 되어 삶과 영혼과 사회를 지배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넘기'는 자본이 지배하는 시스템과 자본 중심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시스템과 문명의 전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주일에만 한 번 교회 안의 자본주의 넘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는 전 사회적 자본주의 넘기다. '내재적 초월'이라고 말하는 그것, 인간 안에 내재한 신성<sup>神性</sup>, 즉 하느님 마음의 사회적 실현이다.

## 성인 프란치스코의 물질주의 넘기

가톨릭 역사상 교황의 이름으로 프란치스코를 붙인 것은 2013년 3월에 선출된 현 교황이 처음이다. 물론 이때 프란치스코는 '빈자의 성인'이며, '생태주의 성인'으로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1182년~1226년 10월 3일)'를 말한다. 1,200여 년 전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를 통해 되살아난다. 자본주의 넘기의 원형은 이미 가톨릭교회 역사 안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탈리아 출신의 이 수도사는 13세기 초에 작은형제회라는 수도회를 설립해 세속화된 로마 교회의 개혁을 이끈 교회 개혁가

였다. 그러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무엇보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넘어서고자 하는 “돈이 왕 행세를 하는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을 삶으로 극복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는 젊은 날 무모할 정도로 쾌락을 쫓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사야의 꿈을 안고 전투에 참가했지만 투옥된다. 석방된 후 그는 오랜 동안 중병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경박한 생활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딴 사람이 되어갔다. 삶의 전환이다. 예수를 따라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비웠고 결국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말에서 뛰어내려 끌어안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그 후 그는 평생을 복음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포목상이었던 부친의 유산을 포기하며 오로지 하느님 사람으로써의 삶에 전념한다. 어느 날 그는 황폐한 성당에서 계시를 듣는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지어라. 나의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벽돌을 한 장씩 쌓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가난뱅이로 사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그는 비천한 노동자가 되었고 “가난과 결혼”함을 선언한다. 아들에 분노한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물건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사람들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짐으로써 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미사에 참례하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이 들린다. “하느님 나라를 전하라.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도 가지지 말며 여행 가방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프란치스코가 열한 명의 동료들과 함께 극도의 청빈생활을 시작함으로써 프란치스코회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그 수도회의 공식 명칭은 “작은형제회”였다.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은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이들의 수도공동체가 작은형제회였다. 이 명칭이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요약해 주고 있다. ‘작음(minority)’과 ‘형제애(fraternity)’가 그것이다.

‘작음의 정신’은 그 안에 가난과 겸손이라는 덕목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

서 작은형제들은 가난하고 겸손한 예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긴다. 노동이 생계 유지의 일차적인 수단이 되며 나머지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한다.

‘형제애의 정신’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 모든 이들의 맏형인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이다. 이 형제애는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고 돌보는 이상으로 형제들 상호간에 기르고 돌보는 정신”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제애는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가능케 한다. 또한 형제애는 공동체를 넘어서, 신분과 계급과 남녀노소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로, 사회 전체로 확장된다. 기독교인이든 이교도이든, 성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원수나 강도, 동성애자마저도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더 나아가 자연과 우주 만물과의 하나됨으로 깊고 넓어진다. 바로 이 우주적인 형제애, 즉 하느님의 세계에서 만인(萬人)/만물(萬物)이 모두 한 가족이라는 깨달음이 성인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형제애의 본질이다.

그렇다. 성인 프란치스코의 초(超)물질주의, 즉 ‘물질주의 넘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던 것이다. 초물질주의가 행위의 윤리적 동기가 되어 ‘빈자의 공동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형제애의 결과가 물질주의를 넘어서게 했던 것이다. 만인/만물과의 하나됨이 나병 환자와 이교도와 동성애자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각성, 즉 ‘숨겨진 하나됨(전일성/wholeness)’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숨겨진 하나됨과 열망의 공동체

ICA(국제협동조합연맹)가 규정한 협동조합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needs)와 열망(aspirations)의 충족을 사명으로 한다. ‘필요의 충족’이 말 그대로 필요조건이라면, ‘열망의 충족(정확히 말하면 열망의 실현)’은 협동조합의 충분조건이다. 협동조합 구성원의 꿈과 숨은 바람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경제적 이익공동체에 불과하다. 그 열망(熱望)은 뜨거운 바람이기도 하지만, 열망(aspiration)은 영어 표현대로 영혼(spirit)의 간절한 염원이다. 애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생명공동체로의 돌아감, 즉 숨겨진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그것이다.

협동촌을 꿈꾸었던 로버트 오언의 열망도 하나됨이었다. 중국적으로 생산자-소비자 코뮌을 목표로 했던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열망도 이를테면 하나됨이었다. 동학의 후천개벽 사상과 부자와 빈자가 서로 돕는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생활공동체도 그랬고, 일제 시대 협동운동인 이상촌운동도 그러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원주의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 역시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이 하나되는 생명공동체를 꿈꾸었다.

하나됨의 형제자매애는 물질을 초월한다. 물질을 외면하고 정신만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다.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 진실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세계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다. 너와 내가 둘로 나뉘지 않는다. 거룩한 영으로 하나된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눈다.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의 전환이 '우리' 삶의 전환으로 확장된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사도행전 2:44-45)

자매애 혹은 형제애는 윤리가 아니다. 윤리 이전 생명의 원초적 열망이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하나됨'이 드러난 것이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고백처럼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내 마음이 네 마음(吾心即汝心)”이 된 것이다. 하느님의 세계 안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위당 장일순의 이야기를 묶은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

는 것을』이라는 책 제목이 말하러 하는 것처럼, ‘숨겨진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면, 나의 재산과 소유 역시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면서 동시에 너의 것이 된다. 주고받기, 즉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하나됨이란 ‘나’ 없는 전체가 아니라 수많은 ‘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숨겨진 하나됨은 ‘서로살림’으로 구체화된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이 회개 후 첫 번째 한 일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프란치스코의 삶은 하나됨에의 열망과 상생(相生)의 정신을 증거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사도행전 20:35)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40)

그렇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인용해 쓴 한겨레신문 국제부 기자의 칼럼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현현”이다.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다. 작은형제회와 수많은 열망의 공동체들은 땅위에 세워진 천국이다. 굽고 있던 형제와 밥을 나눌 때 그곳은 이미 하늘나라가 된다. 일주일에 단 하루 실현되던 하나됨이 일주일 내내 이루어질 때, 그곳은 이미 지상천국이 된다.

## 문제는 자본주의다

그렇다면, 어떻게 ‘숨겨진 하나됨’을 실현할 것인가? 가능한 일인가? 현실은 하나됨의 실현은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단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단절되고, 승자와 패자가 단절되고, 소비자 and 생산자가 단절되고, 하늘과 땅이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

이 단절되고 인간과 자연이 단절된다. 이웃을 외면하고, 길고양이를 외면하고, 요양원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외면한다. 1%와 99%로 갈라지고, 20%의 세계와 80%의 세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사이, 자본이 분할 통치를 한다. 자본이 왕이 되는 시스템 아래서 돈이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자본은 씨앗과 지구 식량시스템을 지배하고, 병원과 환자를 지배한다. 자본은 입맛을 지배하고, 시선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안방을 지배하고, 감각을 지배한다. 문화재와 휴양림을 지배하고, 웰빙과 힐링을 지배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을 사고판다는 것, 삶을 지배하고 생명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한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 11월 「복음의 기쁨」이란 이름의 권고문을 통해 자본주의를 가차 없이 비판한다. 자본주의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교황은 ‘배제의 경제’, ‘돈의 맹목성’, ‘금융체제의 지배’, ‘폭력을 부르는 불평등’ 등 자본주의의 폐해들을 오늘날 세계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로 꼽았다. 교황은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들면서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경제체제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암시한다. 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지적하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자기만의 법과 규칙을 강제하는 독재체제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우상으로 숭배했던 고대의 ‘황금 송아지’가 오늘의 돈”이라며 자본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통탄해 한다. 교황은 “늙은 노숙자가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건 뉴스가 안 되지만, 주식 시장이 단 2포인트라도 떨어지면 뉴스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는다. 교황은 탄식한다. “배제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밑바닥도 변방도 소외된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일부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착취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쫓겼다. 버려져야 할 찌꺼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요컨대 자본주의가 인간의 초월적 존엄은 고사하고 삶의 기초적 조건마저도 내팽개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라는 원초적 불공정

시스템과 돈을 신으로 섬기는 물신주의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용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분명 하늘의 법을 거스르는 죽임의 시스템인 셈이다.

가톨릭의 자본주의 비판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일찍이 120여 년 전인 1891년 교황 레오 13세는 「새로운 사태」(흔히 ‘노동헌장’이라 불린다.)라는 문서를 통해 산업혁명기 자본가의 탐욕과 빈곤의 참상을 준열하게 비판한다. 한참 세를 넓혀가던 사회주의에 대해서 자연법적 재산권과 무신론의 무지를 근거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약탈적 자본주의의 위세에 대해서도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말 ‘자본가의 탐욕’과 ‘처참한 가난’이라는 「새로운 사태」에서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1991년 바티칸은 「새로운 사태 100주년 기념 회칙」을 발표하고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 처음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공산주의의 몰락 후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두는 사회체제인가, 또 자본주의를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이것이 실제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길을 찾고 있는 제3세계의 국가들에게 제안되어야 할 모형인가?”(100주년 회칙 42절)

교회의 대답은 복잡적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고양하는 한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경제 영역의 자유를 인간과 사회 전체로 일반화하려는 체제라면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의 씨앗을 부정하고 영혼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에 대해 그러한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현실자본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내재적 초월이다. 밖에서의 초월적 관여가 아니라, 내 안에 씨앗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을 살려야 한

다.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사회경제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사회적 의미의 '내재적 초월', 시민 사회 안에 숨겨진 원초적 연대성을 부활시켜야 한다. 상품시장 아래 보이지 않는 호혜시장을 되살려야 한다.

이들테면 그것은 사회적 열망의 실현이며, 영성의 인간학적 표현인 우애에 기반한 경제사회질서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을 빌려 말하면, '자유'의 정치경제학'과 '평등의 정치경제학'을 넘어 '박애의 정치경제학'이 요구되는 것이다.

## 시장의 성화

“교회는 제시할 모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바티칸의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1991년 「새로운 사태 100주년 기념 회칙」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넘어서야 하지만, 대안적 시스템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할 몫은 교회 밖에 있다.

대한민국 변방 어딘가에서 대안적 모형의 싹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장이라는 바다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시장을 지배하고 왜곡하고 약탈하는 자본주의, 그렇다면 어떤 시장이냐가 중요하다. 로마 가톨릭은 「100주년 회칙」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들에게 있어서 자유 시장은 재원을 배치하고 다행하게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지불 능력이 있는”, 구매력을 가진 욕구에 대해서만 그리고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만 그

렇다. 그러나 시장으로 충족되지 않는 인간 욕구들이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 않고 그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엄격한 의무이다.”

『화폐 없는 세계는 가능하다』<sup>1)</sup>라는 책에서는 ‘시장 없는 사회주의’를 대안적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빗대어 말하면 이제 ‘시장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어야 할 듯하다.

시장은 장場(field)이다. 바다와 같다. 바닷물 없이 배가 뜰 수가 없다. 해적선이든 유람선이든 말이다. ‘시장 없는 유토피아’란 물 없는 바다와 같다. 상어들이 바다 생태계를 장악하고 약탈과 착취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폭풍이 몰아치는 대양에서, 시끌벅적한 저자거리에서 새로운 질서가 창조된다. 3퍼밀(0.03%)의 ‘숨겨진 하나됨’이라는 염분이 있다면, 시장은 폭풍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바다가 될 수도 있다. 자본의 독재로부터 시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시장은 출렁이는 물질생활의 인드라망이다. 주고받기의 광장이다. 시장 어느 구석 좌판 잠깐의 눈속임은 용인될 수 있으나, 구조화된 속임수와 약탈적 독점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교회의 시장 인식은 새로운 시장, 거룩한 시장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장의 성화聖化’라고 말할 수도 있다. 시장 안에 내재한 숨겨진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인 김지하는 “개벽 세상은 장바닥에 비단이 깔릴 때 온다”라는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의 예언을 빌려 ‘시장의 성화’라는 말을 했는데, ‘시장 있는 유토피아’의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리적 시장, 따뜻한 시장, 인간적인 시장 등 다양한 시장론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은 시장 안에 숨겨진 형제애를 되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

1) 아니트라 벨슨. 서해문집. 2013

시장의 문제가 파우스트의 그것처럼 물신주의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데 있다면, '영혼 있는 시장'이 시장의 성화다. 한자로 시장의 場은 원래 신을 모시는 곳을 의미했다고 한다. 이제 시장 안에서 거룩함을 되살려야 한다. 사람들은 물품 안에 들어 있는 신령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화폐로 환원되지 않는 인격적 관계와 생명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는 논외다. 정치적으로는 왕조나 무신정권에 가깝거니와 영혼은 고사하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조차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인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장마당경제의 부활 속에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음陰의 시장'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양陽의 시장' 아래 숨죽이고 있는 음의 시장, 즉 호혜시장을 되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음의 시장의 재발견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현현"이다.

음의 시장의 부활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호혜주의 시장으로의 전환'이다. 돈벌이 시장에서 살림살이 시장으로의 전환이다. 약탈적 시장에서 주고받기 시장으로의 전환이다. 제로섬의 상극적 시장에서 윈윈의 상생적 시장으로의 전환이다. 적대적 교환에서 호혜적 교환으로의 전환이다. 받고주는 시장에서 주고받는 시장으로의 전환이다.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는 시스템적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와 정신문화적 폐해는 두말할 것이 없거니와, 전 지구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에 경고등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인해 역설적으로 상품시장의 확대는 한계에 봉착했고, 선진국의 소비 정점(peak consumption)과 개발국의 수요 정체로 인해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자본주의는 숙주인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독점적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시장의 기본 기능인 '필요의 교환'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애의 경제학, 사랑의 경제학이다. 숨겨진 하나됨이 자기실현하는 일이다. 숨겨진 하나됨의 다른 이름인 형제애, 박애, 우애, 사랑, 자비, 인仁이 중심가치가 되는 경제시스템을 탐색해야 한다. 선물 주고받기, 필요 주고받기, 호혜경제다. 최근 한국의 협동조합 신드롬은 그 드러난 모습 중 하나이다. 『초생명공동체』<sup>2)</sup>의 저자 린 맥타가트는 이렇게 말한다. “협력은 자연에 내재된 고유한 충동이며 생명 자체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뛰고 있는 맥박임에 틀림없다. 주고받기는 협력의 열쇠이며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접착제일 뿐 아니라 진화적으로 가장 안정된 전략이었던 것이다.”

가톨릭에서 형제애의 경제학은 연대성의 원리로 구체화된다. 이때 연대성의 원리란 “모든 사람은 서로 연대되어 있고 서로에게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연대성 원리의 핵심은 바로 ‘주고받는 관계’다. 주고받는 관계의 회복, 즉 호혜시스템의 복원과 확장은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자본주의 극복의 핵심 과제가 된다.

그것을 일러 ‘호혜주의 시장경제’라고 이름 붙여본다. 시장을 인정하되, 자본의 지배가 아닌 숨겨진 하나됨이 드러나는 시스템, 그것이 호혜경제다. 시장 안에서 화폐와 상품으로 환원되어 물개성화된 인격과 개체생명이 봄꽃 피듯이 되살아나는 시장경제, 그리고 주고받는 생명세계의 기본 원리가 경제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새로운 시장생태계로의 진화와 재구성이 요구된다.(참고로 호혜주의 시장경제의 몇 가지 원칙을 상기해보면 이렇다. 생산-소비 약정에 의한 거래,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주고받기, 화폐로 환원되지 않는 인격적 거래관계, 사람에 따라 물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물다가-物多價, 생산소멸이 있는 돈 에이징 머니(aging money) 등이 그것이다.)

---

2) 정신세계사. 2013.

## 교황 프란치스코와 문명전환

교황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팎의 세속주의와 싸우고 있다. 물론 교황은 반자본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성인 프란치스코의 '물질주의 넘기'처럼 일종의 '자본주의 넘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느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을 통탄해 하고 있다. 물질과 화폐/자본에 영혼을 팔아버린 삶과 시스템, 그리고 문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쩌면 교황 프란치스코의 출현 자체가 문명전환의 신호인지도 모른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 시스템과 문명의 위기 시대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인 프란치스코의 영성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음<sup>陰</sup>개벽'을 떠올리게 한다. 21세기의 프란치스코는 생태주의의 성인으로 생태 시대를, 하나됨의 영성으로 사랑과 자비의 시대를, 어머니 같은 교황으로 여성성의 시대를 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질문명을 넘어 의식의 진화에 기반한 정신문명으로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힌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둘이 아니다. 성과 속은 둘이 아니다. 물질과 정신은 둘이 아니다. 하나됨의 영성은 상생의 문화와 생태공동체와 호혜경제로 드러난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기 안의 신성과 단절된 문명에 대해 단호하다.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 한다. 호세마리아 신부가 몬드라곤에서 그런 것처럼,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고베에서 그런 것처럼,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이 원주에서 그런 것처럼, 교황 프란치스코는 고국 아르헨티나에서 그러했고, 이제 하나뿐인 행성 지구에서 하나됨의 열망을 이루려고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약자들의 빛과 소금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삶과 사회,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다. 의식의 전환과 생활의 전환, 그리고 문명의 전환. 시스템을 바꾸고 가치의 중심이 이동한다. 나아가 전환의 방식, 사회운동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도 소금과 같은 영감을 준다. “옆으로, 아래로, 섬세하게, 보이지 않게…”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은 “복음화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로 끝을 맺는다.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는 ‘마리아 방식’이 있다. 우리가 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사랑과 온유의 힘을 다시 한 번 믿게 된다.”●

제언 글 반아\*

# 생명모성의 출현



• 교육철학 박사. 영성 교육 및 관련 축제 기획, 감성치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생명모성이란 무엇인가?

기도하는 마음·거름 되어서 살리고 꽃피우는 마음·기다리는 마음·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유 일한 것·소통하는 것·깊게 느끼는 것·모든 것을 품고 키우는 마음·편안하고 고요한 근본 생 명 그 자체·누구나 다 폭 빠지고 싶은 것·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마음·눈물·판단 없는 사랑· 기쁨의 물질·지극한 정성·고통과 아픔의 고향·솟아오르는 새싹·조화와 조울·시인의 마음· 활짝 열린 가슴·근원적인 삶·희생·של 수 있는 곳·마음의 고향·영원한 만남·모든 이의 쉼터· 건강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텅 빈 자리·나와 내가 함께하는 곳·한술밥·내가 먼저 안는 것·당신이 나임을 아는 것·새롭게 깨어남·우주의 동력·천국·시작과 마침·조울·내재되어 있 는 근원·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것·우리가 가고 있는 길·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마음·생 명수·성소·우주의 젓줄기·조건 없는 사랑·그대 앞에 떨림·가장 멀리 가장 가까이·대지의 어 머니·태초의 자궁·나의 본적지·나의 바탕

위에 나열된 내용들은 지난 8월 26, 27일 이틀 동안 제주 조천읍 와산리 조이빌 리조트<sup>1)</sup>에서 있었던 생명모성 초동 워크숍에서 20여 명이 모여 생명모성과 관련된 자장을 생성하고 개념을 정리해본 결실이다. 이 워크숍은 ‘생명모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다시 정리하자면, 생명모성이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의 근원성이 고, 여성-남성으로 이분화 되기 이전의 성품으로 인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동물계에서도 볼 수 있는, 잉태해서 보살피고 키우려는 생명의 충동이 고 본능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모성은 선한 본능으로, 양심 본연의 자태 로 드러나며, 정의롭고 진실되고 하늘을 공경하고 대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 기를 바라는 고차원적인 심성의 기도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모성은

---

1) 이곳은 필자의 동생 박유진이 7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에미서리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교육하고 있는 곳이다.

존재적 기본 성품으로써 생명세계 전체와 조율하고 조화하고 통합을 이루기를 염원하는 최고의 영성이다. 병을 치유하는 힐링의 힘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려내는 기적의 힘이고, 충동적 욕구와 욕망을 자제하고 만사에 함부로 하지 않으며 삼가는 마음,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국을 위해 나를 바칠 수 있는 부모-열녀-열사의 마음이다.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하다'라는 말처럼, 생명모성은 미처 자기 안에 있는지 몰랐던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열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이나 사회 곳곳을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생명모성의 결핍으로 메마른 속에서 시간과 노력과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생명모성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크게 존재하면서 한편 작게는 그렇게 궁한 것일까?

## 신기루 같은 생명모성

우리 주위로 눈을 돌려 보자. 생명모성은 우리 가정을 이루는 근본 바탕인데, 한동안 보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삶 속에 있어 주어야 사랑의 발이 생기고 그 토양에서 새 생명이 싹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 자태가 사라져 버린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삶의 건조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시들시들해지고 병 증상을 보이고 절망감에 빠져들고 심할 경우는 자살에까지 치닫게 된다. 현재 한국 사회 자살률이 세계 1위라 하니 사회가 이런 병을 앓고 있음이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생명모성 결핍의 원인을 뿌리영성의 단절에서 찾는다. 뿌리영성과의 단절은 어머니와의 관계 고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왔다.

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면, 아들을 기다리는 독자의 가정에 둘째 딸로 태어난 나는 남동생에게 쏠린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자랐다. 엄마는 직장 때문에 항상 집을 비워 우리 삼남매는 할머니와 식모 손에서 키워졌고, 이런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성과 자존감을 모르고 커 갔다. 엄마는 분명 나를 사랑했겠지만 나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했고, 나의 감성세계는 닫혀 있었다.

그런 내가 지금 생명모성 일, 인간의 막힌 가슴을 녹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나 개인의 성장 과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나를 나무랄 때 종종 “너는 영리한 애가 왜 그러지?”라고 얘기하시곤 했다. 저능아는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외부와 통하는 문이 닫힌 채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그럴 때 내 가슴은 마비되고 머리 작동은 느려지고 주의는 고착되고 저능아 같이 행동했다. 그러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해주면 상황이 나아지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

내 증상은 ‘약자폐증(mild autism)’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현상을 이해하고 원인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걸린 후에 비로소 약자폐증에 대해, 그리고 ASD(autistic spectrum disorder)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을 하면서, 그리고 교육철학-감성치유-감성교육-영성교육 분야를 접목하면서 나는 획기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개인들이 자신의 약자폐증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의식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모성의 배경 이야기이다.

나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네 살 때 6.25전쟁 피난 중 일어

난 드라마틱한 전인적 체험이었다. 포성이 터지고 한강 다리가 무너지는 난리 속에 우리 식구도 피난길에 올라 충청북도 어느 산골로 들어갔다. 빈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여섯 식구가 얼마간을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샹그릴라를 만났다. 포성은 더 이상 안 들리고 평화로운 기운이 그득한 고요한 산골짜기 안에서 모처럼 어머니는 매일 우리와 함께하셨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 앞 개천에서 세수를 하고, 물을 길어다 밥을 하고, 낮에는 들에서 나물을 캐고, 밤에는 반짝이는 검은 하늘에서 쏟아질 것같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전 처음으로 나의 고립된 속에서 완전히 나오는 것을 체험했다. 땅과 하늘, 산과 들, 그 기운이 나의 기운이고 나를 움직이는 체험이었는데, 그러한 체험을 하도록 연결시켜 준 것이 엄마의 존재였다. (엄마가 완전히 내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미국 가고 안계신 것은 문제가 안 되었다.)

그때의 생생했던 경험은 나의 몸과 마음을 진동시키면서 깊숙이 파고들어 갔고, 나의 감성을 활짝 열어 처음으로 외부 세계와 온전히 하나되는 강렬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 이 체험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었고, 어린 마음속에 의식의 전환을 일으켰다. 이 세상이 무엇이 가능한 곳 인지를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훗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해 주었다. 존재의 신비를 체험함으로써 그 느낌을 알 수 있었고, 그 체험을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재창조하기 위해 정진하게 했다.

## 생명모성의 길

그러한 전인적 체험의 결과로 나는 평생에 걸쳐 '통합된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다. 이 세상이란 어떤 곳인가? 여기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학문 속에서 이런저런 분야를 답사하며 동양철학, 서양철학, 영성학 등

을 공부하고 교육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기존의 학문 안에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가르치는 길로 들어서는 대신, 방향을 돌려 내면 치유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라는 도구를 잘 갖추고 잘 쓰도록 하자. 분절되고 막혀 있고 성장이 중단된 내 내면의 상처 입은 부분들을 찾아서 치유하자. 그리고 통합하자. 평화를 이루자. 나 자신과 주위의 평화 통일, 이것이 곧 나의 사명이 되었다.

감성이란 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정밀한 컴퓨터와 같아서 그것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도 알지 못한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나를 사용해 살아가려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는가? 주어진 능력이 다 발휘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놓인 여러 가능성들을 뒤로 하고 감성치유와 자기계발의 길로 들어섰다.

내 자신의 감성 치유를 거쳐 그 다음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었다. 그 관계를 소아와 엄마의 관계에서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앞서 이런 분야가 없었고 길을 닦아 놓은 사람이 없었던 탓에 새로이 길을 만들며 가야 한다는 데서 막연하고 무모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온전한 관계를 원하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로 했다. 그로부터 십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모녀는 갈등과 통증으로 가득 찬 관계에서 평정이 깃든 도반의 관계로, 그리고는 한마음 한뜻으로 인류 의식의 진화에 기여하는 동지의 관계로, 전환에 전환을 거듭해 왔다.

이 길은 나의 금광을 발견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를 자녀들을 대하는 데에도 적용해 왔다. 자녀들과도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관계를 이루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며 충실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에 기여하는 동지적 구심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가 사용해온 방법은,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그 문제의 요인을 내게 미약했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는 내 자신의 내면 작업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나오는 새로운 통찰의 힘으로 그들과 나누는 것이었다. 항상 그들보다 반 보 앞서 갔다.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생명모성을 발휘하고 그 차원에서 서로를 지원하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가슴을 통해 울려 나오는 사회의식을 공유해야 했다. 이는 재래의 수신 재가치국평천하 철학, 또는 (유교식으로) 남성이 부권주의적 심리와 관점에서 시작해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 어둠의 생명모성 / 빛의 생명모성

생명모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삶의 복잡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지와 인내심과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전사 에너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글의 첫머리에 서술해 놓은 말들이 제시하는 밝고 따듯하고 여린 에너지는 완성의 단계에서 느낄 수 있다.)

넬슨 만델라의 27년에 걸친 감방 투쟁은 어둠 속에서 생명모성이 발현하는 좋은 예이다. 특히 그가 감방 생활을 하는 동안 보여준 올곧고 고귀하기까지 한 모습에 그를 지키던 백인 간수가 그를 존경하게까지 되었다는 예화는 모델 사례라 할 만하다. 만델라는 그의 승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증오에서 자신을 해방해야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해 주었다.

생명모성은 그저 독립투사의 정신이 아니라 증오심, 두려움, 수치심, 열등감, 화, 슬픔, 고독, 절망감 등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품고 녹여내는 거대한 생명의 장 안에서 그 힘을 드러내면서 장애를 뚫고 나오는 생명의 근원적 힘이다. 증오에서 자신을 해방하지 않는 한, 증오의 기운이 자기를 사로잡고 족쇄를 채워 버린다. 이것이 지금 많은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닌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른 예를 보자. 정복당한 모든 지구촌 원주민들 중에서 자신의 운명을 가장 혁신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부족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인데, 그들은 십여 년 전에 자기들 내에서 만든 뉴질랜드 정부를 포함해 다른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Maori Government of Aotearoa'라는 이름의 마오리 정부를 만들고, 쉰 니코라(Sue Wylam Wiremu Nikora)를 수상으로 임명했다. 그녀는 부족 주신(Great Spirit)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특유의 강력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마오리족의 주권과 소유권을 살려 내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 여성을 올해 뉴질랜드 기스번에서 있었던 '13 grandmothers 회의'에서 대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마오리 사람들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상담을 하며 그들을 돌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소중한 생명모성의 힘을 보았다. 생명모성은 적시적소에 사람을 구제하고 사회를 구제하고 필요할 때 대 전환을 일으키는 생명과 창조의 원동력이다.

## 생명모성의 실체: 진실과 정직

생명모성의 힘이 발휘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자기 내면에 있는 생명모성의 원천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 상대를 위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행동할 때 나오는 힘은 상대를 무시하고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가 억압하는 등 음성·양성적 폭력을 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지금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생명모성이 힘을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충만해 있어야 한다. 남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자기 내면의 치유와 정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혼자 하는 명상과 수행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고, 따라서 필요한 것은 관계성의 치유이며 정화이기 때문이다. 자라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결핍의 정체를 자각하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할 수 없다. 대인관계는 자신에게의 진실함, 즉 내면의 정화와 정비례한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면밀한 차원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와 정비례하여 생명모성을 짓밟는 행위들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 범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족적 비극으로부터 조직적·사회적 비리, 지구환경 파괴 등 범지구적으로 확장된다. 생명모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관련되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과 관련되고, 우리의 뿌리와 관련된다.

## 생명모성의 실체: 공명

과학, 물질, 경쟁과 소유를 중요시하는 현대문명은 지구상의 생명모성 에너지를 고갈시켰고, 현대인들의 의식은 인간 중심, 이성 중심, 물질문명 중심으로 옮겨갔다. 문명의 이름 아래, 자연과 생태계와 일체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던 토착민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해 정복했고, 그들의 우주관과 지혜와 영적 능력을 말살해 뿌리를 말려 버렸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지구촌 전반의 생명 위기이다.

토착민들은 주위 환경과 일체되어 살면서 바람과 땅과 천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야생 동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다. 동물계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적절하게 지켜나갔고 전체를 성소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북미 인디언들이 백인들에게 전한 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이 야생 동물과 소통하게 되면 어떤 장면들이 벌어지는가를 극적으

로 보여주는 남아프리카 여성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브리튼바흐 Anna Breytenbach로, 동물과 의사소통하는 동물교감사(animal communicator)<sup>2)</sup>다. 안나는 인간이 야생 동물과 소통하는 것을 ‘생명과과의 연결(connection with life)’이라 부르고, 그러한 연결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그들과의 공명이 일어나고 자비심이 살아난다고 말한다. 생명모성은 중국적으로 생명과의 연결이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발동이고, 상대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이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empathy, 즉 감정이입, 공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상대가 느끼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게 되면 상대를 위하며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

## 생명모성의 전망: 왜 한국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생명모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모성과는 그 범위가 다르다. 후자는 주로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의 감정이며, 자기 자식이 안전하고 잘되기만을 바라는 데 국한되는 것이다. 반면 생명모성은 생명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의식의 열림이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하고많은 나라 중 하필이면 왜 한국에서 생명모성의 불꽃이 언급되고 있는가?

한국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성의 힘이 막강한 나라였다. 이는 여성의 힘을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유교적 남성중심

---

2) 안나는 광대한 땅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면 야생 원숭이들(baboons)이 살고 있는지를 직감으로 알아차려 안내하고, 그들도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안나가 다가가면 바라보고 있다 옆으로 와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에 보보를 한다. 안나가 동물원에서 학대당한 야생동물을 데려가 보호하고 돌보는 곳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자와 표범이 마치 고양이처럼 이곳 주인과 놀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새끼만 표범이 한 마리 있었다. 그에게 지어준 이름은 디아블로(Diablo:악마)였다. 디아블로는 사람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며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콘크리트 도사 안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안나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눈으로 물으니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인사를 바라보며 전에 있던 동물원에서 당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안나는 디아블로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여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괜찮다고 하니 알아들었다며 그때부터는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런 중에 안나에게 나의 큰 존재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전해주었다.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변두리로 밀려났고, 여성의 몸이 갖는 역할은 가문의 혈통을 잇는 수단으로 좁혀졌다. 여성의 힘이 한 집안의 모성 영역으로 집중되었다는 말이다. 그런 전통과 역사 속에서 여성의 자아의식은 “착한 여자”의 테두리 안에 갇히고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전통이 강요하는 인의예지의 틀 속에서 자기를 규정해야 했고, 희로애락의 감정은 건강하게 표현될 수 없었다. 이러한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온 모성은 왜곡되고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강하게 불고 있는 치맛바람의 유래가 그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에너지는 대단히 강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면이 많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자식의 성공에서 대리 만족을 기대하는 심적 요소가 무겁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고 성숙한 여인의 기운을 퍼뜨리기보다는 눌러 있는 전통의 무게에 저항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재래의 여성 역할에 회의를 갖게 된 많은 여성들이 독신의 삶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풍토적 환경은 좁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독신주의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여성의 힘의 원천인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생명모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아 정체감을 상실한 속에서 헤맬 수 있다. 한편 자연적으로 강한 모성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자기중심적 모성의 그물을 던져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방식 속에 가두려 하고, 상대가 반기를 들면 마음에 불만이나 한스러움이 생겨나 부정적인 기운을 표출한다.

그런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시 필자의 이야기로 풀어내자면, 십여 년 간의 감성치유 작업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아주 밀접해진 어머니의 개인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 나의 뿌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강한 생명모성의 소유자인 내 어머니의 한국식 모성에 반발하며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했고, 네 번의 이민을 하는 동안 한국식 어머니의 강력한 힘과 약점을 동시에 직시할 수 있었다. 서양의 열린 자연과 환경 속에서 생명모성에 대

한 상을 정립하고 탐사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 모성이 결핍된 한국의 여성성을 보게 되었고, 또 한 발 물러서 있는 주권 잃은 한국의 남성성을 보게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과 특성이 나 자신의 영적 여정, 그리고 생명모성과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하고 생명모성이 한국에 출현하도록 하는 일을 착수하게 된 것이 여기까지의 경로이다.

## 맺으며

생명모성은 한국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성품을 키워내도록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대장금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말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1)한국 사회의 깨어 있는 사람들, 사회 문제를 절감하는 사람들이 생명모성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2)부권주의 틀 속에 갇혀서 흑독히 단련 받아 온 한국의 여성들과 남성들이 자신 속에 내재된 모성적 근원성, 뿌리영성을 자각하고 키워내는 것, (3)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던 것에서 어머니 땅과 생태계 전반을 보호하는 모성적 영성을 키워내는 관점으로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생명모성의 결핍으로 구성된 인류 역사의 정복자들.

그들에 의해 말살된 지구촌 토착민들의 광대한 생명모성.

지구 어머니를 구심점으로 하는 생명 인생관을 새로이 적립할 시기가 왔다.

민족주의 대신에 인류적 생태영성주의.

이 길의 안내자는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생명모성.

지금까지 나를 옴아매 왔던 감성 땃줄을 자르고

나의 주체인 생명모성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다.●

특집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

36

문명의 전환과  
노동의 미래  
강수돌

57

생명의 시선과  
탈근대적 노동  
류하

74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삶과 노동  
임윤옥

85

협동조합에서의  
노동  
김재겸

102

좌담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





## 문명의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삼중의 위기와 우리의 삶

지금 우리는 ‘삼중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첫째는 일의 위기요, 둘째는 땅의 위기며, 셋째는 얼의 위기다<sup>1)</sup>. 이 삼중의 위기는 우리를 스트레스로 내몬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인데도 말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과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해,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세월 다 보낸다. 설사 취업을 해도 직장인들은 날마다 일이나 사람에 치여 스트레스의 극치를 달린다. 적령기 젊은이들은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요, 때마다 명절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좀 쉬고자 휴가를 떠나려 해도 도로 위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모인 곳마다 산천이 온통 스트레스 덩어리다. 언론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건 없고 백성의 마음을 달래야 할 정치는 스트레스를 더 키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빠진 이들이 너무 많다. 배웠다는 이들일수록 얼빠진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세태에

---

\* 고려대 교수, 경영학

1) 출처, 『경제와 사회의 녹색혁명』, 문화과학사, 2011.

서 아무리 스트레스 퇴치법을 배워도 별 소용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이미 '스트레스 사회'다. 각종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도대체 이 스트레스 사회를 극복하고 높은 문화와 삶의 질을 누리는 행복 사회의 길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직면한 삼중의 위기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첫째, 일의 위기는 일자리의 위기일 뿐 아니라 일과 사람이 맺는 관계의 위기다. 일자리의 위기는 당연히도 자본의 위기에서 온다. 따지고 보면 일자리 또는 일의 위기란 결국 자본의 위기가 보여주는 한 모습에 불과하다. 인간적 필요의 원리가 아닌 무한 이윤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은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를 번갈아 겪는다. 너무 똥똥해진 자본이 균살빼기를 할 때, 1998년의 현대자동차나 2009년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노동자는 목숨 걸고 정리해고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자본이 한창 잘나갈 때조차 노동은 행복하지 않다. 삶보다 일에 치여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생산하여 더 많이 팔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보다 생산이나 실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집단적 상흔'을 경험한 우리는, 대개 "아직 안 잘리고 남아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 민주노조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는 상처가 뚜렷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나 홀로' 살아남고자 발버둥쳐 봐야 금세 먼지 같은 존재 또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운신의 폭은 '생존이나 잉여냐' 하는 좁은 공간 안에 있다.<sup>2)</sup> 이렇게 좁아진 운신의 폭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잉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젖어 생존의 몸부림만 치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속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

2) 김수환, 소영현, 심보선 대담, "진정성 함부로 차지 마라, 넌 한번이라도 뜨거운 잉여였나", <프레시안> 2013. 11. 8.

그래서 다시금 자신을 추슬러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생존이냐 잉여냐’가 아니라 ‘속물이냐 행복이냐’ 하는 것이다. 참된 행복은 속물주의와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나아가 나와 내 내면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참된 나와 다시 접촉하고 나를 다시 바로 세우면서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아야 한다. 하나는 약하지만 둘은 강하고 셋은 더 강하다. 그렇게 서로를 이어가야 한다. 끊어진 유대를 다시 엮어야 하며, 찢겨진 가슴을 서로 어루만져야 한다. 또한 고개를 들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지 서로 풀어내야 한다. 꼭 술을 마셔야 하는 건 아니다. 술 없이도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 캄캄한 밤중에 큰 광장에 모인 촛불들처럼, 경찰 ‘물대포’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희망버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여야 한다. 그것만이 일의 위기를 넘어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길이다. 그것만이 돈벌이 경제가 아니라 ‘살림살이’ 경제를 여는 길이다. 그것만이 스트레스 사회가 아니라 ‘행복 사회’를 여는 길이다.

둘째, 땅의 위기다. 사실, 땅의 위기는 하늘의 위기이기도 하다. 서로가 서로를 이끈다. 흔히 말하는 생태계의 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핵 위기, 식량 위기 따위를 모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도 사람의 위기와 연결되며, 그 사람의 위기는 결국 자본의 위기와 연결된다. 그런데 자본의 위기는 결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내부’ 요인으로 생긴다.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관계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자본의 세계화는 사람의 식민화와 더불어 땅의 식민화까지 촉진한다. 결국은 사람의 황폐화, 땅의 황폐화를 부른다. 사람이 피폐해지니 불감증에 걸려 땅을 더욱 무자비하게 부순다. 땅에 대한 폭력은 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게 악순환이 지속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핵무기요 핵발전

소다.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중간 단계다. 이들은 순식간에, 대규모로, 되돌릴 수 없이 파괴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가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다. 어느 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이 고등어, 명태, 표고버섯 등이 방사능에 가장 많이 오염되었다며 먹지 말라고 하지만, 어디 이런 식품들뿐이라? 그리고 이런 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 세상을 연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본과 권력을 주무르는 자들에게는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생태계의 입장, 여성의 입장, 일반 민초의 입장, 사회적 약자의 입장, 가난한 나라의 입장은 완전 반대다.<sup>3)</sup> 과학기술이 농업, 공업, 서비스에 적용된 결과 갈수록 삶의 근본 토대인 땅이 망가진다. 이제, 사막처럼 푸석푸석해진 땅을 살리고 더러워진 물과 공기를 살려야 한다. 땅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며 모든 살아 움직이는 존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속가능성'의 출발점이다.

끝으로, 열의 위기다. 열이란 정신이요, 문명이다. 문명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 과연 우리가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죽으러 가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호랑이한테 잡혀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시대의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정신을 차리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 문제는 두려움이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렵고 남보다 우위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오죽하면 인간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에서조차 '우등과 열등'을 가르는 우열반 편성을 할까? 아이들이 우수한 그룹에 많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우열반을 편성하지만 그럴수록 열등반에 빠질

---

3) H. 헨더슨, 「그린 이코노미」, 이후, 2008, 82-98쪽 참조. 그녀는 특히 여성들이 수행하는 무보수 노동인 '사랑의 경제' 및 '어머니 자연'인 생태계 자체가 전 세계 GNP의 절반을 구성함에도 공인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까 두려워하는 이가 더 많이 생긴다. 학교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셈이다. 일반 사회로 나와도 마찬가지다. 경제와 사회의 기본 구조는 피라미드 질서이다. 이 피라미드에서 높은 곳을 차지한 이들은 기득권의 달콤한 떡고물을 누리면서 중독되어 가고, 중간 이하 아래쪽에 자리잡은 이들은 기득권의 달콤한 떡고물을 동경하면서 중독된다. 상층부는 향유 중독에 빠져 있고 중하층은 동경 중독에 빠져있다. 그러니 우리 사회는 (기득권) 중독 사회라 해도 무방하다. 온 사회가 말은 않지만 기득권(돈, 지위, 명예, 권력 등) 경쟁을 하는 사이, 사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돈 중독, 일중독, 소비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마약 중독, 관세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등에 빠진다. 요즘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기는커녕 온갖 중독에 깊이 빠져드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이렇게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중독자가 되니 피라미드처럼 생긴 사다리 질서는 변함없이 유지될 뿐 아니라, 시나브로 더 가팔라진다. 그 와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며 미래의 불안에 갇히고 만다. '스트레스' 사회의 미시적 기초요, 불행 사회의 정신적 기초다.<sup>4)</sup>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진짜 열차려야 한다. 열이 빠진 얼굴에만 집착하다보니 성형 수술만 한다. 골은 비어 있는데 얼굴만 잘 가꾸면 무슨 소용인가? 그 약효는 얼마 가지 않는다. 그렇게 큰돈 들여 인위적 수술을 해봐야 열빠진 두개골은 금방 들통난다. 그 사이 사회 전체는 몰개성 사회가 된다. 개성과 죽대는, 역사를 알고 사회를 알고 자기를 아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대화를 하고 감동을 나눠야 한다. 두려움이 생기면 피하지 말고 충분히 느껴 보라. 무엇이 그 두려움의 실체인지 가만히 체감해 보라. 그리고 마음 맞는 이와 그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 보라. 그러는 가운데 신기하게

---

4) 김준수, "대한민국 '20대 고졸, 이렇게 삽니다.'" <오마이뉴스> 2013. 11. 19. 참조.

도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서로 평화로워진다. 이 모두가 값진 삶을, 행복한 사회를 창조하는 기초다. 자본과 권력이 만든 스트레스 사회, 그들에게 이 망가진 세상을 되살려달라고 기대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 누가 뭐래도 소통과 연대가 희망이다. 그렇게 해서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살려내는 '더불어 혁명'을 해나가야 한다. 혁명이라고 해야 별 것 없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기초부터 바꿔보자는 이야기다. 우리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이윤을 탐하지 않는다. 남을 지배하는 것도, 남을 속여 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물같이 바람같이 자연스레 살자는 것이다. 그런 열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 행복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삼중의 위기가 결국 삶의 위기로 나타난다. 흔히 말하는 경제 위기도, 실은 민중의 살림살이가 위협에 처한 상황이다. 위기는 자본이 초래했지만 위기로부터의 탈출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자본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

## 자본이 삶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어려운 까닭

자본은 그 속성상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한다. 한편으로는 개별 자본이 고용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다른 개별 자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기업과 기업, 상품과 상품이 경쟁하는 상황이 강해질수록 개별 자본은 자신의 노동력을 통솔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요컨대,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열심히 하도록 잘 부추겨야지만 자본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뽑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자본관계의 본질이다. 이런 면에서 경쟁은 지배와 동전의 양면을 이

룬다는 명제가 성립한다.<sup>5)</sup>

최근 들어 “고용 없는 성장”, “정규직 없는 고용” 등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제는 “성장 없는 경제”를 대비해야 한다. 오히려 “축소지향적인 사회경제”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참된 대안일지 모른다.<sup>6)</sup>

그렇다면 우선은 “성장 없는 경제”가 어떻게 해서 도래하고 있는지, 상호 연관된 몇 가지 측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경제이건 세계 경제이건 팽창 국면이 끝나고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사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 경제는 약 30년 동안 줄기차게 성장했다. 선진국에서 복지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던 물적 토대가 바로 이것이었다. 공장 규모를 키우고 생산량을 늘려도, 또 해외로 확장해도 받아들여 줄 곳이 무한한 것처럼 비춰졌다. 그럴수록 완전고용의 신화는 더욱 커졌다. 이제 공황이나 위기는 더 이상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 외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1970년대를 지나면서 선진 자본은 위기에 빠졌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나왔다. 1979년의 영국 대처 수상, 1981년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선두에 섰다. 이제 선진 자본들은 개방화, 탈규제, 민영화, 유연화 등의 기치를 내걸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온 세상에 강요했다. 그 와중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진국들도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결국은 선진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이른바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상징되는 금융 위기를 계기로 종말을 고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파국에 빠진 신자유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시점에 있다. 캐나다 요크 대학의 D. 맥넬리 교수는 『글로벌 슬럼프』라는 책에서 “향후 세계는 10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슬럼프에 빠져 헤어 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한다.

---

5) 강수돌, 하이데,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이후, 2009 참조.

6) 대런 장, “탈성장: 경제성장 vs 평등” 담론을 넘어서”, 『모심과 살림』 1호, 205-211 참조.

둘째, 시장 경쟁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추구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논리 자체가 “성장 없는 경제”를 촉진한다. 갈수록 경쟁이 격화하니, 기업들이 생고생해서 뭔가 생산을 해보아야 잘 팔리지도 않고 망하는 기업도 많이 생긴다. 성장보다 낭비가 심해진다. 생산의 측면과 시장의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자. 생산의 측면에서는 ‘피크 오일’로 상징되는 석유 위기, 나아가 모든 자원의 고갈 위기가 도사린다. 더 중요하게는 인간 노동력이 기계처럼 24시간 내내 일할 수도 없고 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계속 묵묵히 일을 하진 않는다는 면, 더 적극적으로는 서로 소통, 단결, 연대하여 집단적으로 저항하기도 하는 측면, 즉 인간 노동력의 주체적인 면도 자본에게 일정한 한계를 지운다. 다음으로 시장의 측면에서는 갈수록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공간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의 소련 및 동유럽 사회가 새로운 공장 및 시장으로 개방되면서 한계에 직면한 자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지만 이제 그것도 포화에 가까워진다. 게다가 기업들은 유행이나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부채질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은 일회용품보다는 내구재를 선호하고 윤리적 소비 내지 생태적 소비를 지향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시장 확장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역설적이게도 범지구적 경쟁이 초래한 자가당착적 상황이다.<sup>7)</sup>

셋째로, 기술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면서 생산의 효율은 엄청 높여주고 있으나 결국은 노동력을 절감하거나 배제하는 모습으로 귀결된다. 갈수록 기술은 대형화, 고가화, 복잡화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사람은 한편에서는 노동자로, 다른 편에서는 소비자로 기능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 모습인데, 노동배제적인 기술이 대거 투입되다 보니 실업 문제는 만성화하

---

7) 최근 독일에서 ‘기업의 자유’만 외치던 자유민주당(FDP)이 의회로부터 퇴출당한 사건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김 누리, “독일 의회에서 퇴출당한 시장자유주의”, <한겨레> 2013. 11. 11. 참조.

고 노사 간 협상이 있어도 상호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상호 투쟁이 고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결사’ 항쟁을 해야 하고 기업은 하나도 양보하기 어려워 기존의 협약조차 ‘파기’하고 만다. 정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아무리 돈과 인력과 제도를 갖추려고 발버둥쳐도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세금만 낭비하고 만다. 이미 40년 전에 E. 슈마허 선생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중간기술’을 주창하며 기술을 소형화, 저렴화, 단순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물레 돌리기’ 운동도 같은 맥락이다.<sup>8)</sup> 이런 인간적 기술들은 인간 노동을 중시하고 자립의 능력을 높이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고양시킨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투입되는 거대 기술 시스템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파편화하며 마침내 생산과정에서 추방하고 만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찌 오늘날 경제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넷째로, 신자유주의 단계의 자본주의가 낳은 금융 부문의 거품 문제를 들 수 있다. 원래 화폐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돕는 기능을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화폐는 금융자본이 되었고 은행은 적은 돈을 갖고도 이자에 이자를 붙여 돈을 불려나가는 연금술사가 되고 말았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 포기’를 선언하면서부터 달리는 금과 맞교환되지 않는 종이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 다만, 사람들이 가진 신뢰가 화폐 가치를 유지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만 셈이다. 그 뒤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각종 파생상품이나 선물상품 등, 실제 가치의 생산이나 유통과는 무관한 허구적 가치를 표시한 상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마치 M.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에서 호주의 참사람 부족이 “당신네 무탄트들(현대인과 같은 돌연

---

8) E. F. 슈마허, 『굿 워크』, 느린걸음, 2011; 김종철, 『간디의 물레』, 녹색평론사, 2010; E. F. 슈마허, 『내가 믿는 세상』, 문예출판, 2003;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 2002 참조.

변이(속속)한테는 사업이 일종의 도박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사업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물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죠. 또한 사업은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구요. 이제는 당신네 경제 구조의 폐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어 버렸지요. 하지만 오늘날 사업의 목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되어 버렸어요.”라고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하루에만도 약 5조 달러의 돈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국제 무역의 수출입 결제를 위해 쓰이는 돈, 즉 실물경제를 돕기 위한 돈은 그 중의 3%도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7% 이상의 돈은 금융자본이 몸집을 불리기 위한 각종 투기성 자금 또는 허구적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가 갈수록 실물경제라는 토대를 상실하고 허공의 풍선이나 거품처럼 떠다니게 되니, 과연 자본이 삶의 위기로부터 인간을 구할 수 있을까?

## 문명의 전환과 노동의 미래

이제 우리는 일의 위기, 땅의 위기, 열의 위기 등 삼중의 위기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이러한 위기들이 결국은 자본의 돈벌이 위기와 맞물려 있으면서도 마침내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삶의 위기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자본이 결코 삶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의지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결국, 대안은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살핀 바, 경제의 위축이나 경쟁의 격화, 노동배제적 기술의 확대, 그리고 금융 부문의 허구적 거품 증가 등 여러 측면은 우리로 하여금 ‘문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다. 문명의 전환, 말이야 거창하지만, 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많이 먹기보다 적게 먹기를, 부자 되기보다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좀 달리 표현하면, 양보다 질을, 결과보다 과정을,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를, 이윤이 아니라 필요를,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를, 사다리 질서가 아니라 원탁형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패러다임 전환이고 문명의 전환이다. 경제인류학자인 K. 플라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의 품을 떠나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설치는 경제를 다시금 사회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경제를 다시금 사회의 품속으로 갖들게 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상품으로 변해버리고 만 노동, 토지, 화폐를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탈상품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다시금 평화공존의 관계가 활성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의 내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은 정규호 박사가 『모심과 살림』 1호에서 정식화한 ‘사회적 진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즉, 문명의 패러다임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대로부터 현재의 시장주도 경쟁 시대를 거쳐, 미래의 협동과 공생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sup>9)</sup> 영국의 보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조차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 협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데 (주류) 경제학의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던가?<sup>10)</sup>

그렇다면 이러한 문명의 전환과 더불어 노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나는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의 근본적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람의 손노동이 중시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다. 앞서도 말한 바, 과학

9) 정규호, “전환의 시대, 사회운동의 방향과 역할”, 『모심과 살림』 제1호, 99쪽.

10) <이코노미스트>, 2005. 12. 24. 참조: H. 헨더슨, 위 책, 53쪽 재인용.

기술이 경제 과정에 투입되면서 인간 노동력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걸핏하면 정리하고 대상 내지 잉여 인간으로 취급된다. 세계시장 차원에서 살벌한 경쟁을 수행해야 하는 개별 자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고가의 기계나 설비를 투입할수록 개별 자본은 ‘아직’ 잘리지 않고 살아남은 노동력을 더욱 가혹하게 짜야 한다. 그래야 빛도 갠고 본전도 찾곤 나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중간기술’ 내지 ‘적정기술’이 대안으로 부각된다.

이 부분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제주 해녀 이야기다. 추운 겨울에 산소통도 없이 해녀복만 껴입고 간단한 장비와 바구니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들, 이들은 숨 한 번 길게 들이쉬곤 다음 다시 모두 내뿔을 때까지 해산물을 채취해야 한다. 이런 ‘원시적인’ 모습을 본 어느 외국 관광객이 이렇게 말했다. “해녀님, 산소통도 메고 장비도 세련된 걸로 갖추고 들어가면 지금보다 열 배나 많이 잡을 수 있을 걸요.” 이 말에 해녀가 말했다. “그렇게 많이 잡아버리면 우리 이웃들 아홉 명은 뭘 먹고 살게요?” 결국, 사람의 손노동이란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기계적 효율성을 맹목적으로 드높이는 일은 이웃의 불행을 대가로 나만의 편협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반면, 손노동을 중시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은 좀 더디게 가더라도 나 자신의 삶의 자율성이나 삶의 지혜를 드높이는 길이며,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협동노동을 중시하는 사회가 희망적 미래를 연다. 지금의 경제는 개별 노동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해답인 것처럼 돌아간다. 그러나 앞서 말한 삶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이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협동노동을 중시해야 한다. 예전의 우리 농어촌을 생각해보라. 집을 지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지었고 모내기나 추수를 할 때도 같이 하지 않았던가. 길쌈질을 하고 옷을 만들 때도 이웃과 같이 했으며, 누군가 돌아가셔도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슬퍼하며 서로 도와 일을 치렀다. 오늘

날 다행히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협동조합 식으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구축되었다. 사실은, 그런 법이나 제도가 없어도 사람들 스스로 협동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미국 백인 학교에 북미 원주민(인디언) 후손들이 전학을 왔다. 몇 달간 공부를 한 뒤에 선생님이 말했다. “얘들아, 시험 칠 준비를 하여라.” 이 말에 백인 아이들은 모두들 자기 책가방을 책상 위에 올리고 옆에 있는 짝이 볼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인디언 후손들은 달랐다. 그 아이들은 동그렇게 모여 앉았다. 시험 칠 준비를 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이 화를 냈다. “아니, 너희들은 왜 시험 칠 준비를 않고 그렇게 게임만 하려고 하느냐?” 이에 아이들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예전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서로 협력해서 풀라고 배웠는데요.”<sup>11)</sup>

사실,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쓴 Ch. 다윈도 ‘자연 선택’이나 ‘적자생존’을 강조했지만 모두 환경에의 자연스런 적응을 강조한 것이지 ‘약육강식’을 말한 건 아니다. 특히, 다윈이 1871년에 쓴 『인간의 유래』는 자기희생적인 이타주의가 ‘자연선택’의 과정에서 출현했다고 말한다. “좋은 품성을 갖춘 사람이 늘고 도덕성 기준이 진보할수록 부족 전체는 타 부족에 비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높은 수준의 애국심, 충성심, 복종심, 용기, 동정심이 있어서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자본주의 아래서 힘겹게나마 대안적으로 가고 있는 일부 사례들 속에서도 확인된다. 일례로, 인천의 키친아트나 청주의 우진교통은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의 대표적 사례인데, 이 기업들은 원래 기존 경영주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버리고 떠나버린 회사를

---

11) 줄저, 『나부터 교육혁명』, 그린비, 2003 참조.

노동자들이 인수해 십시일반 출자금을 투입하여 협동조합적인 자주관리 기업으로 재탄생시킨 조직들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처럼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기거나 노동자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업들은 힘든 시절을 함께 극복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며 자발성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쳤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조직의 효율성과 구성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인 샘이다. 결국, 신뢰와 협동이 새로운 효율성의 미시적 기초라 할 수 있다.

현실의 지배적인 경제처럼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적대적 경쟁은 결코 인간의 미래가 아니다. 이 게임은 결국 극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로 갈라지는 ‘공멸’의 게임이다. 이러한 게임의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우리는 대개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나도 승자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는다. 공부도 그러하고 노동도 그러하다. 설사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어도 ‘승자’ 그룹에 들어가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아니, 그런 환상을 품고 계속 개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을 하는 한, 우리는 갈수록 깊이 빠지는 늪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치 이런 식이다. 필자가 고교생 시절엔 고2 겨울 방학부터 1년만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갔다면 요즘은 초등 시절부터 열심히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스트레스는 어린 시절부터 느낄 만큼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 모두는 ‘생존이나, 잉여냐’ 하는 늪 속으로 더 깊이 갇혀버리고 말았다. 이 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돌파구는 ‘협동’의 패러다임밖에 없다. 협동노동이 중요한 까닭이다. 오늘날 핀란드의 교육이나 일본의 사토 마나부가 제창한 ‘배움의 공동체’가 세계적 주목을 받는 까닭 중 하나도 ‘협력 학습’에 있지 않던가?

셋째, 비임금노동의 중요성에 다시 주목하자. 이반 일리치 선생이 강조한 ‘그림자 노동’은, 동일한 가사노동도 한 여성이 파출부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일정한 월급을 받지만 자기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면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용어다. 똑같은 가사노동이 그림자 속에 가려지듯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sup>12)</sup>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간 노동력 없인 돌아가지 못한다. 영국에서 15세기 이후 엔클로저 운동이 이뤄지면서 공유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도시의 공장으로 쫓겨났다. 이들은 예전엔 땅과 더불어 자연 경제 속에 살다가 이제는 공장 노동으로 임금을 받아 연명해야 했다. 가면 갈수록 삶의 모든 과정이 돈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했다. 일리치 선생은 『젠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대의 주부는 시장에 가서 달걀을 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가스레인지로 쪄고 냉장고에서 버터를 꺼내 달걀을 부친다. 그러나 그녀의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닭장에 달걀이 있나 보고 그것을 집어 와서 집에서 만든 돼지기름 덩어리를 조금 떼어낸 다음, 아이들이 공유지에서 해온 땀감으로 불을 붙이고 사둔 소금을 달걀에 뿌린다.” 이 정도로 우리 삶의 조건은 변했다. 화폐독립적인 생활방식에서 화폐종속적인 생활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삶은 화폐의 식민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삶을 화폐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화폐 식민지로부터의 독립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독립적 생활방식의 활성화는 결국 손노동을 중시하는 일이나 협동노동을 중시하는 일과 연결된다. 이 측면들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발전해나갈 것이다. 그 와중에 지난 수십(백) 년 동안 임금노동이 차지하던 ‘삶의 중심성’은 서서히 약화할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

12) '그림자 노동'에 대해선, 이반 일리치, 『그림자노동』, 미토, 2005 및 박경미, “하느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녹색평론』 133호 참조.

하나는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가격으로 주어진 화폐이지만 그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을 사는 '구매력'의 근거이기도 하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던 생활방식이 손노동이나 협동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할수록 임금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일례로, 2013년 11월에 만나 친밀한 대화를 나눈 한 대기업 부장은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입사한 지 12년 만에 부장을 달고 지금껏 일을 해왔는데, 향후 2-3년이 지나면 명예퇴직을 하고 귀농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귀농 준비는 약 10년 전부터 한 셈인데, 이미 집을 지을 땅은 보아둔 상태이고요. 귀농 후에는 크게 돈을 벌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돈을 적게 쓰면 되거든요. 일단 채소는 거의 자급할 생각이고, 차츰 과일이나 쌀도 자급할 것입니다. 집도 가능한 한 혼자 직접 짓거나 지인이랑 함께 지으려고 목수 일도 제법 배웠답니다. 아내는 천이나 옷으로 뭔가 만드는 일을 많이 배웠죠.”

다른 하나는, 임금이 '자본'의 한 모습이란 점이기 때문이다. 인간 노동력과 임금은 노동시장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상호 교환된다. 그런데 이 임금과 맞교환된 노동력은 실제 노동 과정에서 임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채찍질 당한다. 이런 면에서 임금과 교환된 노동력은 '가변자본'으로 불린다. 생산 과정에서 그 가치의 크기가 변동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요컨대, 임금과 교환되는 노동력은 더 이상 살아 있는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자본의 몸을 불러주는 부속품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손노동이나 협동노동이 증가하여 삶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 삶을 지배적으로 규정하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자본의 힘이 약화하게 된다.

요컨대, 손노동, 협동노동, 비임금노동이 늘어날수록, 그리하여 화폐독립적인 생활방식이 확산될수록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즉 실업 문제나 소외 문제, 생태 파괴, 불평등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업을 유발하고 소외를 일으키며 불평등을 조

장하고 생태계에 해로운 노동을 ‘죽임의 노동’이라 한다면, 손노동, 협동노동, 비임금노동은 화폐독립적 생활방식을 장려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살림의 노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텃밭 농사나 반찬 만들기, 옷 만들기, 집 짓기 등과 같은 일들은 귀찮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점을 무릅쓰고라도 굳이 그런 걸 직접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예컨대, ‘건강’에 좋다는 점이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나아가 ‘재미있다’, ‘즐겁다’, ‘보람을 느낀다’, ‘감동이 있다’라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삶의 자율성이나 공동체성이 향상되면서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몸에 익혀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강박에 스스로 갇힌 게 아닌가.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불편함이나 귀찮음을 기꺼이 감수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느낄 수 있는지 모른다. 특히 마음의 여유나 삶의 살가운 모습들, 그리고 자신이나 주변의 친밀한 관계와 같은 중요한 것들은 돈벌이 때문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아니던가. 지금부터라도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노동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근본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조건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논해야 한다. 앞에서 손노동, 협동노동, 비임금노동을 강조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

에 갑자기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나 경제계가 손노동을 경시하고 협동보다는 경쟁노동을 조장하며 임금노동만 중요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현실에 변화를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썩은 손톱 아래서 새 손톱이 조금씩 자라나서 서서히 썩은 손톱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방식이다.<sup>13)</sup> 역사적으로 노예제에서 봉건제가 탄생하는 과정이나 봉건제에서 자본제가 탄생하는 과정이 모두 그랬다. 현재의 경제 역시 언젠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 변화의 썩은 이미 현재의 경제 속에서도 자라나야 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다시 살피면, 바로 그러한 썩들이 이미 산재하고 있거나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사회적 과제는 바로 그러한 썩들을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촉진하는 일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형성 과정을, ‘경쟁력’ 중심적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삶의 질’ 중심적 구조혁신이라 부른다.<sup>14)</sup>

첫째, 땅의 경제, 자연의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농사의 중요성, 먹을거리의 중요성,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땅은 재산 증식의 수단인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토대이다. 이런 관점에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아야 하고 모든 생명의 토대로서 우리 모두의 공동 재산이라는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유기농 농민을 공무원 처럼 대우하여 생계 걱정이나 판매망 걱정 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젊은 청년들이 소신을 갖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각 나라마다 식량 자급을 기초로 하여 약간 부족한 부분은 이웃 나라 사이에 호혜의 관계망을 통해 우아롭게 해결하는 방식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일례로, 남미의 쿠바, 베네수엘라,

---

13)김진홍, 『새벽을 깨우리다』, 홍성사, 2006. 참조.

14)줄저, 『살림의 경제학』, 인물과사상, 2009. 또는 『팔꿈치 사회』, 갈라파고스, 2013. 참조.

볼리비아 사이에 맺어진 '민중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훌륭한 대안 모델이다. 특히 쿠바는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관계가 단절되면서 식량난에 처했으나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땅이란 땅에는 모두 채소, 과일, 곡식을 심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결과 20년이 지난 오늘날 식량자급률이 95%에 이르고 있다. 이 놀라운 사례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둘째,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이뤄내야 한다. 이것 또한 땅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 실업 문제에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9명(M)이 10시간(H)씩 일을 해야 하는 사회가 있다고 하자. 총 90M/H의 노동량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동일한 총량에서도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즉, 15명이 일하되 모두 6시간씩 일을 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6명분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좋고 각 사람들은 4시간씩 여유가 생겨 좋다. 그 정도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곧 발전이요 진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보수 세력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줄여 6명이 15시간씩 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실업을 유발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계속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세계화를 매개로 범지구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변화를 학자들은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극소수의 기득권층만 배를 불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람은 늘리되 시간을 줄이는 방향의 구조 혁신을 해야 비로소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늘어난 여가 속에서 손노동의 즐거움을 느끼며 다양한 협동노동이나 비임금노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분야, 즉 주거, 교육, 의료 문제를 사회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sup>15)</sup> 전자를 사회보장이라 해도 좋고 사회임금 또는 간접임금이라 해도 좋다. 이것은 후자의 기본소득과 함께 결합되면 사람들이 임금노동에 훨씬 덜 얽매이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특히, 이런 식으로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면, 아이들 교육이 지금처럼 극심한 경쟁 속에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삶의 비용 중에서 각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부분이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개성 있는 평등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즉, 고교나 대학, 심지어 직업까지도 지금과 같이 일류고교, 일류대학, 일류직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 개성을 존중받으며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사실이다. 존엄성이 진정으로 인정되는 사회라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갈-비의 법칙’<sup>16)</sup>을 작동시키는 자기 모순적 구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질서 속에서는 모두가 비인간화한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려면 ‘개성 있는 평등화’가 절실하다. 특히, 고교, 대학, 직업에 있어 만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대우를 비슷하게 한다면 우리는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을 갖고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치열한 생존경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각자 자신의 잠재력에 집중함으로써 나름의 실력을 맘껏 내뿜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더욱 풍성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구상을 추동할 주체의 문제이다. 선거를 통해 이런 구상에 동의하거나 비슷한 구상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도 있

---

15) 기본소득은, 괴츠 베르너, “시민권으로서의 소득”, 『녹색평론』 133호, 16-48쪽; 강남훈, 박노완, 김종철 좌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녹색평론』 131호, 3-51쪽 참조.

16) ‘갈-비의 법칙’이란 아래로 갈수록 위로 비벼야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 구조를 지칭한 말이다. 출처, 『팔꿈치 사회』, 갈라파고스, 2013 참조.

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경기, 강원, 전라의 혁신 교육감 사례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사회에 그러한 전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욱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실천하거나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너도 나도 적극 결합하여 힘을 더욱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텃밭도 좋고 생협도 좋으며 동화 모임도 좋고 교육 모임도 좋다. 마음을 열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다. 예컨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조차 단순히 제도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4천 개 이상의 지역발전 그룹, 15만 개 이상의 NGO/NPO 그룹, 30만 개 이상의 학습 동아리들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sup>17)</sup>

결국, 희망의 싹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온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뭉치기만 하면 새로운 지도자나 새로운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들이 모여 '현 손톱을 밀어낼 새 손톱'을 키워낼 것이다. 마침내 새 손톱이 현 손톱을 밀어내는 그날이 곧 문명의 전환을 이루고 노동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날, 즉 '살림의 노동'이 꽃 피우는 날일 것이다. 물론, 이 전환에는 결코 끝이 없다. 그것은 대를 이어 지속되는 꾸준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

17)진노 나오히코, 『인간회복의 경제학』, 북포스, 2007. 참조.



## 생명의 시선과 탈근대적 노동

### 근대문명과 노동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인간과 인류사회의 진화는 노동을 기초로 이루어져 왔다. 대륙을 이동하면서 수렵과 채취로 종을 이어가던 인류는 수렵과 채취의 한계, 도구 사용과 초기 노동에 따른 진화로 점차 정착 사회를 이루었다. 애초에 노동은 생존과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잉여의 발생으로 통치자와 제사장이 있는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일하지 않고 먹는 계급이 생겼다. 인류 역사에서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거나 직접노동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노동의 발생은 오늘날 우리가 염원해 마지않는(?) '욕망의 노동'의 원천이다<sup>1)</sup>. 현대 자본주의는 '생계를 위한 노동'과 '욕망을 위한 노동'이 변주를 이루는 사회이다. 일부 구성원들은 여전히 생존의 필요, 즉

---

\* 생명협동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고 있음.

1) 일을 적게 하고 결과물을 많이 얻기를 바라는 심리는 노동의 괴로움에 대한 반영이자 욕망의 원천이다. 일을 많이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면 그것은 열망이다. 그리하여 생계와 생존을 위한 필요노동(needs)과 욕망과 편리를 위한 노동(wants), 열망과 풍요를 위한 노동(aspirations)은 사람들 개개인의 내면심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체제에 구조화된 사회적 심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needs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욕망, 즉 wants를 위한 노동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근대문명은 무제한 성장의 패러다임 속에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약탈적 성장경제를 구축해 왔다. 사실 근대문명의 역사는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시작된 유럽세계의 비유럽세계 침략과 약탈에 기초한 것이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약탈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한 것이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물질문명과 성장경제를 누리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언제까지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도 허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주류의 인식과 정책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와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장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상품의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조건과 체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자본의 경우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있어 노동의 조건과 체계를 고민했다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의 사회성과 해방을 중심으로’ 노동의 조건과 체계를 고민했다. 당연히 노동자가 미래 세상의 주인공이고 이들이 주동이 된 혁명과 국가에 의한 사회 통제가 공산사회에 이르도록 해준다는 사고가 근대의 한 축을 지배했다.<sup>2)</sup>

하지만 사회주의의 거대한 실험은 자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높지도 않았고 인간 자율성을 증대시키지도 못한 채 실패로 끝나 대부분 국가자본주의로 회귀하였다.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에도 노동가치 이론에 근거한 노동운동과 노동 정치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달라진 점은 노동계급이 변혁의 주도세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이 아니라 점차 이익집단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도 더 이

---

2) 이러한 국가주의적 사고는 자본주의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속에서 권력(힘)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 강화되고 있다.

상 혁명이나 사회주의 또는 노동계급 독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 사민주의적 진보담론으로 전환했으며,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

최근 나타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서의 노동은 그 자체로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 진보적 노동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해당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노동복지 운동의 하나로 제한되고 있다. 몬드라곤이나 볼로냐, 퀘벡 지역의 사례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의 틀을 가지고 사적 소유에 근거한 자본과 경쟁하면서 ‘협동촌 운동’과 ‘협동조합의 확산’이라는 협동운동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근대문명의 위기를 넘어 ‘성장의 멈춤’이라는 탈근대의 측면, 즉 자연과 인간의 공생, 인간과 인간의 공생이라는 가치, 그리고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공동체성의 진화 측면에서 노동 문제에 접근한 모델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근대문명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노동의 성격’을 다루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근대문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성장 경제의 허상과 ‘진보’의 한계를 면밀히 보아야 한다. 근대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체철학과 근대문명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진화적 성숙과 인류문화의 공동체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인간 내면의 욕망과 절제, 인간의 신령스러움(영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의 노동이 더 이상 필요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욕망의 노동’이라는 점이다. 경제성장 신화에 기초한 노동은 생산된 물품이나 가치의 분배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증대시킬 뿐 노예노동을 벗어난 노동해방운동의 방향, 또는 ‘노동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토대 위에서는 모든 노동에 ‘진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터무니없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 나아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정 노동과 산업은 정당하지도 않다. 이를테면 군수산업이나 핵 관련 산업 같은 것은 그 자

체로 반평화적이고 반생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욕망의 노동에 있어서는 그 욕망에 따른 편리와 복리의 증진이 누군가의 노동에 근거한 것이거나 자연에 대한 약탈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둘 때 비로소 생명협동운동 및 지역 공동체운동에서 노동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협동운동은 대체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근대문명의 욕망과 편리를 전제한 가운데 노동이 갖는 사회·윤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공동체운동에서의 노동 문제는 자연과 관계 맺는 노동의 진화적 성격과 공동체적 성격의 규명, 이에 따른 노동 윤리의 규명과 제정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생명운동 관점에서 노동 문제를 짚어보고 생명협동운동과 지역 공동체운동에서 노동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근대문명의 성찰과 '성장의 한계'

근대문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최근에 신시아 브라운(Cynthia Stokes Brown)이 쓴 『빅 히스토리』와<sup>3)</sup> 김종철 선생의 “성장시대의 종언”<sup>4)</sup>이라는 글에서 많은 영감과 시사를 받았다. 이 두 자료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나온 지 40주년을 기념해 2012년 3월 스미소니언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그림1>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 이 그림은 호주 물리학자 그레이엄 토너가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 있던 시뮬레이션 예측 도표에 2000년 시점의 현실 데이터를 입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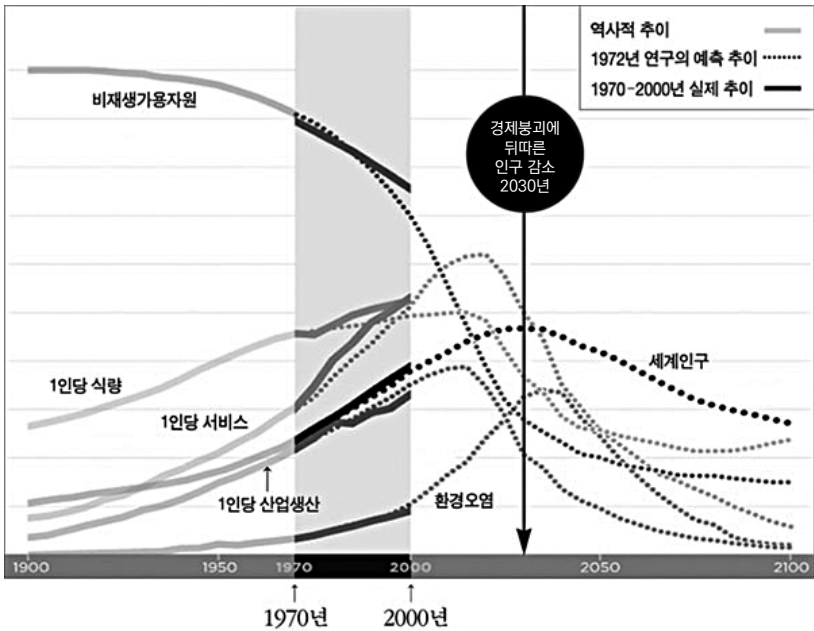
---

3) 신시아 브라운. 이근영 역. 2013. 『빅 히스토리』, 웅진지식하우스. 지금까지의 우주와 지구, 생명, 인류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신시아 브라운은 책의 말미에 1970년대 초 로마클럽 보고서 팀의 예측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현대문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4) 김종철. 2012. “성장시대의 종언”. 『녹색평론』 125호. 2-32쪽.

실제와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는가를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해당 도표는 모두 여섯 항목 - 세계 인구, 비재생 가용자원, 1인당 산업생산물, 1인당 서비스, 1인당 식량, 환경오염 - 에 대해 2100년까지 어떻게 증감할 것인지 예측한 것인데, 여기에서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실제 추이를 연결시켜 본 결과(진한 고딕선) 1972년의 예측(점선)과 놀랄 만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이 전하는 핵심이다.

〈그림1〉 로마클럽의 예측과 30년 후 현실 비교<sup>5)</sup>



〈그림1〉에 표현된 1970년에서 2000년까지의 예측과 실제 추이, 그리고

5) 김종철, 2012, "성장시대의 종언", 『녹색평론』 125호, 9쪽

2030년이라는 기준선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자연 파괴적인 성장경제 체제는 2030년을 전후로 붕괴할 것이다. 또한 2030년 이전에 1인당 식량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 산업 생산 등은 정점을 찍을 것이다.

둘째, 2030년을 기점으로 세계 인구 증가도 정점을 찍을 것이며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셋째, 환경오염 역시 2040년경을 고비로 점차 완화될 것이다.

넷째, 2100년이 되면 세계의 산업생산을 비롯한 모든 지표가 1900년 수준으로 퇴보할 것이다. 자원의 경우는 1900년의 1/4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며 지구에 어떤 파국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진단에는 단서가 붙어있다. 인구 증가 억제, 산업 성장의 제한,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제적 협력 등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라는 것이다.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인류가 적절한 실천 지점을 20년 정도 놓쳤다고 보았다. 만일 20년 전에 인류 전체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실천을 했다면 60억 정도의 인구로 지구가 안정을 이루었을 거라는 뜻이다. 이들은 또한 현재 지점에서 인류가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약 80억 수준의 인구가 현재 유럽의 저소득국가와 비슷한 생활수준에 만족한다는 가정 아래 파국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근대문명은 자본과 노동가치 중심 사회이다. 그 안에서 노동은 자본에 고용된 노예노동이며 모든 상품의 가치는 노동만이 창출한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주의는 가치 창출의 주체인 노동자가 단결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평등한 분배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 역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근대문명의 핵심 키워드다.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물질량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노동력과 노동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물론 자본주의 내적으로도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기계화나 자동화, 첨단화를 통해 고용노동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낮아진다. 이것은 역으로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근대문명이 사적 소유와 자본 축적을 통해 성장해왔고 ‘필요 노동’에서 ‘욕망의 노동’으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강요해 왔지만, 중국에는 가차 없이 노동을 버리거나 천시할 것임을 입증한다.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이 막혀 있을 때 노예적 고용노동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이 멈추어 가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계급 갈등, 인종, 민족, 국가 간 갈등 속에서 예측하기 힘든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클럽 보고서의 예측과 현실 진단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과 근대문명의 변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인 만큼 지금이 ‘비정상적인 시기’가 끝난 이후 인류의 삶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구성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 근대적 협동운동의 소유와 노동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당시는 사회 전체적으로 모순과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다. 노동 시간, 노동 조건, 평균 수명, 아동 근로, 주거 환경, 교육,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참혹했던 당시 현실은 생산력 증대와 사회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의 단면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복지사회, 또는 보다 합리적인 자본주의 등 다양한 대안적 논의와 실천이 나타

났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논쟁을 동반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의 문제를 ‘생산 수단  
의 소유권’이 지닌 사적 성격과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사이의 모순에서 비  
롯한 것으로 보았다. 로버트 오언, 윌리엄 킹, 윌리엄 톰프슨, 푸리에와 생  
시몽 같은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사상가들이 그러하고, 맑스나 엥겔스 등  
과 같은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산업자본주의 문제의 핵  
심을 노동 결과물의 전유와 분배의 불평등, 즉 ‘노동의 소외’로 보았다.<sup>6)</sup>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소유 형태에 있어 ‘사회적 소유’를 핵심으로 주창  
했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적 소유’거나 ‘집단 소유’였다. 국가권력에 의해  
모든 경제 행위가 중앙 통제되는 국가계획경제, 시장교환이 아닌 강제 배  
분 경제 속에서 모든 인민은 완전 고용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의  
동기는 없다. 이렇듯 노동의 사회화를 기계적 평등주의로 받아들인 결과,  
현장에서의 노동은 창의적이거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자율성의 신장과 성숙을 신뢰하지 않거나 억압하는 것으로, 근대 산  
업사회에 내재된 기계적 세계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경우 대체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사회  
주의자들과 비슷했지만 해결 방안은 달랐다. 대표적 협동조합 이론가인  
윌리엄 킹은 당시 산업자본주의 문제를 노동의 결과물이 노동자들에게  
모두 돌아가야 한다는 ‘전노동수익권’ 개념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자본’  
보다는 ‘누가 소유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보았던 그는, 노동자들이 협  
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기만 한다면 노동과 자본이 결합할 수 있고 노동  
자가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했다. 킹은 ‘산업자본주의적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협동조합 자본’과 노

---

6) 맑스와 엥겔스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노동계급이 단결과 투쟁을 통해 국가권력을 폭력적으로 장악하여 사회주의  
를 거쳐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1917년 러시아혁명을 통해 거대한 실험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실패했다.

동의 관계로 바꿈으로써 ‘전노동수익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노동자들이 소비조합을 만들고 이윤을 낸다면 ‘출자금과 이윤’이라는 두 가지 자본 축적의 원천을 갖게 되고 이를 이용해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드는, 즉 ‘협동조합 조합원이 노동 생산물 전체를 소유’하는 협동조합 공동체 건설을 주장하였다.

로버트 오언과 윌리엄 톰프슨은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구상하고 실천한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자본의 원천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sup>7)</sup> 공히 공동체 내에 농업과 제조업, 소비조합, 학교, 주택 등을 갖춘 이상촌을 구상하였다. 톰프슨은, 조합원이 농업과 제조업에 교대로 근무하며 자발적 노동을 통해 구성원 전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투자를 위한 잉여의 발생을 염두에 두었다.

이렇듯 초기 협동조합운동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넘어서기 위해 노동자가 자본을 소유하는 문제에 몰두했다. 이들은 자연파괴적인 성장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문제, 즉 근대 산업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포괄적인 탈자본주의화에까지 이르지지는 않았다. 이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공동 소유를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의 사회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몬드라곤은 초기 협동조합 사상가들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실현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몬드라곤은 1956년 설립 이래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성장을 함께해 왔다. 그 과정에서 1980년대 초반의 세계 불황기를 내부적 진통과 함께 겪었으며,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제조업 그룹의 매출 감소와 고용 감소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몬드라곤의 소비조합 에로스키의 경우 지속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

---

7) 오언은 공동체의 자본을 기업가나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출연 받아서 시작하려 한 반면, 톰프슨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출자해서 자금을 모으고 만약 모자랄 때는 외부에서 차입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구상을 했다.

어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해 해외 법인을 확대하고 있고, 해외 법인 노동자와 스페인 내 노동자의 대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성장추구적인 세계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중심성과 노동자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초기 협동운동가들이 가졌던 노동의 사회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몬드라곤 모델은 분명 수많은 상찬에도 불구하고 근대 패러다임 하에서의 제한된 모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몬드라곤을 포함한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이 탈근대 문명의 보편 노동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문명이 갖는 성장의 속성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기초한 자족의 추구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적 자립 지향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 노동에 대한 근대적 시선과 생명운동의 탈근대적 시선

초기 산업자본주의에서 현대자본주의로의 흐름 속에 노동의 성격은 많이 변화해 왔다. 근대문명의 극점에 이른 현실에서, 노동은 (소유권 의식의 변화와 생명의 존재 양식에 기초하여 볼 때) '사적 소유'와 '개인주의 노동 양식'으로부터 '공동체적 소유'와 '자율노동'에 입각한 '공동체적 자기고용 양식'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 문제는 자본에 고용된 노동의 문제이며, 총자본 대 총노동의 문제로 파악한다. 이는 자연과 관계 맺는 양식으로, 또는 생명존재와 공동체의 지속성에 필요한 자립 및 자급 방안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생명협동운동의 시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생명운동 역시 근대문명 안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와 약탈 구조에 문제의식을 갖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 근대적 자본과 노동체계 일반이 생명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명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은 그 자체로 개인의 소유나 국가의 소유가 아닐 뿐더러 그 지향도 자본주의 일반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 소유권 문제를 공동체적 소유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노동 착취를 최소화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자연에 대한 약탈적 착취를 통한 욕망의 추구하고 자기 파괴적 성장을 멈추지는 못했다. 또한 보편교육은 인간의 합리적 의식은 높였지만 편리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제어하지는 못했다.

이에 비추어 생명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비재생적 자원을 이용해 성장과 욕망을 추구하는 경제를 줄이는 대신, 재생적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를 통해 생명의 터전인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 상생하는 공동체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급에 기초한 자립경제를 지향하며, 노동 문제에 있어 외부의 기체에 의해 움직이는 노예노동이나 타율노동, 욕망의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율노동'에 기초한 자기고용(self-employment) 노동을 지향한다. 본래 자기고용은 자영업자들의 노동을 의미하지만, 공동체에서의 노동을 진화된 사회적 고용 형태로서 '공동체 자기고용(communal self-employment)'<sup>8)</sup> 개념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필자는 탈근대적 노

---

8) "기업이나 회사가 아닌 공동체가 스스로 고용한 노동을 공동체 자기고용이라 말한다. 자영업, 노점상, 의사, 약사, 변호사 같은 개인고용 형태의 자기노동 외에 개인적 자기고용과 협동조합, 노동자기업, 지역 노동공동체 등이 있다. 협업과 분업이 분리된 역사를 극복하고 결합할 수 있는 고리는 공동체 자기고용이다.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노동을 조직하는 형태에서 다수가 창의적으로 노동을 조직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자본에게 봉사하는 국가 부문이 아닌 노동조직 형태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하는 노동자의 손을 떠나 자본가의 배분·유통 과정을 적게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의 이윤은 줄고, 생산 노동자의 수익은 늘며 소비노동자의 지출은 줄어든다. 인구가 노동을 조직하여 경제를 운영한 경험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 공동체 자기고용은 자영업의 개별성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기업의 노동 소외를 극복한다. 정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갖는 관료성이나 대중보다 자본에게 봉사하는 경향을 경계한다. 또 역사적 사회주의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시장경제와 공존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경제 형태다. 정부와 기업이 늘어나는 실업자 대책을 대중적으로 세우려는 데에 의존하여 사회적 기업이 출발하는 점을 경계하고, 이와 다른 차별을 확보하려는 노동조직이다. 이것은 공동체 사회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다. 공동체 자기고용은 우선 사회에 유기, 순환, 통합 효과를 발휘한다. 노동자가 소득, 교육, 건강, 생태환경, 안전, 문화, 평화 등의 필요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순환하며 교환하므로 상호 충족시켜 삶의 장기 전망을 세울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노동자가 공동의 자기 재산을 형성하면서 통합 효과를 안정적으로 발휘한다. 정성을 다해 창의적으로 노동해서 질 높은 노동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노동 시간을 줄여 여가를 만들어내 노동력을 보호하고 재창출할 수 있다. 다수의 삶을 보장하는 데로 한 발

동운동의 방향으로 '자율노동'과 '공동체 자기고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노동이란 인간의 존재적 각성에 의한 자발성과 열망에 기초한 노동이다. 이는 우주적 존재로서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 그리고 공동체 및 이웃(사회)을 위한 효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두 가지는 현상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노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의 내적 성숙을 위한 수행 과정과 연동되며 또한 공동체의 성숙 및 사회화와의 연동된다. 그것은 외부의 규율이나 지시, 대가보다도 내면의 깨우침과 성숙,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동이다. 다른 구성원에게 떠맡기는 노동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한몸임을 각성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노동이다. 노동의 결과물 역시 존재 가치에 따른 기본 배분을 원칙으로 형평성과 민주성, 공동체성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물론 효용 가치에 따른 노동을 '성과'에 따라 배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여야 하며 공동체 성숙 과정의 하나로써만 기능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공동체 자기고용'이란 공동체의 지향과 삶에 동의하고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공동체 구성원이 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며 그것은 온전히 자율노동에 기초한다.

협동조합은 결사체로서의 성격과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에 노동 역시 결사체로서의 노동과 사업체로서의 노동이 존재한다. 전자가 존재 가치로서 사회적 지향에 대한 노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효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예를 들어 한살림의 경우 실무자(직원)와 활동가가 존재하는데 둘 다 '한살림의 지향과 삶'이라는 생명 가치에 근거하지만 실무자의 경우 훨씬 사업체적 성격의 노동에 가까이 가 있는 반면 활동가는 결사체로서의 자율노동에 가깝다. 한살림의 활동가들은

---

딱 더 접근하는 길이다. 노동해방을 향하는 노동 과정, 노동조직의 표현이며 미래의 유력한 노동조직 형태이다." (김영근, '한국의 공동체 자기고용', 선인, 2009.)

내적 성숙을 통해 한살림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는 삶의 지도자로서 길을 모색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부에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활동가들은 한살림 활동을 통해 조합원 전체가 성숙하고 삶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모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실무자의 영역과 겹치는 활동가의 노동 영역은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실무자는 자신의 노동 중심이 효용 가치의 노동에 주어지지만 '공동체 자기고용'의 정신에 따른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각성과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공동체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공동체의 자율노동과 자기고용은 존재 가치의 노동과 효용 가치의 노동으로 구분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외형상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양자는 통합적으로 공동체 내의 노동으로 존재하며 공동체의 존재성과 효용성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노동을 통해 공동체의 사회화를 실현한다. 양자의 노동은 둘 다 모두 존재 가치로서의 존엄성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내재적 성숙과 외재적 효용 생산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 모든 가치를 생산한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일이다. 생명사상의 근본은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과 신령스러움에 있으며 그에 따라 사람 또한 자연의 한 부분일 뿐임을 늘 강조한다. 그것은 노동이 모든 가치를 생산하고 규정한다는 근대적 시선을 벗어나는 것이며 우주 만물에 의지해 진화하는 존재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다.

## 생명 가치 중심의 노동과 자기고용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노동, 행복한 노동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은 채 자본과 국가에 고용되기 위해 공부하고 기술을 익혀 왔

다. 더러는 부모의 도움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士, 師)’ 자 돌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자본에 고용되지 않은 채 사는 사람도 있다. 이는 모두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향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의 문명은 지속가능한가? 내 삶은 지속가능한 삶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노동하는가? 내 삶의 행복을 위한 노동은 무엇인가? 나의 노동은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노동인가? 노동은 반드시 대가를 전제로 하는가? 나의 노동이 나를 존재적 성숙과 깨달음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생명협동의 가치에 기반한 조합은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며 자연과 이웃의 조화로운 생산을 함께 나누고 잉여가 생기면 공동체운동의 목적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다. 생명협동운동은 생명의 본질적 속성인 상호 의존적 존재들 사이 공생의 원리에 기초해 있으며, 공동체적 생산과 노동, 소유, 호혜적 거래의 끊임없는 확장이자 이를 통해 자기 존재와 사회를 성숙시키는 진화운동이다. 이는 곧 생산 방식에서부터 운송과 배송,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생명 가치에 입각해 물품과 노동을 바라보고 생명 가치의 확장과 생명공동체운동의 지속가능성에 맞추어 적절한 배분을 합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생명협동운동의 이러한 속성은 모든 과정에서 생명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생명운동의 확장적 가치들을 중심에 놓고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그러한 기초 위에서 성숙을 지향하는 진화적 관점으로 노동과 분배를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분배’는 단순히 소비자 조합원이 지불하는 화폐 가치의 분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물품이건 가치는 가격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물질은 우주적 역사성과 현존의 가치를 가질 뿐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 즉 각각의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자연과 인간의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분배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삶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대한 배려와 형평에 따른 고려가 있을 뿐이

다. 즉, 생활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나눈다고 할 때, 각각의 노동은 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존재 그 자체로서의 가치(존재 가치)에 더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역할에 따른 노동 비중(효용 가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쉽사리 헤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논의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든, 실무자나 활동가, 소비자 조합원이든 생명협동운동의 가치에 대한 형식적 동의를 넘어 삶의 가치로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향에 대한 합의와 내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전제 위에서 실무자나 활동가는 자본에 고용된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와 노동이 일치하는 '자기고용'의 자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전제 위에서만이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을 매개하는 의미 있는 노동 및 활동의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과 사회적 구심력 때문에 실무자와 활동가들이 자신의 노동을 생각하는 관점과 생명협동운동이 제시하는 노동의 방향이 늘상 일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이러한 근대체제와 사회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노동의 힘은 생명협동운동을 확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생명협동운동의 경제활동과 노동이 인간의 진화와 성숙에 기여하는 조건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가치관이 자신이 일하고 활동하는 공동체의 지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생명협동운동이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려 든다면 자연히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고 실무자나 활동가들에게 존재적 각성에 의한 노동보다는 효용 가치에 입각한 노동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일 협동기업의 시장 독점을 지향하는 근대적 협동운동과 다를 바 없으며,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적 자율노동에 대해 회의하게 될 것이고 근대 노동체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협동운동은 생명 가치에 기

반한 다양한 협동운동으로의 확장과 연대에 기초해 탐욕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시장을 호혜적 노동선택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과 함께, 공동체 내의 모든 노동이 '자율노동에 입각한 자기고용'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노동’ 개념의 변화를 모색하며

우리는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근대 문명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파국의 위기를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이라는 틀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며 인간과 사회의 성숙과 진화를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자의 역할 - 생산자로서, 실무자와 활동가, 소비자 회원으로서 -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동의 가치를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명사상은 근대문명 자체에 문제를 제기<sup>9)</sup>하지만, 한편으로 근대성의 유제들 중 인간과 사회의 진화에 부응하는 진보적 요소들을 안고 넘어가기 때문에 근대문명과 직선적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문명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포월<sup>抱越</sup>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근대적 시선을 포괄하되 이것을 넘어선 자율과 자립, 자치에 기반한 생명 가치와 공동체적 시선이다. 그것은 이론과 실제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뿐 아니라 성찰과 수행을 동반하는 과정이다.

---

9) 이는 단순히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이원론적 주체철학, 이윤과 맹목적 과학발전예 기대고 있는 과학문명, 이성에 기초한 가치체계(자유 평등 우애), 사적 소유와 임노동으로 구성되고 자연에 대해 악탈적인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 1인1표에 기초한 국가권력의 형성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근대국가와 민주주의 체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덧칠되어 쇠미해진 인간의 우주적 존재성(영성)과 공동체의 붕괴 등 근대문명과 체제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과 의식의 전환에 근거해 있다. 그렇기에 탈근대적 성격을 갖는 생명운동의 시선은 물질적 성장에 기초한 사회 진보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성숙과 진화, 사회의 공진화(共進化)에 초점을 맞춘다.

누구든 노동 그 자체로부터 소외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노동해방은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율적인 존재로서 삶의 일부인 노동을 즐기고 결과를 나눌 수 있는 상황과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진정한 노동해방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으로 존재적 성숙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는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자족하고 즐기는 노동을 하는 데 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노동의 결과를 빼앗기는 노동도 아니지만, 그 결과물을 혼자만의 풍요를 위해 소유하거나 누리는 노동도 아니다. 자연을 착취하는 노동이 아니라 자연과 상생하는 노동이며, 외재적 지시나 강제에 의한 노동이 아니라 내적 성숙에서 우리나라는 자율노동이다. 또한 결과물을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노동해방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개념에서 '노동'은 자본에 고용된 노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기 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노동이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족 혹은 존재 가치 실현을 위한 일이나 작업, 확대해서 공동체의 존재 가치 실현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효용을 위한 노동과는 개념상 많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동(labor)'이나 '노동자(laborer)'라는 개념과 우리가 지향하는 '일과 활동', '일하는 사람과 활동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생명공동체운동이나 한살림운동에서의 노동은 '살림의 노동'이자 자기고용, 자율노동으로써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에 근대문명의 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언어를 만들어내지만 때로는 언어가 존재의 삶과 의식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삶과 노동

## 어느 20대 청년의 호소

지난 10월, 20대에서 50대까지 세대별로 한 명씩의 여성들이 ‘을들의 당나귀 귀’라는 여성노동문화제 토크쇼 무대에 함께 올랐다. 살기 위해 누구나 일을 하지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서였다. 그 중 ‘장미칼’이란 별칭을 썼던 20대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할까 한다.

장미칼은 전문대졸 여성으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그녀 스스로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다. 영어학원 강사로 시작해 빵집, 사무직, 모텔하우스... 뻘뻘하게 빈 칸을 채워갔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노동 이력은 의미 있는 경력이 되지 못했다. 그녀 역시 ‘회사가 싫다’고 말한다. 그녀가 경험한 회사는 그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잘 해 주긴 했지만 반면 나이 든 여성을 무시하고 외모나 나이에 대해 지적

---

\*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하며 성희롱 하는 등 매우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참아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짧은 노동 시간과 적절한 임금’을 꿈꾸지만, 현실은 사람을 부품으로 생각해 짧은 계약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관행으로 통하는 사회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인 30대, 병원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는 40대 여성의 노동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날 토크쇼에 참여한 이야기꾼들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 ‘노동’이 고통이라며 출구가 어디인지 물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내 삶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만 그런 일자리는 많지 않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데, 서비스 노동은 인격적 무시와 저임금, 불안한 고용계약으로 여성노동자를 더욱 피해하게 만든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회적 부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지만 그것은 1% 소수 기득권 세력에게만 해당될 뿐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는 월 100만 원 남짓,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강제 노역과 같은 노동을 하고 있다. 내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노동, 그러나 피하고 싶은 고통스런 노동,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노동의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2013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살펴보면서 ‘고통스런 노동의 출구’는 무엇인지 모색해보기로 한다.

## 젠더 관점에서 본 2013년 여성의 삶과 노동

### 가부장제와 여성노동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성립된 근대 시민사회는 낭만적인 이성애와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삼았다. 우리가 흔히 이상적인 가족 모델로 떠올리는 것 역시 성공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똑똑한 아들과 딸로 구성된 ‘스위트 홈’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 어느 가정도 동일할 수

없는데 정상 가정 이데올로기는 수많은 가정을 비정상적으로 낙인찍고 가정폭력,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가족의 주인은 아버지이고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정상 가족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내나 자녀에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폭력과 처벌을 허용해도 된다는 가부장적 사고가 당연시 되어온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왜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진행되었을까? 자본주의 하에서는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봉건적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가정 내 재생산 노동을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무보수 노동으로 남겨둠으로써 여성은 자유로운 노동자가 될 수 없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양육과 돌봄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자본은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지 생산노동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노동을 담당하는 남성 중심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강화시켜왔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쉽 없이 일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다. 여성은 남성의 생계노동에 의지해 가족을 건사할 수밖에 없어 노동시장에서 2등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다. 여성이 하는 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숙련이 필요하지 않는 노동으로 간주되어 저임금 노동, 싼값에 팔리는 노동이 되었다.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은 가족 내에서는 물론이고 노동시장에서도 남성의 보조자로, 보조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부장제를 벗어나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았다.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여성 참정권 운동과 평등권 운동이 가열하게 진행돼 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정을 책임지는 성 역할 분담이 자연스런 질서라는 성 역할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런 성 역할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한 질서이

다. 이는 도리어 남성과 여성을 한 인간이기 이전에 성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강제함으로써 남녀의 평등한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가부장제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모성을 이상화하며 가족을 위한 희생은 숭상하지만 여성 개인의 욕망은 처벌하거나 비난한다. 가족을 넘어서는 여성의 욕망은 불온한 것으로 간주해온 것이다. 이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해 약간이라도 소홀한 것으로 비춰질 때 쏟아지는 비난, 그리고 지금도 ‘시월드’로 지속되는 강한 가부장성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지만 우리 사회에서 유교적 가부장성은 여전히 기업과 사회 조직 원리로 관철되고 있다. 가족, 기업, 사회 모든 곳에서 권위주의가 팽배하다.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났다 생각하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꿈쩍 못하는 태도는 순응적이다 못해 비굴한 사회의 단면이다. 이것은 강한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서 이미 그렇게 길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강한 가부장성은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여성의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담당하는 가족 돌봄노동과 양육노동이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이라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이유다.

## 투명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의 시기가 끝나고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고도성장 시기에 당연했던 낙수효과(trickle down)는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수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내수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하며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전원 정규직화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 준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규직 취업을 위해 일곱 군데나 서류를 넣었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한 면접 참여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일일조사원, 청년 인턴, 위촉연구원 자리를 전전하며 일한다. 서울에서 독립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와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월 급여는 120~140만 원밖에 안 되어 두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이라 할지라도 비정규직인 탓에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고 모든 원내 행사에서 배제되며 공식 아이디어도 부여받지 못해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 어떤 소속감도 느낄 수 없고 연구보조 역할이란 이유로 의미 있는 경력이 되지도 못한다.

“위촉연구원이나 일일조사원은 정말 소속감 없죠, 저의 느낌으로는 투명인간.”

이 면접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면, 직장 내 위계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투명인간 대접을 받게 되는지 생생하게 말한다.

“이거는 근본적인 고용조건의 문제량은 다른 건데 사람의 뇌를 그런 방식으로 조직하는 거 같아요. 사회 압축판의 피라미드잖아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하거나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

일로 일 시키면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깐 위촉일 때는 정말 투명인간이러니  
간요.”

이렇게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은 이 면접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과 삶을 구술하는 데 핵심 내용으  
로 구성된다.

“그때 처음 느꼈던 느낌은 벽체 같은 느낌? 그림같이 그냥 와 갖고 앉아만 있  
고 (뭔가 실제 권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없고, 누구 하나 말 시켜주는 사람  
이 거의 없고.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도 심층면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여  
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직 기간은 3.6년으로 평균 연령 만 41.3세인데  
평균 임금은 136.2만 원에 불과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4%가 전환 제외자로 분류되었고,  
청소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애초에 정규직 대상자에서조차 제외됐  
다. 이렇듯 지난 대선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  
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시늉 내기에 그치고 있다. 이 순  
간에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존재가 거부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느  
끼며 일하고 있다.

###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올해 또 하나의 사업으로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일과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근로기준

법 적용 예외자로 분류되어 아직까지 산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는 비공식 노동자다. 2011년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가정으로 파견되어 일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 여성노동자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들의 건강과 노동 실패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알려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면접조사에서 확인된 바 가사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기며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판매서비스직과 비슷한 정도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우울증도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할 수밖에 없고,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잘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의 노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함으로써 오는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사회적으로 무시되는 노동이라는 편견도 이들의 우울증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지만 가사노동자들은 정해진 휴식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점심식사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이며 편의점이나 차 안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해결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이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노동자들처럼 아프면 쉴 수 있고, 실직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하면서 10~20분 쉴 수 있는 짧은 휴식시간을 원하는 것이다.

“저희는 고 4시간 동안 중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이렇게 간식이라도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고런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식을, 10분, 20분 고 정도, 고객 분들은 안 좋아하시겠죠.”

## 시간제 일자리 - 약인가, 독인가?

이렇게 여성들은 비정규직과 비공식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고, 법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런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부문에서 네 시간만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를 16,500개 만들고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하는 기업주에게 국민 세금으로 4대보험과 인건비를 지원해 총 93만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곧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가사와 양육 때문에 일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문제가 너무 많다. 첫째, 현재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3명 중 1명꼴인 1,757만 명이다. 그중 여성은 1,285만 명으로 73%를 차지한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6.3%, 국민연금 가입률은 13.9%로 4대보험 적용률이 10% 대에 그칠 만큼 열악한 일자리다.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단 5%밖에 되지 않고 95%가 이렇게 나쁜 일자리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의 나쁜 시간제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세금 지원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전면으로 내세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일단 시간제 채용이 대세를 이루어 정규직으로 채용할 자리도 시간제 채용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전일제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간제로 뽑으면 그에 대한 부담도 없다. 성희롱이나 인권 침해가 이루어져도 하루 서너 시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회사에 소속감이 있어서 꼭 그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싸우려 할까? 아마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는 당연히 퇴사하고 이후에 시간제로 다시 들어오라고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인력 운용에 있어 부담을 훨씬 덜고, 연차휴가도 잘 사용하지 못할 테니 인건비도 절약될 것이다.

정부는 교사도 공무원도 시간제로 채용하고 겸직과 영리 행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오전에는 교사로 오후에는 유명 입시학원 강사로 일할 수도 있을 터이다. 이렇듯 기존의 나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개선은 외면하면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목매는 것은 고용률과 양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정책이고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큰 위험한 정책이다.

둘째로 왜 '일-가정' 양립을 여성에게만 이야기하느냐는 것이다. 남성들도 아빠로서, 한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누리길 원한다. 권위적인 가정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 민주적 가정과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 아니 '일-생활' 균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내세우는 가부장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남성들의 임금 또한 오르지 않자 그 부족분을 여성 시간제 일자리로 채워 여성의 이중노동을 강화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것이 아니다. 앞서 한 20대 여성노동자의 꿈이라 했던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짧은 노동과 적정한 임금'은 실은 우리 모두의 꿈이기 때문이다. 이 꿈이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제 일자리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형'이어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 '선택'이라는 말이 앞에 붙을 수 있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차별이다. 지금도 여성 비중이 월등히 높으니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4대보험 적용, 인권 보호 등 적어도 일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시간제 일자리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것이며 고통스런 노동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노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꿈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던 이야기꾼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자신의 노동이, 자신의 삶이 왜 나아지지 않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깨달은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려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지만, 개인적으로 노력해서는 더 나아질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욕망을 바꾸는 것에 있다. 더 많이 일하고 좀 더 벌기 위해 생존경쟁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사회 구조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서로의 삶과 노동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려는 욕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언젠가 늦은 시간에 지부 회원 교육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다. 눈도 오고 바람도 불어 날씨가 무척 사나웠는데도 제각각 공장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원에서 일하다 온 회원들의 눈빛이 그야말로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오랜 경제위기가 평범한 여성노동자들을 철학자로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올해 6월에 출범시킨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돌봄협동조합협의회는 말 그대로 돌봄협동조합 간의 협의회이다. 이미 일곱 개의 협동조합이 창립해 활동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여성노동자회를 통해 일하는 돌봄노동자가 1천1백 명에 이른다. 이들은 노인 간병인, 노인 요양보호사, 산모 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사노동자 등 말 그대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임금은 너무 낮고 일은 힘들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힘을 합해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창립된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어 누군가의 돌봄

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것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제 돌봄노동자들은 용기를 내 '협동조합'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노동,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우리를 둘러싼 자본과 권력의 탄압이 악랄해도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협동조합으로, 여성노동자회 회원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의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며 응원해 주리라 믿는다.●



## 협동조합에서의 노동

### -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들어가며

협동조합은 사회 집단이 자연재해 혹은 어떠한 공통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 방법의 하나로 등장했다. 그 시작은 산업사회 초기에 발생했던 산업재해와 실업, 아동 노동 등의 문제, 고리대금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곤궁한 삶과 관계가 있으며, 밀가루와 같은 생필품을 적정한 가격에 적절한 품질로 구매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직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19세기 협동조합은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비, 신용, 농업, 노동 전반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후 서비스나 주택 부문의 협동조합이 뒤이어 출현했다.

협동촌 운동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초석을 다진 로버트 오언은 뉴러너크 지역의 네 개 공장을 인수하고 혁신적 실험을 전개해 노동자 복지뿐 아니라 평생 학습이나 노동관리 시스템과 같이 노동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이후 비록 실패로 끝

---

\* 한살림서울 상무이사

났으나 생산과 소비가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협동촌의 실험을 통해 전 삶의 영역을 협동의 원리로 조직하려 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경우도 소비를 조직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제분조합과 같이 생산을 조직하고 주택조합을 만들고 금주호텔을 운영하는 등 협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전체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협동조합 출발 목적의 한 측면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노동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었다. 협동조합 전통 속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노동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노동자들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이 그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노동자가 함께 자본을 모으고 노동력을 제공해 사업체를 공동 경영하며 그 생산물을 판매해 얻은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협동조합이다. 즉,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구분 없이 노동자 자신이 소유, 경영, 관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를 들 수 있다. 노동자 인수기업 혹은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sup>1)</sup> 같은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전통 속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노동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사가 가라타니 고진의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자. “노동조합은 자본이 노동자를 결합시켜 일하게 함으로써 얻는 잉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다. 협동조합은 노동자 자신이 노동을 연합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원래 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노동조합은 자본제 경제 내부에서 자본과 투쟁하는

---

1)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없는 일본에서 발생한 노동자협동조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자협동조합과 비교할 때 주체가 주로 생협 조합원인 여성이라는 점, 노동 형태는 주로 돌봄노동 혹은 생협의 위탁사업 등이라는 특징이 있다.

것이고, 협동조합은 자본제 바깥으로 나가려는 운동이다.”<sup>2)</sup> 고진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에서 노동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배분받기 위한 행위이기보다는 대안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협동조합 태동기부터 존재해 왔던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현대사회의 노동의 현실과 변화의 모습들, 그리고 협동조합 안에서의 구체적인 노동 이슈들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 노동의 변화와 전망

### 현대사회의 노동 : 임노동의 출현

자본주의는 생활과 부분적 교환의 영역이 아닌 데서 출발해 생활과 부분적 교환 영역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성장시킨다.<sup>3)</sup>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이다. 생활에 기초한 화폐-교환 시스템은 농경사회가 발전하면서 확산된 오래된 시스템인 반면 신용은 생활에서 벗어난 영역, 가령 원거리 교역 시 금융 네트워크를 통한 약속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결국 신용은 약속에 의한 기호인 셈인데, 일단 등장한 신용은 교환을 촉진하고 대규모 생산시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는 힘을 갖게 된다.<sup>4)</sup>

자본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노동은 이처럼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형

---

2) 가라타니 고진. 『세계사의 구조』, 도서출판b, 2012. 349-350쪽.

3)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갈라파고스, 2012.

4)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한 것이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된 금융자본주의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미래의 자본 이윤율을 기초로 평가하고 재배치한다. 나아가 가치관이 전도되고 생활이 자본 가치 증식에 복속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태인 임노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비’가 자기실현의 방편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노동은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보다는) 소비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반면 자본주의 이전의 노동은 생활에 기초한 부분적 교환 노동이었다. 즉,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돈이 될 만한 것을 내다 팔고, 교환으로 생긴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면 되는 것이었다. 생활에 기초하되 부분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 근대 이전의 경제체계의 요체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노동은 인신적 지배에 기초한 노동, 즉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노동이 아니라 집단을 위한 노동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한편, 농업혁명 이전 시기인 수렵·채집기에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움직임(활동)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정주성과 함께 잉여를 축적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과 민족국가를 출현시켰다. 농업혁명 이후의 삶은 생존 노동을 기반으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경제의 형태로 유지하게 된다.<sup>5)</sup>

〈표1〉 노동의 형태

시기 구분	노동의 형태	특징
수렵·채집기	생활 = 노동 (activity)	생존 활동만 존재
농업 혁명 이후	부분적으로 외화된 노동(work)	교환의 등장, 화폐 출현
자본주의 사회	임노동의 등장 (labour)	임금노동을 통해 화폐를 얻고,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를 사는 시기로 변화. 신용이 등장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일반적 형태라 여겨지는 임노동이 보편화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100~20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자본주의가

5) 유키오카 요시하루 외. 『워커즈란 무엇인가?』, 그린코프 공동체 출판사업부.

만들어 낸 산물이다. 또한, 자본이 노동뿐 아니라 전체 자원을 재배치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최대 이윤을 보장하는 장소에서 고용을 실현한다.

현대 산업사회는 생산 방식이 고도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세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인간 노동의 중요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의 노동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제품 기획, 연구 개발 분야와 같이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거나 자기 이윤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세계의 노동시장으로 이동해 버린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각지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애플의 스마트폰은 중국 노동자들이 생산하며, 밀가루의 국내 생산이 현저히 줄어든 대신 대부분 미국의 기계화된 대농장에서 농업용 기계와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기계화, 자동화에 의해 노동 영역이 축소되고 노동이 세계 시장에서 선택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각 지역사회는 높은 실업률이 일상화되고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를 양산하거나 양극화가 가중되는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자본주의 발달은 노동을 이전 사회에서의 인신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었지만, 그 이면에 있어 임금에 기초한 노동, 자본에 고용된 노동은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임노동을 넘어서 : 새로운 노동의 가능성

그렇다면 그와는 다른 대안적 노동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앞서 기술했듯 협동조합 또한 이러한 노동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출발했다. 생산 수단인 사업체를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고 조합원의 운영 참여를 통해 자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방식으로 노동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협동조합 발흥기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어소시에이션에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 칼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실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국가에 의한 계획·통제와 노동 동원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인간 자율에 의한 노동 참여 구조는 온데간데없어지고 국가 관료에 의한 통제된 노동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초창기에는 생산력이 향상되는 듯했으나, 인간 자율성 상실은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현실사회주의 경제는 붕괴되고 만다. 사회주의 하에서 협동조합은 어떠했을까? 그 역시 국가 체제 안에 포섭되어 버렸다.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ICA대회에서는 두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레이드로의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었다. 반면 구소련 학자가 발표한 또 하나의 보고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외에도 임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과 그러한 노동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생계 노동 외에도 가능한 노동의 영역이 구축되었고 시민의식이 진화함으로써 노동자를 넘어선 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자산 가치의 증식이라는 틀에 고용된 노동이 아니라, 특정 노동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동의하고 결합하는 형식을 갖는다. 가령 NGO 활동가 혹은 시민운동가, 최근에 마을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또한 워커즈 콜렉티브나 사회적 기업에서의 노동 등을 그러한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전통적인 제조, 농업, 서비스 외에 '제 3부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제 3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노동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제 3부분의 영역으로는 국가와 시장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부분, 즉 고령자, 장애인, 소외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이나 자원 재생, 환경보호, 식량구호, 지역사회 활동 등을 들고 있다.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용이한 시장경제와는 달리 제 3부분은 기계로 대체되기 힘든 인간관계, 친밀감과 동료의식, 봉사 정신에 입각해 있으며, 노동자들이 공식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 가치가 무력하

게 된 후 생활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될 대안적 노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sup>6)</sup> 비슷한 논의로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노동의 형태로 ‘시민노동’ 개념을 제안했다. 기업가적인 요소가 공공복리를 위한 노동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노동’의 핵심 발상이다.

## 두 가지 쟁점 : ‘소유’와 ‘참여’

노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사업체의) ‘소유’ 형태와 ‘노동 참여’ 형태가 그것이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소유 형태는 주식회사 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주주와 투자자본이 갖고 있다. 사업체의 소유 형태가 무엇을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권한과 직결되므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와 투자자본이 결정권을 행사하며 기본적으로 판단의 근거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 즉,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목표로 일하는 대립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있는 것과 대비된다. 가령, 노동자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 노동자들이고, 소비자협동조합의 주인 역시 구매하는 조합원들이다.

소유 형태가 사업체의 방향과 생산물의 내용을 결정한다면, 노동 참여의 형태는 자기 노동에 대한 일상적인 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결정권, 위임, 협력 등과 같은 영역이다.<sup>7)</sup> 노동의 참여 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결국 노동의 자기결정권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시작된 노동

---

6) 제레미 리프킨, 2005. 『노동의 종말』, 민음사, 397쪽

7) 노동의 참여 문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만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리기업 중에서도 팀이나 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사권의 일부를 포함해 과감하게 팀 단위로 업무를 위임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개별 팀에 생산물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팀 단위로 성과를 측정해 팀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팀제를 강화하거나 상당한 권한을 갖는 사내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회사 내 노동의 자기결정권 범위를 확대해 주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조직 형태로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워커즈 콜렉티브’ 사례를 살펴보자. 워커즈 콜렉티브는 주로 복지나 생협 매장 운영과 같은 위탁사업을 담당한다. 이는 워커즈의 사업이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조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유 문제보다는 운영 참여와 노동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역시 노동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이지만, 또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원칙에서도 나타나는 바, 노동의 참여가 극대화된 조직이다. 개별 기업의 소유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개인들이 협동조합 복합체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즉 몬드라곤은 노동자들의 민주적 의결권, 자본에 대한 노동의 주권, 경영 참여, 보수의 연대성을 가진 노동 참여형 기업이라 할 수 있다.<sup>8)</sup> 몬드라곤의 경영자들은 팀제와 같은 새로운 노동 방식이 시도될 때 해당 사례를 학습하고 조직에 적용해 왔으며, 제도적으로도 노동자 평의회 같은 기구를 두어 노동자의 직접적인 운영 참여 구조를 마련해 두었다. 몬드라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속에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에 있다. 몬드라곤은 2차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사회보장협동조합, 재고용 훈련 구조와 같은 지원협동조합을 갖추고 있다. 몬드라곤 내의 1차 협동조합은 파산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 조합원들은 2차 협동조합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재고용 훈련을 거쳐 다시 취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서 주로 예로 들었던 노동자협동조합에서의 소유는 ‘일(노동)’로 참여하

---

8)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열린 조합원 제도 ②민주적인 조직 ③노동자 주권(노동의 우월성) ④자본의 도구적이고 부수적인 성질 ⑤참여형 경영 ⑥보수의 연대성 ⑦상호협동 ⑧사회변혁 ⑨보편성 ⑩교육 / ICA가 1995년 제정한 일반 협동조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 ②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과 독립 ⑤교육, 연수 및 정보제공의 촉진 ⑥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는 조합원에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하는 사람과 출자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형태이다. 반면 소비자협동조합은 이와 조금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이 출자자로 소유권을 가지며 이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경영과 같은 일상 운영의 문제로 오면 노동자협동조합과는 다른 지점이 생겨나게 된다. 즉,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소유와 노동이 일치한다면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소유와 노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방향은 일치하지만, 소비자협동조합은 다수의 이용조합원이 소유하고 고용으로 출발한 직원들이 일상적 노동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노동’으로 일상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경우 어떻게 운영에 참여하면 좋을까? ‘노동자 주권과 참여’를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소비자협동조합인 에로스키는 일하는 조합원인 노동자와 소비하는 조합원이 이사회를 5:5로 구성하는 구조로써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일본 그린코프는 최근 노동자협동조합에 매장, 공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sup>9)</sup> 즉,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구매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결정권과 노동자들의 운영 참여를 동시에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 협동조합의 활동과 노동

### 결사체와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펼치는 곳이 아니다. 보다 정확히는 협동체의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과 활동을 펼친

---

9) 최근 워커즈 콜렉티브에 청년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그린코프에서는 지역사회의 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노동자협동조합을 확장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 '협동조합다운 사업'과 '협동조합다운 활동'이 존재하며, 결사체 속에 사업체가, 사업체 속에 결사체가 있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은 결사체의 필요와 열정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구현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의 감각으로 표현한다면 결사체는 조합원 활동의 영역이고 사업체는 물품 사업의 영역과 일상적 업무를 지칭한다.

모든 협동조합은 결사체와 사업체의 미분화 상태로 출발한다. 운동 의지가 있는 활동가들이 활동과 사업을 펼쳐내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태로 일을 시작한다. 초창기 미분화 시기에는 활동가이면서 동시에 실무자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시기가 있다. 이후 조합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조합원이 자기 결정을 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즉 조합원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되어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이때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 있는 집행을 위해 상임이사 제도를 둔다. 대체로 초창기에는 창립기를 함께했던 활동가이면서 실무자 가운데 그 역할을 맡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일상 운영과 경영 측면에서 경험이 있고 훈련된 직원 출신이 맡게 된다. 협동조합이 성장함에 따라 조합의 일을 전담해 줄 실무자를 채용하는 구조를 갖추어 나가는데, 이로써 조합원 중심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 조직이 분화하게 된다.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일상적인 업무 및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의 관계, 즉 조합원들의 결사체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사업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협동조합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사회의 운영을 통해 결사체다움을 유지하며 사업체의 지속성·전문성을 축적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사업체 운영에 집중한 나머지 결사체다움을 잊어버리고 말거나, 반대로 사업체로서 현실 경제에서의 적합성을 상실하고 소멸되어 버린 예는 너무도 많다. 초기 설립된 많은 생협들이 후자의 경우라면, 전자로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사회적 가치를 상실하고 은행기관 혹은 국가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사례들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결사체답게 활동하여,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인 미션을 시행한다. 또, 협동조합은 사업체답게 운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표2〉 협동조합에서 결사체와 사업체의 관계

<b>협동조합 운동</b>	{	결사체 영역 : 조합원 활동, 조직 활동 사업체 영역 : 직원(실무자) 노동, 조합원 노동
----------------	---	---

조합원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또한 그 협동조합의 지향이 자신의 지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활동을 선택하며,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면서 결사체의 주체가 된다. 조합원 활동은 조합원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행위로서 자발성을 띤다. 이러한 조합원 활동은 조합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지속성은 요청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결사체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활동 영역에 머물러 버릴 수 있는 영역의 조합원 활동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활동 조합원들의 활동 기반을 만들고 조합원 생활에 밀착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활동 조합원들에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활동비를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조합원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활동 영역에서 성장한 조합원들이 '조직활동가'로 역할 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도화 하여 활동 사무국을 만들 수 있다. 사무국은 주로 조합의 정보나 활동 의제를 소통하여 조합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조합원들을 발굴해 '조합원 주체'로 세우는 활동을 한다.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은 결사체다운 활동, 다시 말해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사체다운 활동이란 조합원이 경

영이나 전산, 물류와 같은 일상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합원 개개인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의제,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개선되는 의제가 중심으로 다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드로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보호자로서의 역할,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의제일 것이고 한살림 식으로 이야기하면 먹을거리 자치와 에너지 자치, 돌봄과 같은 지역살림의 의제가 그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하는 자로서 협동조합의 실무자가 된다. 직원은 협동조합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통해 사업체의 주체로 성장한다. 실무자들은 조합원의 뜻을 잘 살피고 조합원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운영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조합이 현실 경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 즉, 결사체의 뜻을 마음에 품고 조직의 운영에 참여하며 주체로서 성장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실무자들이 조합을 유지·확장하며 조합원의 뜻에 기초해 일상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활동은 일상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할 때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조합원 활동이 있을 때 비로소 협동조합다운 사업이 가능하며 자신다움이 드러난다. 결국 조합원과 실무자는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로 관계해 가는 것이다.

### **(생협에서의) 노동 참여 유형**

협동조합, 특히 생협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 실무자 노동**

실무자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교환의 노동이다. 이는 주로 물류, 전산, 회계 등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이나 상당 기간의 경험과 훈련의 축적을 요하

는 경영, 관리 부분에서 요청된다. 조합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상성을 유지하며 현실 경제 속에서 지속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미션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녹여내고, 경영 현황과 연동할 수 있는 업무 구조나 급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책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역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 조합원 노동

‘협동조합은 고용된 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때 대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조합원 노동이다. 즉, 특정 영역에서의 노동에 자치성을 부여하고 조합원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합원 노동이라 할 수 있다.

생협이 출발했던 시기에는 충분한 수의 실무자를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장이나 주문상담 영역에서 조합원들이 마음을 내어 자원봉사 성격으로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다. 실무자 노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업무영역에서의 자원봉사는 없어졌지만, 특정 업무가 주어진다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조합원들은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에서 어떤 특정 업무를 조합원들에게 위탁하는 구조를 제도화 한 것을 ‘조합원 노동’이라 보면 된다.

조합원 활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활동 사무국’ 혹은 ‘조합원 활동실’과 같지만 물품을 다루는 업무 영역을 담당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원 노동은 물품 판매와 물품을 매개로 한 소통이 핵심 업무로, 이때 조합원은 물품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생협이 요청하는 업무적 정확성을 지키면서 주체적으로 일한다.

조합원 노동의 자주관리적인 성격, 주체적이며 업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 한 것이 위에서 예로 든 ‘워커즈 콜렉티브’다. 이는 소비자들로 구성된 생협과 별개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이를테면 ‘매장 운영 워커즈 콜렉티브’는 생협으로부터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일상

업무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수행하지만 출자하고 이용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생협과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는 상호 약속으로 정하게 된다.

‘조합원 노동’의 장점이 잘 발휘되려면 앞서 언급한 ‘시민노동’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협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일한다는 입장에서 지역 조합원의 구매활동을 돕고 촉진하는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다.

### ● 타 조직에의 업무위탁

전통적으로 생협에서 실무자 노동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공급 업무’ 등을 다른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지역’을 중심에 둔 관점에서, 동일 지역의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 등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 영리기업에서는 아웃소싱의 목적이 비용 절감에 있다면 협동조합의 업무위탁은 지역 내 협동조직과의 연대, 사회적 고용의 실현 등을 목적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업무위탁 조직을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보는 모델이다. 가령, 조합원 노동 부분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업무 중 일부는 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만들어 여기에 위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쪽 다 높은 노동의 집중이 요구되는 부분의 업무위탁으로, 업무의 완결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시켜야 한다.

##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협동조합의 노동

인간이 ‘협동’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표현이며, 주고받는 행위이다. 같은 관점에서 협동조합은 편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

단적 행동이기보다는 상호호혜의 행위를 통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이 지향해온 협동의 방식은 이러한 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운동의 전통을 대변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생협은 소비를 조직했으면 생산자를 이익을 놓고 경쟁하는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생산자 역시 소비자를 위한 생산을 위하여 생산을 조직해 왔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생산과 소비 협동 원칙이 곧 한국형 생협이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며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협동조합의 노동은 이윤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이윤의 몫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개발 도구이자 우리가 속한 넓은 공동체에 봉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협동조합의 미션과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의 의미에 초점을 맞출 때, 협동조합에서 내부 업무를 부분적으로 조합원 주체에 위탁하는 '조합원 노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합원들의 활동과 유대가 지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한 노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외부의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조직 혹은 비영리조직(NPO) 등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노동을 조직화하고 협동적 사업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협동의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운동이 노동의 문제를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킨 사례로 캐나다 퀘벡 지역을 들 수 있

---

10)그레그 맥레오드, 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다. 경기 침체로 광범위한 실업 상태에 처했던 퀘벡 지역의 노동운동은 스스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협동조합 등에 투자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을 선택해 오늘의 퀘벡 지역이 사회적 경제 중심의 풍요로운 지역으로 변화하는 여건을 만들어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가 심화되면서 개인 생활과 커뮤니티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 문제,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 저출산 현상 속에서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곤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합원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협동조합과 그 노동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이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정당한 화폐 가치로 평가받는 방법이 있고, 반면 (화폐경제의 한 영역으로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과 생산노동을 공적共的 영역으로 전환시켜 사회적 협동의 대안 경제를 형성하는 길이 있다.<sup>11)</sup> 화폐 가치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미래학자이며 경제학자인 헤이즐 헨더슨에 따르면 돈으로 움직이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관계에 의한 협동의 경제(Social Cooperative Love Economy)가 작동되어야 하고, 이는 어머니 자연에 의존해 있다. 화폐경제에 포섭되지 않는 노동이란 구체적으로 물물교환, 가사, 돌봄, 봉사활동, 사회부조, 가정 내 생산과 가공 등을 가리킨다. 임노동이 성립하려면 재생산 노동이 있어야만 하며, 가사, 양육, 간호 등이 존재하지 않는 임노동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활동과 노동의 참여 구조를 통해 일상적으로 운영되며 그 운영 과정에서 주체를 형성한다. 성장한 주체들은 다시 자신이 속해 있는

---

11) 2005. 「한살림운동과 조합원노동의 이해」(조합원노동 특별위원회 보고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치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본주의 내부에서 생산노동을 떠맡기보다는 화폐경제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의 확산을 포함해 노동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협동조합의 노동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기섭. 2012. 『깨어나라 협동조합』. 들녘
- 토머스 말론. 함규진 역. 2005. 『토머스 말론의 노동의 미래』. 넥서스BIZ.
- 윌리엄 F. 화이트, 캐서린 K. 화이트. 김성오 역. 2012.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역사비평사.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2012. 『세계사의 구조』. 도서출판b.
- 그레고 맥레오드. 이인우 역. 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역. 2005. 『노동의 종말』. 민음사.
- 울리히 벡. 홍성태 역. 2006. 『위험사회』. 새물결.
- 페르낭 브로델. 김홍식 역. 2012.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갈라파고스.
- 홍기빈. 2012.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 날개.
- A. F. 레이드로. 김동희 역. 2000. 『레이드로 보고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 유키오카 요시하루 외. 『워커즈란 무엇인가?』. 그린코프공동체 출판사업부.
- 헤이즐 헨더슨. 정현상 역. 2008. 『그린 이코노미』. 이후.
-



## 좌담 노동의 현실과 현실의 대안



**참 석** 김신양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장주영 (대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진 행**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주요섭** >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이라는 특집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현안이나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을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이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나 돌봄, 여성, 청년 노동의 현장에 계시면서, 또는 연구자의 시각에서 현재 노동 현실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이나 단면을 짧게 말씀해주시죠.

## 일자리 환원과 일자리 양극화가 만들어낸 불안한 노동 현실

**김신양** >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삶의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실업자는 취업을 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는 것이 목표인 사회인 거죠. 그런데 실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고용과 노동이 섞여 쓰입니다. 사회 문제가 일자리 문제고 삶의 질이 고용의 질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노동중심적 경향은 진보 보수가 다르지 않죠.



시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노동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을 시장에 둘 것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야만 고용과 일자리를 넘어서는 노동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안소영** > 요새는 중학생들이 직업 체험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진로 적성검사 같은 걸 하고,

방학 동안 직업 체험을 하라고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직업을 가질지를 묻는 거죠. 그 상황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 중심 사회이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행함과 우울함, 피로감들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주요섭** > ‘일’과 ‘노동’은 다른 개념으로 쓰신 건가요?

**이안소영** > 일레로 전업주부는 임노동시장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활동과 일과 노동이 각각 다른 범주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용)노동만을 이야기하고, 평등에 있어서도 노동할 권리와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자원을) 평등하게 가질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평등도 있을 수 있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어떤 일을 하는 평등처럼 다른 권리와 평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임금노동을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장주영** > 저희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감정노동 등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야기해요. 기존에는 분명 라인의 생산노동을 중심으로, 즉 굉장히 남성 중심이었고 가족임금 안에서 움직였다면,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까지를 포함해 더 넓게 보려는 것이죠. 일과 노동이 분리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항상 활동가들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들은 노동이나 활동이나, 항상 부딪혀요. 그 범주가 어디까지일까. 생계의 여유가 있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고,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노동이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전업주부들이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없다고 하잖아요.

**주요섭** > 연구자 입장에서 보는 한국의 노동 현실은 어떻습니까?

**황덕순** > 노동 문제의 범주는 워낙 넓지만 지금의 주제와 관련지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부 소득 격차가 크다는 점도 있지만, 누구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 일을 하고 누구는 아예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고용 측면에서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매우 큼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매우 적다는 뜻이죠. 통계적으로 우리 사회의 평균 근속기간은 노동시장이 아주 유연하다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반 남짓에 불과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35% 정도 돼요. 현재 직장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 1/3이 넘는 거죠. OECD 평균은 15~16% 정도입니다. 반면 10년 이상 근속자 통계는 정확히 역전돼요. 우리는 15~16% 정도, OECD 국가는 35% 정도입니다. 간접적으로 여러 지표를 보면 (우리의)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 5백만 명 정도는 매년 그 일자리에 나가고 4백50만 정도가 매년 들어와요.

물론 같은 사람이 두세 번 움직이기 때문에 겹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1년을 놓고 보면 자기가 연초에 일했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처지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 정도로 일자리의 불안정성, 노동시장 유동성이 매우 높은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주요섭** > 고용보험 가입자 중 45% 정도가 1년 내 들고남이 있다는 통계는 조금 놀랍네요.

## 청년 노동의 현실, 그 출구는?

**주요섭** > 각자 현장에서 느낀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큰 틀에서의 특징 외에도 삶의 현장에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노동 현실은 어떤가요?

**장주영** > 최근에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동 문제가 삶과 먹거리의 문제, 문화와 생활의 문제뿐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와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로기준법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나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은데, 여기서라도 이렇게 일하는 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입시제도에서 사람들을 등급별로 나누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청년들이 도시에 살면서 돈을 많이 못 벌면 불안해하는데, 그 이유가 내 생활이 다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집세, 수도요금, 난방비, 식비...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만들어 하는 삶에서 멀어졌으니 불안한 거죠.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니 돈을 쓸 시간이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벌어야 하니 장시간 일해야 하고, 그래도 먹고살기 팍팍하고. 노동과 돈, 생활이 이어지게 되면서 문화 격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다들 자존감을 많이 잃어가는 상황이에요. 저도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근로계약서나 임금체불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웃음)

어쨌든 핵심은 '불안하다'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하든 임노동을 하든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불안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스스로 불안한 것도 있고요. 정서적인 문제와 생활의 문제, 사회보장의 문제가 엮여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있지만 활동과 돈 버는 일을 따로 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주요섭** > 청년 세대 중에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은 없는지요? '나는 꼭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꼭 취업을 해야 하나?' '사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등등. 물론 쉽지 않지만, 일할 권리만을 이야기한다면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 현실에서 그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노동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탈노동 경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혹시 출구가 되진 않을지. 불안정한 상황은 사회 전체의 문제인데, 정책이나 제도, 혹은 기업을 바꾸는 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은 어디에서 찾을지 궁금합니다.

**장주영** > 여러 시도를 해도 먹고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자본으로부터 고용되지 않아도 가능한 삶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탈노동은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협동조합 안에서 재분배를 이루고 서로 돌보면서 노동을 나누고 삶을 같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동네에서 협동조합 마을 카페를 열었어요. 조합원은 33명 정도이고, 네 명 정도가 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의 출구로써 협동조합을 생각했는데, 막상 청년들이 모이면 출자금을 수십, 수백만 원 내기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이안소영** >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장주영** > 그런 청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스로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삶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단적으로 대전에서는 청년들 중 70%가 서울로 가고 있어요.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고, 귀촌이나 귀농 같은 경우에도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동과 활동의 혼재, 존중 받는 노동의 필요성

**김신양** > 얼마 전에 ‘젊은 활동가들의 노동과 활동 전망’을 주제로 좌담을 했었는데, 노동과 자기의 활동을 혼동하면서 생기는 현장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러한 곳이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활동의 장이었을 때 생기는 문제죠. 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노동 시간 혹은 어떤 노동을 할 것인지 같은 근로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관계가 없어도

노동을 존중해주면 괜찮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노동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를 포함해 아주 많은 단체가 이런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쪽이 확대되면서 정부 보조금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새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단기로 쓰면서 고용 불안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 노동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시장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주영** > 노동권에는 노동할 권리뿐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단체 책임자는 자본가가 아니니까 노동권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안소영** >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는 자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자아실현 또는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월급을 받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헛갈릴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주말에 집회를 가는데 그것을 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시민노동이라고 할 만한 일을 거의 안 하는 거죠. 자원활동을 한다거나 우리 단체가 하지 않는 다른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일을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급 받는 일 말고 다른 활동, 시민노동, 공동체 기여 등의 ‘일’이 필요한데, 시민사회 활동가도 그 일을 못하는 건 사회가 너무 과잉노동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주요섭**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살림과 같은 생협 활동가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4대보험, 복무규정 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근로시간 외에 일하는 것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죠. 요즘 워낙 협동조합을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

자리로서의 협동조합이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은 어떤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구 중 하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도 노동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으로는 어떤가요?

## 협동조합은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김신양** >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은 종속된 노동이고 협동조합이나 다른 조직에서는 대안 노동이라는 분리된 사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은 일인 거죠. 청소하는 일의 경우, 지자체에서 고용되었던 협동조합에서 하건 청소는 청소이고 그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인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노동이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런 노동이라고 나눌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주는 방식, 최저소득 보장, 기본소득 보장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정말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독립된 노동’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안소영** > 현실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 지점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는 일이었던가는 다르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요섭** >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를테면 동업자 조합과 같은 돈벌이 협동조합이 있고 생협과 같이 필요의 충족을 위한 협동조합이 있다고 할 때, 양자에 참여하는 분들의 태도, 실제 운영, 관점 같은 것들이 다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신양** > 무엇을 중심에 두고 노동 문제를 볼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조직

을 중심에 놓고는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회사에서도 노동 착취만 하라는 법은 없죠.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을 조직하고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협동조합으로 해결된다는 식으로 답을 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전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는 생각과 자각이 더 중요한 거죠.

**이안소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과 협동조합의 다른 방식의 노동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각각 노동을 어떻게 조직할지에 대한 원리를 고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 협동조합은 자기가 일을 하는 주체입니다. 노동자이자 고용자이자 출자자죠. 그 일의 방식, 내가 출자자이자 운영자이자 노동자인 그 일의 규모를 늘려가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신양** > 그 부분은 노동관계의 차이예요. 출자자이자 노동자로 참여하는 것, 이건 노동관계의 문제죠. 그런데 사회에는 재분배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의 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노동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안 좋은 노동, 어떤 것은 대안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황덕순** > 협동조합이 지금 한창 유행이고 대안 조직으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 노동자예요. ILO와 국제협동조합기구가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본 게 있는데,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게 노동기본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라는 게 그것입니다. 협동조합이 호혜적 활동을 하고 그것에 기반

해 작동하는 건 맞지만 모든 협동조합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가져야 할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기반 위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거죠. 협동조합이 커지게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위계조직이 생겨나고 경영이 생겨나고 노동하는 사람이 구분돼요. 어떤 조직이든 발생하는 현상이죠. 당연히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실령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해요.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나 수단이 될 수 있어도, 노동의 문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고 노동조직이 수행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기능,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늘 같이 움직여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김신양** > 하나의 협동조합을 볼 때는 그렇죠. 폴라니의 얘기를 빌리면, 재분배와 교환을 종속적으로 사용할 때 호혜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어요. 노동조합이 결사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재분배 시스템으로 연대임금제가 작동되면 노동조합은 훨씬 잘 운영돼요. 각각이 분리되지 않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 재분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협동조합 내에도 기금을 두어 신생협동조합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러한 사고에서 협동조합공화국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정부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요. 개별 협동조합이 노동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들 간의 협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다른 노동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을 놓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대안을 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장주영** > 대안이 되려면 삶의 지속성을 중심에 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요.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지속적인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개별 단체나 회사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을 구성해야 하죠. 개별 조직에서 안 될 때는 아까 얘기하신 연대임금제, 일종의 공동펀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 삶이 가능하도록 노동을 재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당장 임노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는 게 노동운동의 역할 중 하나이죠. 어떤 사람의 삶의 지속성을 가운데 두고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생 각 시기마다 필요한 돌봄 노동이 거기에 세심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삶의 지속성도 같이 디자인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시간제 노동,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주요섭** > 이제 시야를 넓혀서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현안을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시간제 노동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이 있을 텐데요.

**김신양** > 노동 시간 단축을 얘기할 때 네덜란드 사례를 많이 드는데,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노동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게 문제예요. 자활에 있었을 때 간병도우미사업이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여성들에게 좋았던 건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가사도우미 일의 경우 소개소가 있어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구하기 힘든 건 그 일의 조건과 내 삶의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적은 시간이라

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요섭** > 시간제 노동도 안정이 되면 괜찮겠다는 의미인가요?

**김신양** >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죠.

**이안소영** > 저도 시간제 노동이 필요하겠단 생각은 들어요. 어린 아이나 노인, 환자들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 돌봄을 제공해야 할 누군가가 있는데, 그것을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가정 밖에서 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돌봄 서비스 영역이 있어야 하지만, 모두 다 상품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과 마을 단위, 근거리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해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정규직 노동을 할 수가 없을 경우 시간제와 같은 유연한 노동 형태가 필요하죠. 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같은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은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소득이 가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이 돌아간다는 구상에서 기본소득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전제가 되어야 시간제 일자리 같은 논의가 가능하겠죠.

**황덕순** > 분명 시간제 노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안정적인 시간제 노동이라는 고용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가장 열등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현실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어떤 것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욕구와 사회적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가는 방법이나 경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사이 논의 과정을 보면서 시간제 노동 자체가 오염된 어휘가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간제 노동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가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궁극적으로 고용된 노동은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남성들이 혼자 일할 때는 남성들이 벌고 여성들이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모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자기 시간의 반 정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1/3정도 임금노동을 하고, 나머지 1/3정도는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든지 스스로를 돌보는 일, 1/3정도는 시민노동을 하는 사회로 갈 수 있고 가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이르는 데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 같은 불가피한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지요.

## 비정규직은 노동이 아닌 사람의 문제

**주요섭** > 비정규직 문제와 시간제 일자리를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을까요?

**황덕순** > 그 둘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시간제 노동은 고용된 임금노동의 시간을 줄이자는 의미, 즉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이고,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문제라고 봐요. 거친 표현을 쓰자면, 천박성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이라는 ILO의 선언 1조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약 관계가 상품으로서 노동을 계약하는 거죠. 과거 정치경제학 이론을 따진다면 노동력과 노동을 구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계약하는 임노동 관계, 고용돼서 임금을 받는 현상

자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만 노동이라는 건 다른 상품과 달라요. 사람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나 재화와 다르게 특별하게 다루어야 하는 어떤 것이죠. 이 고용관계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의 가치, 삶의 실현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짜 나갈 것인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고용관계 안정성은 그 기초 중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고, 마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썼다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게 급세 바뀌기 어렵겠지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는 그 상징적 사건이었죠. 기업이 어려운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기업이 어렵다고 해도 사람을 쉽게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것에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 문제는 자본의 논리, 기업의 논리와 다른 사람의 문제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주요섭** > 현실은 어떨까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황덕순** > 현실은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내면의 불안이 퍼져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세대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취직할 수 있는 사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고용불안이나 극도의 양극화 문제가 이제 내 자식의 문제로 다가오는 사회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 자식의 취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사회가 돼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노동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요섭** > 제도나 정책적 대안도 마련되고 있나요?

**황덕순** > 지금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예를 들면 비정규 직법의 경우에, 결합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100만 해고 대란설을 들어 공격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인 거죠. 그렇지만 100만 해고 대란설이 허구였다는 것은 바로 며칠 사이에 드러났잖아요? 조금 더 진일보하게 나간다면 비정규직 고용 규제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되는 일자리에겐 계속 지속되는 고용 관계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안정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소위 무기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 고용관계의 원칙이고, 우리나라 노동법이나 국제적 노동 기준도 다 그 원리 위에서 있습니다. 오래 전에 확립된 것이죠. 다만 지금은 시장 질서를 거스른다는 명분으로 그런 확립된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장주영** > 비슷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어떤 일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을 계속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해 버리는 게 문제죠. 그들이 일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직고용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계속해서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더 싸게, 노동자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거예요. 시간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 명백하게 범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기고 대법원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간제를 내놓은 것은 기존 현안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안소영** > 시간제 노동을 상용, 정규직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성운동 쪽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반기지 않아요. 시간제 노동이든, 시민노동의 활성화하

든, 돌봄노동의 사회화든, 성별 분업 논의를 깨는 구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특정한 노동을 특정한 성이 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일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시간제 노동 담론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여자들만 하는 노동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간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구나 돌봄을 통해서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두고 성별을 깨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여성들도 남성들이 들어가 있는 임금노동 시장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삶이 너무 불행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 노동의 전환을 위하여

**김신양** > 계속 노동시장 안에서만 이야기했는데, 노동관계뿐 아니라 노동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청소는 다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일이 있어요.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사회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일, 노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프랑스의 에스빠스(프랑스 자활 사회적기업) 사례를 들면, 도심 공원관리나 텃밭 관리 등을 다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민자 출신이고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동정원을 가꾸고 심는 일을 하면서 그 자체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일. 그러한 일을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안 노동이라고 할 때 노동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협동조합 같은 거라면 어떤 일

을 하며 살 것인지, 다른 노동의 방식과 그 일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해요. 그런 것을 고민하라고 사회적 일자리가 있는 건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시장으로 나가는 데 급급했죠. 정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건 사회적 기업, 자활이건 그런 일을 하게 만든 제도는 실제로 그런 일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더 좋겠죠.

**이안소영** > 돌봄을 예로 들면, 우리는 노동시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주는 구조니까 일을 하러 나가야 하고, (엄마들이) 자유롭게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돌봄교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계도화'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2-3년 동안 갇혀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고립되고, 다른 아이들과도 관계도 없어지고요. 이것 해결하는 방법은 교사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건가.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것처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봄교사가 되는 일자리를 만들면 마을에서 안전과 돌봄 같은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상품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돌봄 등 마을에서의 노동을 일로 만드는 것. 어떤 노동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신양** > '노동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노동을 만들고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이제까지는 대개 농업 분야였고 약간의 문화 분야가 있었는데, 과학기술이나 제조 분야에서 그런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다른 노동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콘텐츠'도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안소영** > 다름을 만들어낼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규모라고 생각해요. 지역공동체에서 적절한 규모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요섭** > 노동의 전환을 위한 실천적 키워드로 좋은 일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영국 New Economy Foundation에서 제안한 주21시간 노동인데요, 생태적 관점에서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나 노동 시간 단축 방향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황덕순** > 경제학자 케인즈는 자기 손자 세대가 되면 주 15시간 정도만 일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전망했어요. 지금이 그쯤 되는데,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정도의 임금노동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사회가 극단적이라고 했는데, 잘산다는 나라 중에서 노동 시간이 제일 길고 일자리는 부족해요.

세상에 완벽한 사회는 없지만, 제일 비슷하게 간 경우를 들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여성들의 60%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남성들은 20% 가까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 격차가 크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남성 파트타임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풀타임은 많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파트타임은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적어도 일이 같은 한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시간당 임금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주변부 일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많은 일,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화이트칼라 층이 파트타임에 들어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 파트타임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여전히 가족주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대륙의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죠. 네덜란드의 경우 남성은 1을 하고 여성은 0.5를 하는 개념에서 1.5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스웨덴은 남녀 풀타임 모델이에요. 물론 노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짧

죠. 여성들이 애 낳고 육아를 할 때 파트타임으로 전환했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풀타임으로 복귀해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하는 풀타임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옛날에 가정에서 하던 일을 고용된 임금노동으로 하는 돌봄노동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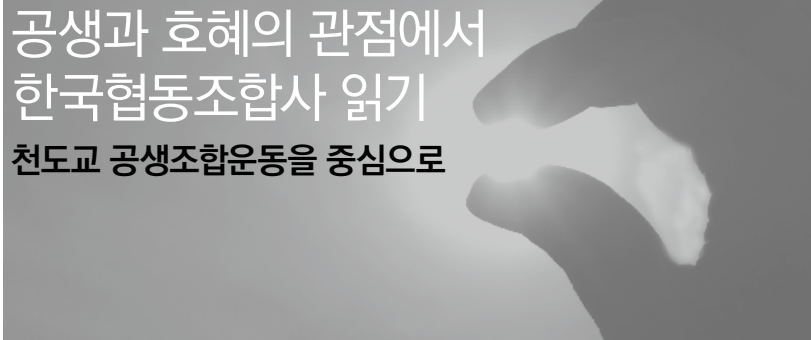
네덜란드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면서 고용률을 많이 올렸어요. 이전에 고용률이 낮았을 때의 총 노동 시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눠가졌다는 뜻이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완벽한 사회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하는 일을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궁극적으로는 다같이 50%씩 파트타임을 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미래사회의 모델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자기 생활을 위한 노동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 먹거리 정도는 생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의 생활노동, 돌봄,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노동,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하는 시간들을 1/3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균형을 가진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사회 패러다임만 바뀌면 가능합니다. 물질적 기반은 있어요. 다만,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짜 나가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한계일 뿐이죠.

**이안소영** > 자급노동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지속가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주류가 되어야 하고, 풍요와 경제성장과 개발로부터 벗어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하겠죠. 네 시간만 일하고, 그 대신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거나 품앗이, 두레 등을 되살려 교환해 쓰는 모습으로 가야 해요. 그것과 더불어서 돌봄노동이나 자급노동, 살림노동 같은 데에 젊은 성인 남성이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자칫 계속 여자들만 그 노동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젊은 성인 남성이 지역공동체에서 일하고 살림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문화를 바꾸는 문제겠죠.

**장주영** > 노동은 고달픔과 보람이 공존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 같이 고달픔은 줄이고 보람은 늘리는 것, 여가를 즐기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환이나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주요섭** > 고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노동의 전환이랄까, 역시 좋은 일 혹은 의미 있는 노동으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노동 시간 단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소득 등 사회적 보장으로 귀결되는 것 같고요. 다루지 못한 부분도 많고, 몇몇 주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의 대안을 탐색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생과 호혜의 관점에서 한국협동조합사 읽기 천도교 공생조합운동을 중심으로

### 한국협동조합의 역사 속에서 공생과 호혜의 경험 찾기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을 사회적 경제 생태계로 만들자”라는 말들이 자주 오르내린다. 오랫동안 협동조합인들의 꿈이었던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하다. 정부에 의해 추동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나는 지금,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한 것을 넘어 ‘시급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자립하지 못한 채 외부의 지원에 기대 있는 현실이고, 그런 취약함을 지탱해줄 만한 연대활동은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 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럼 그 연대의 목표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열별 협동의 원리가 많이 작동한다. 농협중앙회나 생협 연합 조직들이 그러한 연대의 결과이다. 이는 각 조직의 운영 안정화와 조합원의 필요 충족이라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연대활동이다. 그런데 그 연대의 목표를 '사람'에 둘 경우에는 연대의 관계가 좀 달라진다. '한 사람을 둘러싼 생활 생태계는 어떠해야 할까', 또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지역'이다.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 경제 구조를 협동적이고 호혜적인 공생 사회로 전환시켜 가는 협동조합 지역사회, 사회적 생태계 구축으로 방향이 잡힌 것이다. 생활의 터전인 '지역'과 '마을'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계망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국내외 여러 경험들이 모델로 등장했고, 사회적 경제계에서는 벤치마킹의 붐이 일고 있다. 원주나 홍성군 흥동면에 가면 오랜 시간 묵묵히 협동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온 곳에 대한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고, 서울의 성미산마을같이 거대 도시 속에서 주민들이 자기 필요를 협동으로 풀어가는 모습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에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해외에서도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로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 캐나다 퀘벡 등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모델을 보는 것은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체를 접한다는 점에서 힘을 준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협동적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호혜와 공생의 사회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억압적인 사회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부단히 이어져 왔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같은 논

의는 처음이 아닌 것이다.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다  
각적으로 시도되었고, 수많은 성과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는 중에 현재 우리 협동운동계가 마주하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성  
찰하는 단초를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것은 현재 남북한의 협동운동 맥락 속에 면면히 살아있다. 흥성  
흥동면 풀무학교와 협동적 지역사회의 역사적 연원은 일제 하 평북 정주  
에서 만들어졌던 오산학교와 협동적 지역사회였다. 이는 사회개혁과 민  
족해방을 꿈꾸는 기독교인들의 이상인 '이상촌운동'이었다. 이상촌운동  
은 만주 지역의 이상촌운동으로도 연결되며, 해방 후에는 월남한 이들에  
의해서 <사상계>의 인맥으로도 모이고, 함석헌과 원경선으로도 이어진  
다. 바로 현재 한국 생협운동의 뿌리 중 하나를 형성하는 흐름이다.

사회주의 협동조합의 맥은 북한으로 이어졌다. 1930년대 초반 한반도를  
뒤흔든 함경남도의 농민운동 세력은 단천이나 흥원과 같은 군 지역 전체  
를 해방구처럼 만들었다. 사회주의 농민조합운동 역사상 대표적인 이 운  
동의 내부에는 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 각 부문별 세대별 조직들이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농민운동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된 구조라 할 수 있  
다. 저항적 운동조직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제도개선 운동을 하  
는 한편 일상의 호혜적 관계망도 만들어져 있었다. 이 경험은 해방 후 인  
민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인물들, 나아가 북한  
정권을 만드는 한 그룹의 역사적 연원이기도 했다. 북한 사회에서 수월하  
게 협동조합 또는 협동농장, 소비자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농업과 상업이  
재구조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협동조합 또한 남북한 체제화 과정에서 이념과 종교에 기반한 방향으로  
분단되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공  
존과 공생을 염두에 둘 때,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역사 속  
에서 남북의 이념 대립 혹은 체제 대립을 완화시키거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찾으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공생과 호혜의 관점에

서 협동조합사가 재구성될 필요하다. 현재 남한에서는 국가와 개인만이 살아남던 사회 속에 협동적인 공유섹터가 성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와 협동적 사회 구성 속에서 장마당과 같은 개인적 섹터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볼 때 협동운동 진영에서도 남북한이 함께 논의하고 공통의 경험을 놓고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하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협동조합 또는 협동운동사를 공생과 호혜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학계 연구 성과에 기대 ‘공생’과 ‘호혜’의 관점에서 현재의 협동운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성찰할 수 있으면서도 남북한의 공생과 호혜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공생’이라는 말을 협동조합에 붙여 활동했던, 식민지 시대 가장 큰 사회 세력의 하나였던 천도교 공생조합의 이야기다.<sup>1)</sup>

## 인내천의 생활화와 사회개혁을 실현하는 천도교 농민공생조합

천도교 농민공생조합은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천도교 신파(천도교청년당으로 활동) 그룹의 농민운동조직인 조선농민사의 협동조합운동이었다.<sup>2)</sup>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선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식민지 지주제라는 구조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의 현실을 타개하려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

---

1) 이 글의 천도교 공생조합활동에 대한 내용은 참고문헌들에 의존해 쓰였다.

2) 천도교세력은 단일하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 시기 가장 큰 세력은 천도교 신파와 그들의 사회운동조직인 천도교 청년당이었다. 그리고 이 신파의 운동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화를 꾀했던 그룹이 천도교 혁신파와 천도교연합회조직이었다.

되었다. 그 하나의 흐름이 ‘농촌계몽’과 ‘농민의 단체적 훈련’을 통해 농민들의 빈궁을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1925년 천도교 세력과 여러 사회운동 세력이 힘을 합해 만든 조선농민사였다. 조선농민사는 농민 계몽과 더불어 농민 현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잡지 『조선농민』을 발행하였다. 각 지역에 구독자 모임이 조직되었고, 필진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잡지를 매개로 확장되었던 조선농민사 조직은 1928년 무렵에 군 농민사, 면 농민사에서 리 농민사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조직이 가장 컸던 평남 맹산군의 경우, 1925년 『조선농민』 구독자 200명을 모집하여 조선농민사 맹산지사가 설치되고 리 농민사도 85개 리에 조직될 정도였다. 그 결과 1930년에는 사원이 3,300여 명으로 전국 주민 호수의 46%에 달했고 1932년 무렵 전국에서 가장 성장한 농민사로 꼽히기에 이르렀다.

조선농민사의 활동은 크게 농민 계몽을 통한 ‘신인간’으로서의 농민 주체 세우기, 공동구매와 판매를 하는 알선부 사업, 나아가 공생조합을 통한 협동적 경제 관계망 만들기에 집중되었다. 농민사는 농민 계몽을 위한 야학을 설치하여 한글·산술·일어·습자를 가르치고, 농촌지도자 강습회를 열어 한글·산술·작문·상식·경제·조선근세사 등을 가르쳤다. 동시에 독서회를 열어 대중독본·대중산술·주산·작문·상식 등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 덕분에 맹산군의 천도교인 중에서는 문맹자가 사라졌고, 농민사원이나 공생조합원도 문맹률이 매우 낮아졌다. 군 농민공생조합은 이익금 중 1%를 각 리의 야학 및 교양운동비로 충당하였다.

또한 1926년부터 ‘알선부’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생산품 공동판매 및 필요 물품에 대한 공동구입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번지고 있던 소비조합운동 방식을 낮은 수준에서 도입한 것이다. 사원들이 출자금을 내 자본을 마련하고 공동구입과 판매 활동을 통해 그동안 중간상인들에게 빼앗기던 이윤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스스로 경제상황을 개선하려는 활동이었다. 알선부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자 천도교청년당은 1931년부터 알선부

를 소비조합인 공생조합으로 개편하고 이를 전국 조직으로 통제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천도교청년당이 농민사를 조직적으로 장악하여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치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재조직해가는 과정에서 진행된 변화이기도 했다.

이들은 공생조합을 “농민 대중의 상호부조를 원리로 하는 경제운동”을 하는 ‘당면획득운동’ 조직으로 규정하였다. 즉 중간상인배에게 이윤이 착취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이 조직의 확대를 통해 사회의 경제 제도가 갖는 결함을 고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당면이익 획득을 넘어 천도교 세계관으로 일깨워진 농민대중들이 협동으로 만드는 지상천국의 건설이었다.

이들에게 지상천국은 “모든 사람이 서로 한몸이라는 관념 아래서, 또는 사람이 우주의 주인공이요 만물의 영장인 위대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정신 밑에서 농업을 토대로 하여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우며, 그 생활로 하여금 조화를 얻고 균형을 얻고 그리하여 진보와 향상과 발전이 있게 하”는 천도교 세계관이 실현되는 ‘후천개벽’ 세상이었다. 공생조합은 지상천국 건설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조직이었다. 천도교인들이 상호부조의 협동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서로의 삶을 지원하고 민중 스스로 사회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 성과를 보고 모인 사람들을 천도교의 수행을 통해 ‘새로운 인간(신인간)’으로 개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조합 활동은 협동적 생활방식을 일상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개벽을 이루는 일상적 협동의 생활화에 방점을 두었다. 우선 공생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를 기반으로 공동의 자본을 조성하고, 소비부·생산부·신용부·이용부·위생부의 5개 부서를 두어 조합원들의 생활과 활동을 조직화하는 종합농협의 성격을 띠었다. 그동안 중간상인들에게서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던 포목, 잡화, 석유, 염료, 미곡 등의 생

할필수품들을 공동구매해서 염가로 구입하는 혜택을 누렸고, 공생조합 덕에 지역 주민들의 삶도 변화되어 갔다. 각 군별 공생조합은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염매시를 여는 등 지방의 고물가수준을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강동에서는 상인들이 공생조합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단체를 조직하고 공생조합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공생조합이 설치된 많은 지역에서 상권의 변화는 컸다. 정평이나 삭주에서는 소상공인을 장악하였고, 선천에서는 공생조합 설치 이후 의료기관과 특수품 알선 기관까지 생겼으며, 정주에서는 농민창고가 설치되는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공생조합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며 조직세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던 요인의 하나는 공생조합들과 천도교 조직이 긴밀하게 협동하는 구조 덕분이었다. 공생조합이 각지에서 설립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농민공생조합 관서연합회가 창립되었다. 관서지방 조선농민사의 알선부 활동이 곧바로 공생조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3년째인 1933년 무렵 공생조합은 전국 300여 개의 지부와 10만여 명의 조합원 규모로 커졌고, 그에 기반하여 공생조합 경영 관리 및 운영 통제와 물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선농민공생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공생조합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중앙이 각 지역의 공생조합을 통제관리하는 조직으로 재구성되었다.

소비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생산 부문에서의 변화도 일어났다. 공생조합 중앙회는 지방 공생조합의 출자를 받아 주요한 소비품인 고무신을 생산하는 농민고무공장을 설립하여 '농'표 고무신을 공생조합에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에서의 협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상촌운동의 활동 기반을 만들어가게 되었다. 동일 조직 내의 수직적 협동을 통해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생산 활동까지 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1930년대 초반 생존 위기에 몰려 있던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했기에 가능했다. 특히 192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소비조합들이 경영난에 빠지고 있던 시점에서 조직적 협동 구조를 만들어 경영 문제를 개선했던 공생조합의 안정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 공동경작과 이상촌운동

1932년 천도교임시대회에서 “천도교인들이 공동으로 생산 사업에 종사하여 실제 서로 협동하는 정신을 양성하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공동경작계 조직과 천도교자주촌 건설 방향이 결정되었다. 천도교자주촌은 공생조합, 공동경작, 리 단위 청년회와 부인회, 소년회 등 활동별 세대별로 조직되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었다. 그 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마을의 생활을 주도한 것은 리 청년회였다. 리 청년회는 매일 아침 일정 장소에 모여 정말(텐마크)체조를 하였고, 매주 토요일이면 조 대표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작업을 하였다. 매 시일(時日)은 회원 전부가 모여 교리 연구를 하고 신문·잡지를 강독했다. 일상적인 모임을 통해 인내천 원리를 학습하고 생활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청년회는 소비조합을 조직해 회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해갔다. 리 소비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자본을 조성하고, 출자금의 일시 불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하여 빈농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자금과 적립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토지를 매입해 공동경작계를 조직했다. 소비조합은 본래 목적대로 농촌 소비품을 공동구입하였는데, 동시에 빈(貧)농가를 위해서 소와 돼지를 사서 주거나 가난한 아동들의 학비를 보조하는 등 마을의 상호부조 조직의 역할도 했다. 알선부가 행하던 소비품 공동구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마을 단위 상호부조 조직인 일상적 생활협동 조직이 된 것이다.

공생조합은 천도교인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 마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천도교에 가입했다. 공생조합에 가입하면 청년회·부인회·소년회라는 천도교청년당의 조직체계 속에 들어가 조직활동을 했으며, 적극적으로 마을이나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농민야학과 농민강습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맹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배움을 얻으며, 공동경작을 통해 마을의 자산을 늘려가는 일도 가능해졌다.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 주민생활개선운동을 시작한 곳에서는 관혼상제의 허례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복의 금지 및 국산품 애용 풍토를 살리고 금주를 실천하는 등 농민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마을에서는 언제나 독서회와 신문강독회가 열렸고, 농민학원도 설치되었다. 위생부가 조직되어 매월 15일과 30일을 위생데일로 정해 청결 활동을 하고, 파리를 박멸하기 위해 파리 잡는 기구를 공동구입하기도 했다. 소년 조직도 만들어져 소년들 스스로가 경제 사업으로 소년경리사를 만들어 일용소비품을 공동구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소년회의 학습비와 기타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공생조합이 소비조합운동에 머물지 않고 이상촌 만들기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경작이었다. 1933년경부터 각지에서 본격적인 공동경작계가 설립되었다. 공동경작계는 토지를 매입, 개간 또는 임대해서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기타 생산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 종사하고, 그 수입은 공동 저금하여 계원의 자작농화를 위해 융통하거나 조합원 간의 애경사에 상조를 하고 천도교회 사업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공동경작이 갖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동경작이야말로 일반사원의 교양과 훈련을 농한기만이 아니라 농번기에라도 할 수 있고 방내(房內)에서만만이 아니라 야외에서라도 할 수 있다. 집단 생활의 가정적 단락으로 침체된 성의를 진작할 수 있으며 아직도 원시농업 상태를 미면한 우리로서 농사를 이론으로부터 실지(實地)에 연구 개량할 모범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사(社)의 모든 경비를 원만히 조달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공동경

작으로 함으로써 사세확장 문제, 교양 문제, 경제사업 문제 등등 사의 모든 활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니 지도를 받기만의 사원이 아니라 지도를 하는 사원 즉 수동적의 사원이 아니라 자동적의 사원을 얻을 수 있다<sup>3)</sup>

생존 위기에 처했던 농민들에게 농민공생조합 활동과 천도교농민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갔던 지역사회의 모습은 생명줄과 같았을 것이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느낌이랄까? 그곳에 참여하면 공동경작을 통해 자신의 토지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배움을 얻고, 혼자서 살아야만 하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농민강습회를 통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자신이 처한 사회 현실도 알고, 천도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 한울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어나는 배경을 생각할 때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공동경작은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천도교자주촌을 만든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일상생활과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공생조합원, 농민사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활동과 공유 영역 확대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생활의 실질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천도교 농민공생조합이 가진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초기의 소비조합운동과 달리 소비조합 활동을 매개로 공동경작과 같이 토지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더불어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인간형을 키워간다는 천도교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제가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과 사회와 민족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대개벽론에 기초한 천도교 이상촌운동은 이 시점에서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

3) 이기환. "공동경작을 시작하면서". 『농민』 1932년 5월호, 30쪽.

4) 이렇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협동조합 활동은 천도교 공생조합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기독교협동조합운동이

## 삼대개혁과 생활의 발전

천도교 공생조합과 이상춘운동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초는 천도교 이념이지만, 그 이념은 그것의 해석자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어 왔다. 종지인 ‘인내천’ 사상을 근대사상으로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사회화하는가에 따라 당시 사회 속에서 대처하는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

천도교 신파의 조선농민사를 지탱해주는 ‘인내천’ 사상을 사회운동의 논리로 전환시킨 것이 정신개혁-사회개혁-민족개혁을 추구하는 ‘삼대개혁론’이었다. 1910년대부터 시작된 천도교 교리를 근대사상의 언어로 바꾸고 확산했던 것이 1920년대 초반부터 천도교청년회가 발간한 잡지 『개혁』이었다. 『개혁』은 제목 그대로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과 후천개혁을 근대적 사회사상으로 드러내고, 당시 새롭게 퍼져가고 있던 근대사상들 속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고자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잡지는 천도교인뿐만 아니라 당시 대표적인 사회사상가 또는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1920년대 전반기 한국 근대 사회사상의 틀을 주조한 공론장이었다. 그 속에서 한국 사회주의 사상의 담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문화주의와 결합하거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의 논리와 연결해 천도교 사상을 설명하고 그것과 천도교의 차이를 찾아내기도 했다.

천도교 세력은 사람들의 개조에 의한 새로운 문화 확립과 문화적 역량 강화를 통해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점진적 민족 운동에 집중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삼대개혁을 통한 지상천국 건설이었다. 개인은 ‘자아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대자아와 접속’하여 자기를 정화하는 정신개혁을 통해 자주·자립·자력적인 신인간이 될 수 있

---

나 사회주의적인 혁명적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전개 양상도 이 시기에 이르면 각자의 사상이나 이념에 기반한 인간형을 꿈꾸며, 그들이 지역에서 협동조합과 농민운동, 협동조합과 노동운동, 협동조합과 교육운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했다.

으며, 신인간은 타인과 사회를 위해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절제하는 인간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사회 개조와 민족의 정신적 개혁을 이루는 존재였다.<sup>5)</sup> 그 사람의 생활의 변화, 즉 '신생활'의 실천이 사회 개조의 기초이며 민족성 개조의 길이었다.<sup>6)</sup>

삼대개혁과 공생조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생활'에 대한 이해이다. 이들에게 신생활이란 단순히 생활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안에서 한울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둘러싼 관계의 개혁을 뜻한다. 그 사람의 생활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함께 이뤄가는 사람들 속에서 개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공생조합운동은 이러한 영성의 회복과 그 영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필요를 함께 해결하는 협동적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협동조합운동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역사적 경험이다. 한국 협동운동계에서 한살림이 동학사상을 자기 뿌리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모심'과 '살림'의 원리나 '생활'의 중요성이 생협운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며 천도교 농민운동의 맥이 우리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국의 생협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깨움이 모여 생명을 살려가는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형성되어 온 과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생협이 제도화되고 규모화되는 과정에서 생협운동의 근저에 있던 영혼의 일깨움, 자신과 모든 생명 안에 숨 쉬는 한울(창조주, 생명의 근원)이 서로 마주하는 경험은 점차 사라지고 '합리적 소비'만 남는 느낌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생협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삶을

---

5) "그 사회의 생존과 진보를 위함에는 육체와 정신이 강건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을 요한다. 특히 그 힘을 남용치 아니하고 사회 전체를 위하여 공헌할 줄 알며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需用을 능히 제한함과 같은 강건한 개인을 요구한다. 즉 사회심이 최강한 개인개인을 요한다"(김기전, 「사회봉공의 근본의식」, 「개벽」10호, 1921.4, 12쪽)

6) 그릴 때 그 민족은 스스로 강하며, 활동하는 민족이다. 민족해방운동의 논리에서 본다면 실력양성론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다시 돌아보고, 생협 안에서 연결되는 생명의 그물망을 깨달아가면서 자기 삶과 사회개혁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 주도권 경쟁, 깨어진 연대

천도교 농민공생조합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다. 그런데 이러한 일깨움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의 천도교 농민운동과 공생조합운동을 흔쾌히 본받기만 하기에는 마음 편치 않은 점이 많다.

역사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처럼, 1920년대 중반의 천도교청년당, 즉 조선농민사를 좌우하던 이 조직을 기반으로 천도교는 자치운동을 시작했고, 조선농민사 또한 이 자치운동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중조직으로 위치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 일본의 파시즘화가 강화되고 만주와 중국으로의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천도교청년당은 공식적으로 친일의 길을 걸었다. 결국 공생조합운동은 그 독자성을 상실하고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농촌진흥운동에 흡수되어 버렸다. 이러한 천도교의 친일화, 그리고 일제의 농정에 흡수당해 버린 공생조합운동의 결과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경험은 현재 한국협동조합운동이 행정주도형 제도화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전망을 어떻게 형성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된 요인의 하나는 식민지 민족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사회운동/민족해방운동 세력 사이의 경합과 갈등에 있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천도교는 식민지 시기에는 현재로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이었다. 인내천 사상이 갖고 있는 신분제 철폐 등의 반反봉건적·근대사상적 흐름과 근대자본주의적·기계주의적 사회 질서를 뛰어넘는 초월적 가치의 강조는 당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고 깊게 파고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근대적 종교사상이나 사회사상으로 재해석하

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상호부조적·노자협조적 사상 등 당시 사회에 유입되던 다양한 사회사상 조류와 결합할 수 있는 사상적 포용력도 가졌다. 유연하면서도 폭넓은 사유를 할 수 있는 동학사상의 장점이 발휘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조직력과 사상적 자부심은 천도교 스스로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이들의 삼대개혁 사상은 그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 초반까지는 새롭게 성장하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그 세력들과 협력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폭도 넓히고 사회주의 세력의 보호막도 될 수 있었으나,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사회주의 세력이 급성장하면서 서로 경합하는 관계가 되어갔다. 동시에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급성장해 있던 기독교 세력과는 이미 그 지역 내의 경합 관계에 있었다. 평안도 지역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평안도 일대는 서북 지방이 받아들인 차별에 대한 저항 의식과 양반제나 지주제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이 결합되어 프로테스탄티즘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고, 교육운동도 활발하여 많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 배경에서 정주 지역의 오산학교나 평양의 숭실대학 등은 기독교 세력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동학농민전쟁으로 초도화 되었던 남부 지역과 달리 북쪽의 중심이 이동했던 평안도 일대에는 1900년대 초반부터 천도교가 급속히 자리를 잡았다.

일정한 세력 균형을 가지고 있던 1920년대 중반, 천도교청년당과 기독교 세력 일부, 그리고 민족부르조아운동 세력 등 자치운동을 추진했던 그룹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본주의개혁론, 즉 점진적인 사회개혁(개조)의 방법론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고, 점점 커져가는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느껴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이상촌운동은 투쟁을 통한 사회변혁보다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자치력을 키운다는 논리와 연결되어, 식민지라는 조건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사회를 개조해갈 방법은 '자치'를 통한 공간의 확보라고 생각했

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 세력은 계급투쟁론의 입장에서 무산대중들의 조직화와 그들간의 연대를 통한 일본 제국주의 전복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었고, 그 입장에서 자치운동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잡아갔다. 1927년 좌우합작운동조직 신간회 결성, 1929년 원산총파업과 1930년대 초반의 혁명적 농민운동의 폭발은 노동자 농민운동의 주도권을 사회주의운동에서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활동이었다. 이 운동들은 조선총독부의 탄압에 의해 조직이 와해되어 지하운동화되고 말았다.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천도교 신파는 대외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위 조직인 천도교청년당 조직 강화를 추진했다. 이들은 좌파 진영의 계급운동이 계급독재를 통해 어느 한 부문만을 주권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평화로운 이상적 사회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 부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조정할 수 있는 전적운동을 의미하는 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들이 전적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부문 조직이 천도교소년회, 천도교내성단, 조선농민사, 천도교청년회, 조선농민사 등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세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그것을 통해 자치운동이 가능하리라 전망하였다. 공생조합운동은 그러한 시기에 자치운동을 위한 조직체로 활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일제의 황민화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천도교 신파의 친일화에 따라 공생조합운동은 농촌진흥운동에 흡수되어버리고 만다.

좌우합작을 기초로 한 신간회 운동을 전후하여 천도교 신파 세력은 민족해방운동 진영에서 떨어졌다.<sup>7)</sup> 1920년대 초기 민족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연대활동을 해오던 세력들이 서로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 공격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면서 연대는 깨어지고 말았다. 현상적

---

7) 천도교 구파는 신간회 결성의 주요 세력이었다.

으로 볼 때 공생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1930년대 초반 모든 사회 운동 세력은 그 운동의 꽃을 피우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연대가 깨어진 이후 곧바로 일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아 독자적인 민족운동/사회 운동 세력으로서의 역할은 급속하게 축소되고 말았다.

## 잃어버린 사회개혁의 방향성

친일화의 또 다른 요인은 이들을 포함한 자치운동과 실력 양성을 통한 점진적 사회개혁론이 사회개혁에서 자기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천도교 농민운동 세력들은 기독교 농민운동 세력과 더불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농업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나는 농민 자신의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 증가, 생활 개선 및 협동적 조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총독부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중심의 농정을 폐하고 소작농의 자작농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소작법 제정을 통한 소작제도의 개선, 농업 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생활형 농업으로의 전환, 공동경작과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협동적으로 영위하는 농민조직화, 저소득 빈농층에 저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조합 설립이나 금융조합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는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대공황의 타개책으로 선택한 파시즘농정으로 흡수되고 말았다. 일본 내부에서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제의 만주 침략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병참기지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농업공황으로 인한 농민들의 심각한 몰락, 사회주의 농민운동의 격렬한 조직적 저항, 조선인 자본가들의 조선인 본위의 정책 요구 등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와 맞물려 식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조선총독부는 농촌 통제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경제 개선을 통한 체제 내 통합

이라는 방향을 내세웠다.

농촌진흥운동은 표면적으로는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정신생활을 변화시켜 자주성을 회복시키고, 농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고리채를 저리 부채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자작농 창정을 위해 지주층에게 토지 매각을 설득하고, 농민들에게는 토지 구입 자금을 대출하며, 모범 농촌을 만들어 마을 전체의 생활을 개선한다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심지어 1930년대 중반 본격적인 전쟁기로 접어들면서 금융조합은 농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산계를 조직해갔다. 식산계는 농민 전부를 통제 조직 속에 편입시켜 전쟁 체제에 복무시키는 농촌조직화의 일환이었지만, 이를 통해 개별 빈농에 대한 농자금 대부가 가능해지고 공동 판매와 구매 조직이 전 농촌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동안 지주층을 농업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삼아 왔던 조선총독부로서는 농정의 커다란 전환이었고, 표면적으로 볼 때 농민을 배려한 정책이었다. 이는 그동안 일제의 농정을 비판해왔던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소작 문제의 해결을 강요해왔던 사람들은 소작 조건과 소작 관계를 완화해 줄 소작법의 제정 방향이나 자작농지 설정 사업을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천도교청년당은 농촌진흥운동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당연하게 자신의 산하 조직인 조선농민사와 공생조합의 활동을 농촌진흥운동과 발맞춰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공생조합운동의 자주성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천도교청년당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일전쟁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고 전국적인 교단 조직을 활용해 시국강연회, 특별기도회, 출정병사 환송 등 친일 협력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1938년 7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발기단체로 참여, 1939년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결성, 1940년 국민총력천도교연맹으로의 재편 등을 통해 관제 친일 기구의 일부가 되어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

동학농민전쟁을 통해 민족운동의 선봉에 섰던 이 조직이 친일에 앞장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이미 1900년대 초반 동학의 후예 중에는 일진회와 같이 문명개화와 인민의 생존권이 국가 주권보다 앞선다는 생각을 표명한 세력이 있었고, 1920년대 이들은 자치운동의 중심에서 있었다. 그것이 본격적인 전쟁 체제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인종주의, 나아가 인류주의와 결합되어 친일 논리로 전환되었다. 이미 시세는 세계 대결에서 승리할 일본에게 있으므로 그와 융화되어야만 새로운 신질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sup>8)</sup> 그 과정에서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가 공식 노선으로 천명되었다. 대동방주의는 더 이상 민족 독자의 생존을 모색하지 말고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이 협동하여 황인이 동양을 수호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취해 왔던 ‘민족개벽’의 포기였다.

“종교운동이나 정치운동의 최초 발단이 다 같이 개인주의 사상에서 시작하여 가지고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 민족과 사회를 통하면서 종교운동으로 정치운동으로 변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거니와 천도교 사상도 역시 그 경로를 밟아 개인주의로 민족주의로 인류주의에까지 도착한 것”이라 하여<sup>9)</sup> 민족을 넘어선 최종적 단계로서 인류애, 인류주의가 제시되었고, 동방은 인류애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설정되었다. 동방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조선민족의 권익과 문화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선민족 자치’는 포기되어야 하며, 두 민족의 융합을 통한 공동번영이 추구되어야 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새로운 ‘국가민족’ 속에서 내선일체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었고, 이런 국민화 논리는 모든 이상의 건설과 현실적 생존의 근거를 국가로 보고 국가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종과 헌신을 강조하는 국가지상주의로 연결되었다.

8) 여암(최린), 「천도교의 금후진로에 대하여」, 『신인간』, 1935년 5월호.

9) 조기간, 신앙의 경쟁과 제도의 재건, 『신인간』, 1936년 1월호.

## 개인과 조직의 자주성과 민주주의

천도교청년당이 친일의 길로 들어서는 결정을 할 때, 각 지역의 농민사원들이나 공생조합원들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또는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민족의식이 꽤 높았던 천도교인들 속에서 천도교 신파의 친일논리가 말단조직까지 확산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천도교청년당의 중앙집권적 조직체계의 한 부문 운동인 농민공생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에 주의를 둘 필요가 있다. 1932년부터 조선농민사는 ‘통제구’를 설치하여 농민사와 공생조합에 대한 통제와 지도 체계를 마련하였다. 공생조합중앙회도 농민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다. 중앙회 대표는 농민사 경제부장이 맡고, 지방공생조합 대표는 군 농민사의 경제부장이 겸직하도록 했으며 지방공생조합은 결성과 동시에 중앙회에 가입해야 했다. 천도교청년당의 결정에 따라 조선농민사는 어느 때고 공생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취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취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농민사와 공생조합이 행한 농민 계몽이 천도교청년당의 사회운동 방향과 점진적 사회개혁론, 자치운동론들을 일상적으로 학습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보자. 또한 이미 방대해진 천도교의 조직 체계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사회주의운동 조직들처럼 일제의 탄압에 집요하게 저항하면서 붕괴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의 보위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운(時運時變)’의 논리로 친일을 받아들였다.

그런 조건에서 개별 공생조합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활과 경영 부분에서는 자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질 수 있었지만, 전 조직의 운명이나 그 정치적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주체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조직에 참여하는 개인과 그 조직을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의 단위들 사이 자립성과 민주적 소통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상명하달의 중앙집권

적 조직 체계가 갖는 기본적인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천도교 신파의 이상촌운동이 친일과 결합되며 식민 정책에 흡수되어버린 것과 달리 천도교 내부에는 다른 흐름도 있었다. 천도교연합회는 천도교 내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전라도 등 남부 지역의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세를 형성했다. 남부 지역은 식민지 지주제의 폐해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난 곳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 의식이 더 컸다. 삼남 지방의 천도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은 토지 문제의 해결이었다. 당시 이들은 식민지 현실에서는 토지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만주로 이주하여 공동촌을 설립하고 그것을 민족해방운동의 기초로 만들려고 시도하거나 국내에서 신간회 조직에 참여하는 등 좌우합작에 적극적이었다.

이들과 천도교청년당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차이는 조직 운영 방식이었다. 이들은 천도교청년당이 갖고 있는 계급적이고 위계적인 차별제를 없애기 위해 개인 본위와 지방교회 중심의 교회 운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였다. 심지어 “교주와 소사의 봉급을 동일하게 하라”고 건의할 정도였다. 이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사회적·경제적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여 교주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하고 일반 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에 따라 협의제로 운영되는 제도를 만들려 하였다. 주권자의 독재제는 협의제로, 대도주의 천선제(교주의 지명에 의한 세습제)는 인선제로 변경하려 했고, 지방교회 중심의 교회 운영을 위해 성미금의 2/3을 지방에 주고 1/3을 연합회로 보내도록 함으로써 전 교회를 지방교회의 협의제적 성격을 띠는 연합회로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정신개혁의 핵심인 개인의 수기정심에 의한 심적 수양을 중시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등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인간성 발휘를 막는 계급 차별과 전제구속적이었던 제도와 식민 지배질서를 타파하고 인본적 개인 본위의 신제도를 만드는 것을 사회개혁의 핵심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 나아가 공산주의 사상과

인내천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았다. 연합회에 속한 상당수의 천도교인들은 천도교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함께 받아들였고, 신간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심지어 만주 지역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 무장투쟁 활동을 하려 고려혁명당을 조직하기도 했다.

고려혁명당은 “오등의 인간적 실생활의 당면의 적인 모든 계급적 기성제도와 현재 조직을 일체 타파하여 물질계와 정신계를 통해 자유, 평등의 이성적 신생활을 건설함,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항하는 우리들에 공명하는 피압박민족과 결합하여 동일전선에서 일치하는 보조를 취함”을 강령으로 삼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물질계와 정신계의 개혁을 통한 자유·평등한 세상에서 신생활을 영위하는 길은 민족해방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도 넘어서는 사회를 전망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써는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여러 세력들과의 통일전선,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는 여러 국가들과의 연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고려혁명당과 같은 무장투쟁까지 결합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자들과의 좌우합작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의 논리는, 천도교청년당에 비해서 세력은 약했지만 해방 이후 진행된 북한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입지를 갖는 관계망과 사회개혁론을 수립할 수 있었다.

해방 후 천도교계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 정치 조직인 천도교청우당은 남북한에 조직·운영되었고, 특히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은 30여만 명에 이르는 당원을 기반으로 북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이자 북조선 민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 정권 수립과 여러 사회개혁에 함께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북조선청우당은 당면의 임무를 “소비에트 연방 및 제 민주주의국가와의 우호를 강화한다, 모든 반일본 제 정당과 함께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한다, 모든 대규모 산업을 국영화한다, 토지를 국유화하여 빈농층에게 나누어준다, 국민교육 체계를 개선한다,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활발한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치·경제·문화·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 속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내걸었다.

청우당 당원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천도교인이었는데 대부분이 빈농이었다. 이들은 북조선공산당과 달리 토지 문제에 관해서는 국유화의 방향을 강조했던 것이 특징적이다. 그들은 ‘동귀일체의 신생활 이념에 기초한 신경제 제도의 실현’을 경제개혁론으로 제시했는데, 그를 위해서는 모든 약의 근원인 소유 제도를 철폐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화한 공장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개혁의 동일한 방향 덕분에 두 당은 1946년에 진행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남녀평등법, 노동법령 등의 민주주의 개혁을 함께 수행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협동농장화 과정에도 함께할 수 있었다. 공동경작의 경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 우리 안과 밖의 공생과 호혜사회

천도교공생조합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조직이고 활동이었다. 그 역사적 경험의 여러 측면들을 섬세하게 검토해본다면, 현재 우리의 협동운동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의 전환 논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영성과 생활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 논의를 협동조합을 통해 실현하고 새로운 이상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운동 속에 결합한 것이 천도교 공생조합운동이었다. 이는 동학(천도교)이 가지고 있는 세계 인식의 주요한 부분이다. 일상 속에 지상천국이 존재하며, 그것은 개인의 수양과 협동하는

호혜적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즉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구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 주체와 조직 주체가 자주성과 민주적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구조를 상실했을 때, 공생과 호혜의 구조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작동할 뿐 그 사람과 조직을 둘러싼 사회 구조는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잘 보여주는 경우였다. 같은 인내천 사상을 두고 아주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는 것 또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사상을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고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작은 공동체 속의 자족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전체 사회를 자기 속에 넣고 자신과 이웃,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호혜적 공생관계를 만들어가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세운다는 것일 테다.

또한 언제나 시민운동과 협동운동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가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것을 제도화시켰을 때 상당 부분 왜곡되어 버리는 경험을 많이 해왔다. 그럴 때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휩쓸려버린다. 특히 서로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합의하지 않고 주도권 경쟁에 빠질 때 그 결과는 늘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정체성과 지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연대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천도교의 공생조합이나 이상촌운동을 넓게 본다면 그 속에서 남북한 양측의 협동운동에 대한 공통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안목으로 볼 때, 현재의 남북한 사회구조가 동떨어져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에서 갈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는 협동운동의 바깥에 놓여있는 남북한 관계를, 서로의 바깥에 놓여있는 관계로서가 아니라 이미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내부적 존재로 보고 공존과 공생,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 갈 방

법을 모색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한다면 남북 간, 그리고 두 사회가 각각 협동사회, 공생사회로 전환해갈 물꼬를 열 수 있지 않을까? ●

## 참 고 문 헌

---

- 조성운. 2003. 일제하 조선농민공생조합의 조직과 활동. 『동학연구』 13.
- 조성운. 2003. 일제하 맹산군농민사의 활동과 민족운동. 『정신문화연구』 26권 2호.
- 정용서. 2004.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의 정치노선과 활동(1945-1948). 『한국사연구』 125호.
- 정용서. 2011. 일제말 천도교세력의 친일활동과 논리. 『한국근현대사연구』 58집.
- 김정인. 2009. 『천도교 근대민족운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 조규태. 2006. 『천도교 민족운동 연구』, 선인.
- 허수. 2011.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 김형미 외.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 이경란. 2013.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102호.
-



## 들어가며

### 다 모르고 조금 아는 것에 대해 씀

이 글의 한계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겠다. 농사에 대한 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농사는 아마 전 세계 각 지역마다 다 다를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차가운가, 따뜻한가, 뜨거운가, 긴가, 짧은가, 땅이 넓고 평평한가, 비탈지고 좁은가, 흙이 검고 기름진가 허영고 메마른가, 비가 잦고 많은가, 드물고 적은가, 산이 많아 물을 머금었다가 고르게 내보내주는가, 아니면 평지가 넓어 물을 머금지 못하고 한꺼번에 흘려보내고 마는가, 땅이 하늘에서 가까운가 먼가, 땅에 얹혀사는 사람들이 빼곡한가 성긴가 등등에 따라 농사는 다 다를 것이다. 한마디로 보편적인 농사는 없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농사를 짓는 지역은 매우 좁다. 기껏해야 요하 동쪽,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부르는 땅과 한반도, 일본 정도인 것 같다. 이 세 지역은 나라가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산과 물과 바람과 풀과 나

---

\* 2001년 귀농해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농사꾼으로 살며 농업, 농촌 관련 글을 쓰고 있음.

무는 다르지 않다. 농사에 대한 내 앓은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좁은 지역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농사는 또 너무나 오랜 것이어서 시대마다 다 달랐을 것이다. 아주 느리고 더디기는 했겠지만 씨앗도 달라졌을 것이고 농사짓는 도구나 기술, 방법, 사회적 환경, 즉 토지 소유 방식이나 세금 내는 방식 같은 것들도 계속 변화해 왔을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쌀의 경우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농사지었을 리 없다. 논의 넓이를 헤아리는 말 중에 ‘마지기’가 아직 살아 있다.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이렇게 쓰는데, 지역마다 한 마지기 면적이 다 다르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한 마지기가 많게는 250평에서 적게는 120평까지다. 80평 한 마지기가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가?

마지기란 말은 ‘말지기’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나락 한 말을 뿌려서 농사짓는 논의 면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한 말 두 말 하는 ‘말’은 부피 개념이다. 무게가 아니다. 정교하게 무게를 헤아리는 저울보다 일정한 크기의 그릇을 만들어 기준을 삼는 편이 더 쉬웠기 때문에 저울보다는 말이 널리 쓰였을 것이다. 열 말이 한 가마다. 가마는 일제 때부터 쓰인 단위다. 그 전에는 섬 혹은 석이 쓰였다. 말질에 도통한 사람은, 쌀이나 나락을 받을 때는 나락이나 쌀알을 가지런히 눕혀서 말질을 하고, 내줄 때에는 쌀알을 다 일으켜 세워서 말질을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전해온다. 땅이 기름지고 날이 늦게까지 따뜻한 지역에서는 씨앗을 성기게 뿌려야 한다. 포기별기가 잘 돼서 장차 크게 넓게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씨앗 하나가 자라서 차지할 자리를 충분히 두어야 한다. 그래야 씨앗도 아낄 수 있고 수확량도 많다. 이때 씨앗 한 말로 지을 수 있는 논의 가장 넓게는 250평 정도 된다는 얘기가. 한편 봄에 늦게까지 서리가 내리고 가을에도 일찌감치 추워지는 데다가 땅도 척박한 산간 지역은 장차 다 자란 포기 하나하나가 차지할 자리가 좁다. 다 커 봐야 조그만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촘촘하게 씨앗을 많이 뿌려야 일정한 면적에서 가장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촘촘하게 뿌리는 게, 대략 나락 한 말을 120평 정도 되는 땅에 뿌린 것이다. 이것이 '마지기'라고 하는, 눈을 헤아리는 말에 대해서 내가 들은 설명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다소 길게 마지기에 대해 자세히 쓴 이유는 "뿌린다"에 있다. 씨앗을 뿌리는 농사가 보편적이었을 것이란 소리다. 지금과 같이 모를 먼저 길러서 무논에 옮겨 심는 방식은 긴긴 농사 역사에 비춰보면 극히 최근에 발생한 사건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추측할 따름이지 잘 모른다. 내 앞이 가 닿는 시간의 거리는 매우 짧다.

이 글은 연구가 아닌 경험에 의지한 글이라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이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시작한다. 이를테면 자연환경이 우리와는 전혀 다를 것이 틀림없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서기 1,200년쯤에 혹은 지금,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짓고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전혀 모른다.

흔히 농사는 하늘이 짓고 사람은 거들 뿐이라고 한다. 빈 소리가 아니다. 하늘은 자연이다. 마치 갓난아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자라듯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 힘으로 자란다.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나왔을 테고, 하늘이 하는 일 거드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 속의 개체이다. 사회적 조건에 따라 늘 다른 '사람'이다. 사회적 조건을 분리해서 떼어버리면 구체적인 사람이 없다. 비유하자면 집단생활을 하는 개미나 꿀벌을 관찰한다고 할 때, 집단과 동떨어진 개미 한 마리, 벌 한 마리가 하는 일에만 눈길을 뒤희는 그 개미나 벌이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는지 올바르게 알기 어렵다. 한 마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걸 봐야 비로소 생명체 하나하나가 하는 일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 글에서 나는 힘이 닿는 대로 논밭과 집안, 마을을 오가면서, 옛날과 지금을 넘나들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써 보려 한다.

##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게다가 ‘새참’도 두 번이나 있는 삶을 산다

내 머리 속에 꽤 깊게 남아 있는 기억이 있다. 어린 시절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다. 자다가 깨어나 보니 동네 아저씨들이 방안에 가득했다. 밥을 잡숫고 계셨다. 둥그런 밥상에 둘러 앉아 고봉밥을 맛나게 잡셨다. 고봉밥은 크고 깊은 ‘스랭’ 밥그릇 위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밥이다. 밥그릇 안에 담긴 만큼 밥그릇 위로도 밥이 솟아 있다. 고봉밥은 먹을 줄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저씨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착착 접어서 한 숟가락 가득 뜬다. 그 위에 김치 쪼가리를 하나 얹는다. 입이 찢어질 만큼 크게 벌리고 한 입 가득 몰아넣는다. 우걱우걱 씹어 먹는다. 한참 씹다가 된장국물 한 숟가락 떠 넣는다. 농사를 짓고 살아서 그런지 유난히 그때 봤던 그 장면이 점점 더 또렷해졌다. 나도 요즘은 그때 그 아저씨들처럼 밥을 먹는다. 꿀맛이다. 그날 아저씨들은 하루 종일 지게질을 하셨다. 멀리 있는 논에서 우리 집 마당으로 벼단을 저 나르셨다. 벼단 나르는 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라 다른 일 품값의 배반(150%)을 쳐서 셈했다. 일은 새벽 고봉밥 먹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만일 부엌에서 고봉밥을 지어 내줄 엄마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쌀쌀하고 해 짧은 가을, 엄마는 일 오신 아저씨들보다 못해도 한 시간 전에는 일어나셨을 것이다.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뜨물은 따로 받아서 등겨 두어 줌 놓아서 돼지한테 갖다 주고, 벼단으로 불을 지펴서 왕겨를 넣어 불을 세차게 몰아 때다가 밥솥 옆구리로 피식피식 밥물이 끓어 넘치면, 뚜껑 열어 주걱으로 잘 뒤적여주고, 불길을 낮춰 약하고 은은하게 때면서, 밥솥에서 밥물이 끓어 넘치지 않고 뜸이 잘 들게, 행주를 물에 적셔가며 연신 솥뚜껑을 닦아 주셨을 것이다.

농사는 만사萬事다.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일은 시작된다. 이불 개고 방 쓸고, 방바닥 닦고 세수하고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어서 밥 먹고 송

농 마셔야 논밭으로 나간다. 가족 중 한 사람은 남아서 설거지하고 새참 준비하고 빨래도 하고 가축도 돌봐야 한다. 요즘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농사꾼은 늘 뭔가 하고 있는데, 다 일이다. 바깥 마른 콩 터는 것으로 가을걷이가 대충 끝나고 날이 점점 추워지면 겨울 날 준비를 해야 한다. 집 단도리도 해야 하고 땀감도 마련해야 한다. 농사가 한창일 때라도 상하수도나 전기가 말뽕을 부리거나 문짝이 틀어져서 이가 잘 안 맞기라도 하면 농사일 잠시 미뤄두고 팔 걷어 부치고 연장 들고 매달려야 한다. 논밭에 나가 하는 일은 살아가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논밭 일이 바쁘고 급할 때는 쉬는 것도 일이다. 쉬어야 할 때 못 쉬면 일을 할 수 없다. 한 여름철 낮잠은 밤잠만큼이나 중요하다. 툼툼이 마실가서 이웃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일이다. “아무개네 밭이 도지 몇 가마에 나왔다더라.” “아무개한테 연락하면 품을 얻을 수 있다더라.” “아무개네 집 콩이 실하고 소출이 많으니까 구해서 씨 하면 좋다더라.” 같은 고급 정보도 마실가서 수다를 떨어야 얻어들을 수 있다.

농사는 그 자체로 일이고 곧 삶이다. 일상과 일이 구분되지 않는다. 자본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의 노동은 없다. 간혹 특별한 형태의 고용, 즉 머슴과 주인의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 농사는 뿔뿔 빠지는 일이다 빠른 세대교체와 늘지 않는 인구

나는 농촌에서 나고 자랐다. 우리 형제자매는 일곱이다. 어머니는 여덟을 낳으셨고 하나를 잃으셨다. 다른 집도 가족 숫자가 우리 집과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나는 농촌에서는 어느 집이나 어느 시대나 자식을 이만큼씩 낳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재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수원 백가 32세

손인데 시조부터 나까지 이어지는 가계도를 보면 거의 외줄로 그어져 있다. 가계가 번성하지 않았다. 고려나 조선 시대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은 이래,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숫자는 천만 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인구밀도는 낮았고 세대교체는 빨랐다. 인구는 거의 늘지 않다시피 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정된 농지와 고된 농사일에 있다고 본다.

애들은 자라서 열다섯 살 즈음이면 벌써 어른 한 몫이다. 스무 살 즈음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얘기하기 편하게 아버지라 하자.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한 몫의 일을 해내는 때는 다시 열다섯 살 즈음이다. 아버지는 서른다섯 살이다. 아이가 스무 살이 되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버지는 이제 마흔인데, 손주를 봤다. 이런 방식으로 죽 나가면 할아버지(60세)-아버지(40세)-아들(20세)-손주(1세)로 구성되는 부계 4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이 되는데, 이 집의 큰일을 도맡아 하며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맡은 대들보는 누구일까? 물론 농지는 한정돼 있다. 한 집안이 지어먹는 농지는 지금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경작권만 있지 처분권은 없는 집안 공유지로서의 의미가 강했을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땅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물처럼 흘러 지나갔을 것이다. 만일 아들이 둘이라면, 집안 농지의 경작권은 당연히 만이에게 가겠지만, 만일 만이가 가족 부양을 거부한다면, 경작권은 둘째에게 가는 식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는 적당한 때에 아들에게 지은 집을 넘겨주고 물러나 있어야 한다. 사십대 중반쯤이었을 것이다. 열다섯 살쯤 시작해서 마흔 다섯 살까지 삼십 년을 일했으니, 이제 더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 만큼 일한 것이다. 말이 그렇지, 소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고는 하지만 농기계 없이 몸으로 때우면서 삽이나 쇠스랑, 가래 팽이 호미 같은 걸 들고 논밭을 일궈 먹고살 만큼 소출을 내야 하는 농사는, 삼십 년이 아니라 삼 년, 삼 년이 아니라 석 달만 하라고 해도 우리 같은 약골은 쓰러져서 일어

나지도 못 한다. 먹고사는 농사는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뗏  
골 빠지는 일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분들께서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허깨비 같다고 해도 어른 남자가 있어야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  
다. 지금도 그렇다. 자식들이 다 도시로 나가서 노인 부부만 사는 집을 들  
여다보면,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자기 땅을 부치며 살지  
만, 바깥 노인네가 돌아가시면 자기 땅을 도지로 내놓고 할머니들은 품을  
팔러 다니신다. 아들을 낳지 못 하면 양궐을 들여서라도 아들자식을 두려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이듦'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자식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잃은 뒤에 기댈 수 있는 유  
일한 의지처였을 것이다.

하고 싶은 얘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보자면, 농사  
가 중심인 사회에서 '일'은 농지가 한정돼 있다는 조건과 복합적으로 작  
용하면서 빠른 세대교체와 일정한 인구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농사일의 강도가 스스로 인구 억제  
력을 가질 만큼이나 컸다는 얘기가이기도 하다.

## 때 맞춰 일 한다 어찌 해 볼 수 없는 완전한 종속

열었던 땅이 녹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짧았던 해가 길어지기 시  
작하면, 백 미터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처럼, 농부들은 일제히 일을  
시작한다. 일단 시작하면 땅이 퐁퐁 얼어붙을 때까지 멈출 수 없다. 심을  
때 심어야 하고, 물 댈 때 물 대야 하고, 김매 때 김매야 하고, 거둬야 한다. 누구나 똑같다. 자연은 사람들 사정을 눈곱만큼도 봐주지 않  
는다. 미처 김을 다 못 땀으니 딱 한 시간만 있다가 비를 내려달라고 아무

리 사정해봐야 헛일이다. 바람이 구름 몰고 와서 쏟고 싶을 때 쏟아낸다. 때를 놓치면 다음 일이 몇 배로 힘들어진다. 때를 놓치면 수확이 보잘 것 없다. 오랜 경험으로 누구나 이 사실을 안다. 농사꾼이라면 누구나 때 맞춰 일하고 싶다.

봄에 심는 수미 감자는 100일을 자라야 여문다. 우리 동네에선 빨라봐야 3월 20일 지나야 땅이 녹는다.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중부지방까지 치고 올라오는 때는 7월 10일 전후다. 일 년 중에 가장 해가 뜨거워지는 때는 7월 20일부터 8월 15일 사이다. 이른바 삼복더위다. 감자를 캐지 않고 밭에 두면 큰 것부터 썩는다. 어떻게든 7월 10일 전에 감자를 밭에서 다 꺼내야 한다. 그래야 아주 뜨거운 날 피해서 고생도 덜하고 감자도 안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7월 10일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4월 1일 이전에 감자를 심어야 한다. 3월 20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거름 내고 로터리 치고 두둑 만들고 비닐 씌우고 씨감자 잘라서 심어야 한다. 이때는 비도 잦다.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바로 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루나 이틀 기다렸다가 밭에 들어가야 한다. 마음 바쁘다고 진 밭에 들어가서 흙을 헤집어 놓으면 흙이 딱딱해져서 삼도 안 들어가는 땅이 되고 만다. 일하기로 잡아놓은 날에 비가 와버리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 애가 바싹바싹 탄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농부들이 빚을 내서라도 비싼 농기계를 집집마다 다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한테 부탁해서 하다보면 내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일을 해야 할 때 못하면서 일이 밀려가기 쉽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순발력 있게 일을 탁탁 치고 나가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농사는 농사대로 망가져버린다.

집집마다 감자를 심는데, 일은 많고 일에 동원할 자원은 부족하다. 흙을 헤집어 자리를 만들고 자른 씨감자를 넣고 모종삽으로 흙을 두어 삽 떠서 씨감자를 덮는 일을 아침 여섯 시부터 저녁 일곱 시까지 한다고 할 때, 피부리지 않고 즐기치게 일할 수 있는 숙련된 일꾼일 경우 하루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150평에서 200평 정도로 본다. 가령 2천 평에 감자를 심으려면 감자 심는 일꾼만 최소 열 명이 필요하다. 일이 중간중간 끊기지 않고 계속 심어나갈 수 있게 길에서 밭 가운데로 씨감자를 날라다 주는 품도 있어야 한다. 점심밥과 오전 오후 새참도 준비해야 한다. 사람이 딱 맞고 일이 걸림 없이 가면, 예를 들면 씨감자가 부족해서 다 못 심는다든지 일하는 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없이 순조롭게 가면 하루 만에 일이 끝난다. 열두 품이 들어간 걸로 보면 되는데, 혼자서 12일 동안 일해도 이천 평 감자밭 감자를 다 못 심는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 아픈 부위가 더욱 심하게 아파서 날이 갈수록 일의 양은 줄어들게 마련이고 심어 가는 중간에 반드시 탄 볼 일도 생기고 비도 온다. 일은 질질 늘어지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간다. 어떻게든 열두 품을 만들어서 하루에 싹 해치우는 게 최고다.

일을 다 해내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누구나 내 일을 먼저 하길 바란다. 계속 비유해 말하자면 한 동네 농사꾼들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끝내야 하는 백 미터 달리기를 하는 셈이다. 그 외중에 혼자서는 뛰어넘기 힘들고 힘을 합해야 건널 수 있는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두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성공하기 위한 경합을 벌인다고 말할 수 있다. 품앗이나 두레는 그래서 생겼을 것이다. 기계가 없던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계로 웬만한 일을 다 하는 요즘에도 큰일은 혼자서는 못 한다. 여러 사람이 손 맞춰 해야 할 일이 있다.

혼자서 하는 일도 물론 그 나름 일하는 맛이 있지만, 우르르 몰려가 서로 어울려서, 혼자서 하면 여러 날 매달려 해야 할 일을 단숨에 해치우는 통쾌한 맛이 있다. 우리 동네에서는 매년 봄에 하우스 파이프 박는 일을 품앗이로 한다. 하우스 파이프는 애호박 덩굴을 유인할 지춥대 역할을 하는데, 8미터짜리 파이프를 반원으로 둥그렇게 말아놓은 것이어서, 혼자서 보다 둘이서 다루는 편이 훨씬 쉽고 편하다.

품앗이가 깨지지 않고 잘 가려면 ‘무조건’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내 일이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서로 품앗이 하는 사람이 일할 날을 잡으면 무조건 가야 한다. 일단 일을 가면 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깨진다. 나는 가서 일 해줬는데, 내가 필요할 때 불렀는데 안 오면 계속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 온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 들면 그 사람과 계속 일하기 어렵다. 네 품 하나와 내 품 하나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품앗이나 같은 일을 순번을 정해 차례대로 해 나가는 방식의 두레는 잘 들여다보면 등가교환이 아니다. 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다. 땅이 많은 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다. 일을 잘 하는 데 따르는 보상은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웃들의 ‘인정’과 ‘존중’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때를 맞추기 위해 사람들은 경합하고 협력한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경합이 아니다. 목표는 모두가 이기는 것이다. 누구에게 이긴다는 말인가? ‘때’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이다. 도무지 어찌 해볼 수 없는 완전한 종속이다. 하늘, 혹은 ‘때’라는 절대적인 조건 아래서 농부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양보도 하고 고집을 세우기도 한다. 보통 선대에서 이어 내려오는 전통은 그것이 전통이라서 지켜진다고보다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서 이어진다.

## 농사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다 누구도 어찌지 못 하는 완전한 자유

화창한 봄날이었다. 얼었던 땅이 녹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얼었다 풀린 질척한 땅을 밟았다. 아내가 호미를 들고 집 앞 텃밭에 앉아 밭을 일구고 있었다. 상추씨를 뿌릴 참이었다. 동네 할머니 서너 분이 밭 옆으로 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내가 일하는 걸 보고 소리를 냅다 지르셨다.

“새댁! 일하면 안 돼. 일하지 마!”

이미 구댁이 된지 오래인 아내지만 새로 이사 들어온 젊은 아낙이라 동네 할머니들한테는 새댁이다. 난데없는 할머니들의 외침에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요?”

할머니들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호미귀신 붙으면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

할머니들은 자기들끼리 어린 아이들처럼 깔깔대며 연신 호미귀신을 들먹이면서 지나가셨다. 호미귀신은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 농사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때 맞춰 거름을 내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마침내 먹는다. 농사는 그래서 ‘지어 먹는다’고 말한다. 시골에서 농사지며 살다가 마치 못해 도시로 나간 할머니들은 도시에 나가서도 빈 땅만 보이면 씨앗을 뿌린다. 유심히 둘러보면 뭔가 심어 먹을 만한 땅에는 어김없이 먹을 만한 게 심어져 있다. 농사를 지었던 사람에게 농사는 본능에 가까운 욕구다. 이를 ‘경작본능’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다. 재미삼아 얘기를 조금 더 밀고나가 보자. 인간에게 본능을 심어서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DNA라고 한다면, ‘농사DNA’라는 걸 가정해 볼 수 있다. 우리 속에는 최소한 일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갖는 농사DNA가 장착돼 있다. 실제 DNA는 아니지만 DNA 비슷한 농사DNA와, 여기서 비롯되는 (실제 본능은 아니지만 본능 비슷한) 경작 본능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재미있다. ‘누구나 농사지를 때 행복하다’, ‘혹은 농사를 지으면 행복을 느낀다’, ‘혹은 행복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등이다. 본능에 충실할 때 사람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다. 배불리 먹었을 때, 시원하게 땀 누었을 때 느끼는 그 평화로움 말이다. 땀 비질비질 흘려가며 갈고, 심고, 김매고, 베거나 뽑고, 묶고, 날라서, 말려서 털고 고르면서 느끼는 쾌감이 있다. 게다가 그 결실을 먹기까지 한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지를 때가

가장 좋다고, 행복하다고,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그저 농사만 짓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흔히 말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거나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조차도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농사는 의식이 아니라 손과 발, 몸뚱이에 새겨진 오랜 기억이다.

나는 농사 DNA가 아마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를 멀리 쿠바에 가서 보았다. 그 나라 사람들의 역사는 불과 400년이다. 원래 살던 사람들은 모조리 살해되고 이주해온 사람들이 땅 주인이 되었다. 그 사람들은 광산을 찾아 파헤치거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을 뿐이다. 사회혁명 이후에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에는 빈 땅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사람들은 굶주리면서도 땅을 일구지 않았다. 정부가 밭 벗고 나서서 농사를 가르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떼기 밭이 듦성듬성 아주 조금 있을 뿐이다. 없는 것을 봐야,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뭔가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 아하, 일만 년이 넘는 농사 전통, 농사DNA, 경작본능,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했다.

땅 위에서 농부는 왕이다. 작물과 농부 사이에서 농부는 절대적인 무한한 권력을 가진다. 심고 싶으면 심고, 뽑고 싶으면 뽑는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린다. 모든 권한이 농부 손에 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쉰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조언이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남의 농사에 이래라 저래라 해선 안 된다. 금기禁忌다 (물론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 땅을 먼저 지었던 사람, “부모”는 예외다.). 그래서 농민들은 대체로 독불장군이 많다. 쉽게 꺾이지 않는 고집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보내는 농사꾼의 본성 비슷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 무시무시한 자연에 맞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명 본연의 수성獸性이 남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하늘에 대한 완전한 종속, 땅 위에 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는 서로 쌍을 이룬다. 완전히 종속돼 있으면서도 완전한 자유를 동시에 누린다.

## 내가 누구인지 다 안다 생겨먹은 대로 살아가는 편안함

논밭에는 그 논밭을 지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십 년 전에 내가 화천으로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을 얻어 산 땅은 흥천집 아주머니와 송씨 아저씨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처음으로 마련한 땅이었다. 그전 땅 주인이었던 황씨 아저씨는 고아로 어렸을 적에 동네로 흘러들어온 사람인데, 젊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한 데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젊은 사람이 아깝게 일찍이 병을 앓았다. 밤에도 관솔불 밝히고 돌밖에 없는 산비탈 땅에서 지게로 돌을 저 날라 가며 밭을 만든 사람이라 ‘도깨비 황씨’로 불렸다. 아직 젊은 황씨 아저씨 부인 최씨는 이웃 마을 00리에서 시집왔다. 최씨 집안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였는데, 아들 하나는 지금도 그 마을에 살고 있다. 황씨 아저씨와 최씨 부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큰 애도 아직 어린 데다 이제 갓 태어난 핏덩이를 버려두고 특하면 술주정부리는 병든 남편을 피해 최씨 부인이 집을 나갔다. 논밭에 얽힌 얘기는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흥천집 아주머니와 송씨 아저씨 그리고 흥씨 아저씨와 최씨 아주머니의 개인사와 가족사는 동네 사람들과 얽히고설키면서 삼사 대대를 오르내리며 장대한 대하드라마로 오래오래 펼쳐진다. 그러다가 얘기 맨 끝에 가면 드디어 나도 등장한다. 송씨 아저씨가 칠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흥천집 아주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도시로 나간, 내 또래쯤 되는 둘째 아들이 꽃 도매상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는 바람에 사는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되니까 보다 못한 흥천집 아주머니가 벌써 일 년 전에 팔려고 내놨는데 작자가 없어서

못 팔던 땅을 이제 나에게 팔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용호리 000번지 땅은 동네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의 장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다. 농사꾼이 짓는 논밭은 단순한 생산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장구한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는 역사의 장場이다. 지금 농부가 호미나 삽을 들고 논밭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긴 세월에 온몸으로 동참해서 역사의 맨 끝장을 써내려가는 중인 것이다.

삼대三代가 공덕을 지어야 명당에 터 잡고 산다거나 삼대가 공을 들여야 인물이 난다거나 시골 내려가서 동네 사람 되려면 삼대가 걸린다거나 하는 얘기들이 있다. 특히 삼대가 나온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흥 아무개가 기초단체 의원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검증이 삼대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놈 할애비가 전에 문중 땅 다 팔아먹은 그 영감탱이라든가 뭐 이런 흠이 있으면 흥 아무개는 이미 글렀다. 사람들은 함께 살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뭘 해서 벌어들였는지 다 안다. 함께 내내 살아오면서 서로 다 봤다. 숨기려야 숨길 수도 없고 거짓으로 꾸며 말해봐야 비웃음이나 살 뿐이다. 그러니 시골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라면 그 집안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높은 성취를 이룬 훌륭한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일도 다 안다. 함께 살았고 함께 살아 왔으니 모를 게 없다. 바꾸어 얘기하면 애써 꾸미고 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꾸며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누가 뭐랄 사람이 없다. 서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간다. 농사꾼은 제 삶의 주인공이다. 생긴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특별히 남에게 피

해 줄 일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특별히 피해를 볼 일도 없다. 좋으면 어울리면 되고 싫으면 피하면 된다. 그저 생긴 대로 살면 된다.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조건은 없을 것 같다.

## 마치며

### 농사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업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 산다. 대한민국만 해도 도시화율은 90%에 다다랐다.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산천을 따라 넓게 퍼져서 살던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몰려들어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사는 방식은 인류에게 낯설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낯선 삶의 방식은 개인·사회·지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스스로 혹은(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하고(받고) 존중하지(받지) 못하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연대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치 정글처럼 경쟁적 관계만이 부각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공동체 붕괴의 문제,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떠받치기 위한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이다. 소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인류 문명의 현재를 위기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고자 할 때, 농사가 거론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농사는 가장 손쉽고도 가장 확실한, 검증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농사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 농사짓는 일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노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이 점을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이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구분해 사용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을 하는 농부는 자기 삶의 주인이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공장이나 사무실이 아닌 논이나 밭에서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일한다. 농부와 농부 사이의 경쟁과 협력은 자연이 강제하는 조건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다. 농부들은 위계적 질서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연대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삶의 터전이 땅이고, 농부는 웬만해서는 농사짓는 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 살림의 길

---

## 생명문화

### 종교적 혁명의 가능성

국제포럼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  
공동체의 역할” 참가기

- 이찬수

## 생활협동

### 협동조합 붐이 끝난 뒤

: 베네수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하만조

## 사회실천

위기의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

- 정규호

# 종교적 혁명의 가능성

국제포럼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 공동체의 역할” 참가기

## 악순환을 끊으려는 이들

세계가 신자유주의라 하는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다. 신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시장만능주의이다. 정부의 통제도 가능한 자체하고 기업의 자유 경쟁에 맡기자는 논리이다. 그래야 더 많은 자본이 창출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인간사에 자본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요새만큼 자본을 신처럼 추구하는 세상도 일찍이 없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자본으로부터 초연해야 할 것 같은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단체도 자본을 무시하고서는 운영되기 힘든 시절이다. 종교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마음이나 자본을 증식시키려는 마음이나 일종의 욕망이라는 점에서는 오십보백보다. 욕망이 팽창으로 이끌고 팽창은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악순환 구조에서 사회나 종교나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현실을 염려하면서 무한 질주를 멈추고 삶의 동력을 내적 평화에서 찾는 종교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가능한 한

---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종교학

평화적 영성을 추구하며 자급자족적 소규모 생태 경제의 모델도 보여준다. 현대인에게 대안적이라 할 만한 삶을 살아가려 애쓴다.

그런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을 염려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2013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불광사(서울 잠실 소재) 중창불사 낙성 기념으로 열린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국제학술포럼이 그것이다.

## 어떤 국제 학술 포럼

국제학술포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학문적 혹은 이론적 연구 모임은 아니었다. 인간 삶의 유기적 관계성을 의식하는 가운데 더불어 천천히 살아가는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생활해나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불광사 창건주 광덕스님의 표현대로 하면,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고 나와 우주가 한몸으로 엮인 ‘반야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국제포럼에서는 일곱 개 나라의 초종파적이며 영성적인 종교공동체 지도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취지, 운영 내용 등을 차분하게 소개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홍보 부족 탓이었는지 그런 흐름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 탓인지 일반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냥 넘기기에는 아까운 당시의 분위기를 대강이나마 소개해보고자 한다. 그 자리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1. “**턱넛한 스님과 조화롭고 깨어있는 수행 공동체 플럼빌리지**”  
베트남의 턱넛한 스님이 시작한 프랑스의 대표적 수행공동체  
턱찬팜캠플럼빌리지 아시아생활불교연구소 소장 발표
  
2. “**생태적 기업과 나눔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쇼케 공동체**”  
상좌불교와 대승불교 정신을 수용해 최소한의 물질만으로 ‘복짓기’ 정신을 실천하면서 자급자족하는 태국의 공동체  
피콜 와니차피차트태국 송콜라 국제불교대학 집행위원 발표
  
3. “**퀘이커 공동체 펜들힐의 정신: 신의 임재와 세상의 치유**”  
대표적 영성적 평화운동 공동체인 미국의 퀘이커 연구센터  
스티븐 A 스미스클레어몬트 메케나대학 명예교수 발표
  
4. “**떼제 공동체와 젊은이들: 희망과 의미를 찾아서**”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교적 일치를 강조하며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공동체  
앤써니 수사서강대 명예교수 발표
  
5. “**성운대사의 인간불교 이념과 특징**”, “**승가와 재가의 평등을 지향하는 불광산사와 불광회**”  
붓다의 가르침을 ‘인간불교’로 규정하고서 도덕적 불교로 승가와 재가의 평등성과 구성원 모든 이의 보살도를 구현하려는 대만 불광산사  
마오광대만 불광산사 국제부장, 마오판불광산사 인간불교연구소 연구원 발표
  
6. “**승가와 재가가 함께 만드는 세계적 수행공동체 마하시 명상센터**”  
위빠사나 수행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구현하는 미얀마의 공동체  
덤마나나마하시 명상센터 국제불교포교학교 교수 발표

## 7. “한국의 불교공동체와 불교의 미래”

한국 사회에서 생태적 정신에 입각한 불교적 마을공동체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길상사의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및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조화시키고 있는 정토회

유정길전 에코붓다 대표 발표

## 8.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승가의 현대적 모델을 위한 모색”

사부대중이 다 함께 다른 종교도 포용하며 붓 생명을 구제하는 종교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

조성택고려대 교수 발표

## 무언의 공통점

전체적으로 불교적 생활 및 수행 공동체에 대한 소개가 많은 편이었지만, 그리스도교적 수행 공동체에 대한 소개도 적절히 조화를 이룬 자리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원칙, 방식, 소소한 일상사 등이 비교적 소상하게 발표되는 과정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이들 공동체의 공통점도 드러났다.

첫째, 이들은 기본적으로 초종파적 생활공동체였다. 공동체의 토대는 특정 종교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개별 종단의 이념을 넘어 다양한 종교인들을 포괄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내적 평화를 이루고 그것을 사회화하는 데 종단이나 종파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한결같았다.

둘째, 외형적으로는 200여 명의 불자가 청중으로 참석했던 불교적 행사



자'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고는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었고', 그 '나눔'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포럼 발표자들도 달리지만 말고 걷고, 걷지만 말고 앉으며, 앉아서 깊이 명상하는 데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내적 영성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인간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으로 나눔의 평화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체험적 증언도 내놓았다.

무한 경쟁으로 급격히 팽창해가는 세계 질서 속에서 진정한 변혁은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제자리를 찾아 앉는 데서 시작된다. 앉아야 보인다. 종교적 혁명은 차분하게 앉는 데서 시작된다. 일어서서 하는 혁명에는 총칼이 필요하지만, 종교적 혁명은 멈추어 앉음, 성찰하며 나눔에서 시작된다. 그럴 때에야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걱정되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옳겠는지도 확연해진다.

고려시대 많은 사람들이 들野에 단壇을 쌓고 앉아 불법法을 가르치고 듣는 자리席이 있었는데 그것이 야단법석野壇法席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면 먼저 앉아야 한다. 일상의 분주함을 잊고 고조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내적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법을 되새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식의 종교적 혁명은 햇불을 드는 봉기보다도 차분히 내면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번 포럼의 발표자들은 이러한 삶만이 결국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며 직간접적으로 증언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모두들 저마다 좋은 얘기만을 던져놓았고 좋은 이야기만 토론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취지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여럿 모인 곳이라면 문제점도 있기 마련일 테니 그런 것은 뭐 없겠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고, 그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질문이나 추궁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들은 이상적 비전에 따라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다는 차분한 자부심이 더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 역시 이들이 어두운 구석을 숨기려 했다기보다는 공동체적 삶에서 느끼는 만족과 자부심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자부심을 진정성 있게 전하려는 마음이 대단히 커 보였다. 하긴, 좋은 이야기 전할 시간도 부족한데 굳이 나쁜 이야기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불교적 행사였지만 불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오랜만에 실속 있는 포럼을 경험했다.●

## 협동조합 붐이 끝난 뒤

: 베네수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약 3천 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곳곳에서 급속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높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협동조합 붐을 경험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약 30만 개 협동조합이 설립된 바 있다. 조건은 다르지만, 앞선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현재 일고 있는 협동조합 붐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은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 건너온 예수회 사제들에 의해 극빈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sup>1)</sup> 그러나 1950년대 히메네스 독재 시대에 대부분 사라졌다가, 1958년 히메네스 퇴진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1966년에는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었다. 원로 협동조합 운동가인 루이 델가도 Luis Delgado Bello에 따르면, 당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1)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마이클 폭스, 조조 파렐, 2012.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임승수, 문이열 옮김. 시대의창.

시 협동조합 운동의 동력은 미국으로부터 왔다. 미국은 쿠바 혁명의 승리가 남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릴라나 혁명적 운동 말고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라틴아메리카 정책을 펴나갔다. 이때 설립된 협동조합은 ‘전통적 협동조합’이라 불리는데, 직업이나 연합체로 조직된 과거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주로 소비, 저축, 대부, 장례, 운송, 건강 분야에서 설립됐다. 당시에는 협동조합을 등록하려면 1년을 대기해야 했고, 85%가량의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CECONAVE(National Venezuelan Cooperative Central)의 구성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자율성이 적었다.<sup>2)</sup>

## 협동조합 전성시대

1998년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듬해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년 뒤인 2001년에는 협동조합연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차원에서 자금, 제도, 교육, 구매 등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차베스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했고, 인민경제부는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했다. “새로운 협동조합은 사회 통합을 위해 국가에 고용된 도구”이자 사회주의 이행의 징검다리가 되었고, 전통적 협동조합들은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정치적 아젠다에 이용되고 준비 부족과 온정적 지원으로 부패하여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1999년 헌법 개정 당시 762개였던 협동조합은 2010년에 306,792개로 40배가량 늘었고,

---

2) Michael Fox. "Venezuelan Coop Regulatory Body Turns 40, Announces 'New Institutionalality'". (Venezuel Analysis).

특히 관광, 사무, 청소, 산업 유지 등 서비스 분야(61.3%)와 농업, 축산, 어업, 수공업 등 생산 분야(27.0%)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sup>3)</sup>

이러한 ‘협동조합 붐’의 배경에는 20여 년에 걸친 경기 침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극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1979년과 1999년 사이 1인당 소득 수준은 27% 하락했고, 빈곤층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해 국민 절반가량(47%)이 빈곤층이었다.<sup>4)</sup> 1980년과 1999년 사이 비공식부문의 고용은 34.5%에서 53%로, 실업률은 5.9%에서 14.5%로 크게 늘었다.<sup>5)</sup> 따라서 불안정한 삶에 놓인 대다수 빈곤층에게 정부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정책은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은행법을 개정, 모든 은행이 신용 자산의 최소 3%를 소액 금융 프로젝트에 할당하게 했다. 그리고 ‘인민은행’, ‘여성은행’, ‘소액 금융 발전을 위한 기금’ 등 빈민을 위한 다양한 소액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 2005년에는 총 5억 달러의 미시 금융을 제공했다.<sup>6)</sup> 또 2001년에 개정된 토지법은 라디오와 같은 대토지 소유제를 개혁하고 “쓰지 않는” 땅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했다. 2009년까지 정부는 660만 에이커의 땅을 매입해 협동조합에 속한 18만 세대에게 저리나 무이자 대출로 분배했다.<sup>7)</sup> 2004년부터는 다양한 미션 프로그램이 시행됐는데, 그 중 하나인 ‘Vuelvan Caras’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술과 농업, 관광, 건설 교육을 시행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67만 명이 이곳을 졸업했고, 1만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sup>8)</sup> 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협동조합 설립으로 2007년 농업생산량은

---

3) April Howard. "Creating an Endogenous Development Culture in Venezuela". (Venezuel Analysis).

4) 조돈문. 2013. 『베네수엘라의 실험』, 후마니타스.

5) Gregory Wilpert. "Venezuela's Mission to Fight Poverty". (Venezuel Analysis).

6) 김창근. 2010. "베네수엘라 볼리버리안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 7(3):138-180.

7) Christina Schiavoni and William Camacaro. "The Venezuelan Effort to Build a New Food and Agriculture System". (Monthly Review).

8) April Howard. "Creating an Endogenous Development Culture in Venezuela". (Venezuel Analysis).

1998년 대비 24% 증가했고<sup>9)</sup>, 곡물 자급률도 30% 미만에서 57%로 상승했다. 협동조합은 사회의 다양한 지표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를 넘어 ‘집단주의’ 정신을 널리 퍼뜨림으로서 의식을 바꾸는 데에도 기여했다.<sup>10)</sup> 나아가 사적 부문의 집단적 소유 형태인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생산기업’으로 이행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sup>11)</sup>

## 유령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이기주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급속하게 팽창한 협동조합은 2006년경 등록 건수가 14만에 달했다. 그러나 인민경제부는 오직 7만4천 개만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고, 2007년에는 4만 8천 곳만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엘너Steve Ellner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자금을 대부 받거나 계약 선급금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유령 협동조합이 늘어나는 데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극단적이었다. 협동조합들은 분기별로 책임 이행 증서와 회계 감사 자료를 보고해야 했고, 문서 업무에 많은 시간이 허비됐다. 동시에 정부는 조합원의 ‘사회적 의식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적 전환’을 요청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지만,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협동조합 구성원을 처벌하지

9) Olívia Kroth. “Venezuela’s agricultural gains under President Chávez”. <Pradva>

10)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마이클 폭스, 조조 파렐 저. 임승수, 문이열 역. 2012.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시대의창. 221쪽.

11) 사회적 생산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수익보다 연대성, 협조, 보완성, 호혜성, 공평성,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우선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 소재 공동체에 지역발전기금 형태로 이익의 10%를 제공해야 한다. 대신 정부로부터 저리에 신용을 제공받고, 정부 계약에 우선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김병권 외. 2007.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창. 246, 250쪽.

는 않았다.<sup>12)</sup>

이후에도 협동조합의 숫자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유령 협동조합 또한 늘어났다. 엘비 몬산트<sup>13)</sup>는 2001년 법률 개정 당시 1045개였던 협동조합 수가 2008년 약 26만8천 개로 늘어났는데 이 중 23%인 약 6만8천 곳만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고<sup>14)</sup>, 오스카 바스티타<sup>15)</sup>는 2010년에 등록된 협동조합이 306,792곳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곳은 단 10%인 3만여 개 수준이라며, “베네수엘라가 협동조합의 무덤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유령 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실패에 대해서 엘비 몬산트는 첫째, 조합원 참여가 없고 이사장이나 부이사장 등 소수의 이익만 반영하는 수직적 구조를 갖춘 협동조합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주어졌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 시 협동조합적 교육과 문화적 소양을 가진 협동조합주의자가 부재하여, 이들 사업체는 자본주의 사업체와 다름없었다며, 이들이 협동조합에 제공되는 세금 면제 혜택, 저이자 또는 무이자 자금 대출, 정부 우선 구매를 활용하기 위해 ‘유사 협동조합’을 차렸다고 지적했다.<sup>16)</sup> 국가 협동조합감독원(SUNACOOP)의 전 감독관 카를로스 몰리나(Carlos Molina)는 감사와 견제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협동조합을 감사하는 기구와 협동조합인을 위한 지원 및 교육훈련 기구가 통합되어 있어서 온정적인 정책”이 시행됐고, “SUNACOOP이 감독과 감사를 했어야 했지만, 조직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급속히 늘어난 수십만 개의 협동조합을 모두 실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개별 협동조합들에도 책임이 있었다. 2005년 SUNACOOP은 3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감사를

---

12) Steve Ellner. "The Trial (And Errors) of Hugo Chavez". (Venezuel Analysis).

13) Elvy Monzant Cecilio Acosta de Maracaibo 대학 학장

14) Elvy Monzant. "Diagnosis and Perspectives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of Venezuela". (Venezuel Analysis).

15) Oscar Bastidas-Delgado 전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교수

16) Elvy Monzant. "Diagnosis and Perspectives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of Venezuela". (Venezuel Analysis).

실시했는데, 50%가 회계 처리와 행정상의 오류를 범했다. 인민경제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과 교육을 조직했지만 참여자는 소수였다. 몰리나는 “개별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지역, 지방, 국가, 국제 수준의 어떤 연합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운영되어 견제 장치가 부재했다”고 평가하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급속한 협동조합 촉진 정책”을 문제로 꼽았다.<sup>17)</sup>

차베스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의 주요 목적은 협동조합이 집단의 사적 이익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네이로 하네커<sup>18)</sup>에 따르면, 다수의 협동조합이 주변 공동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입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기업과 같이 행동했고, 일부 협동조합은 생산물이 필요한 지역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수출했다. 또 빈곤층을 대상으로 20~50% 저렴하게 식료품을 판매하는 ‘메르칼(Mercal)’을 통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자본주의 배급업자와 중개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다수의 협동조합은 소득 감소를 우려해 새로운 조합원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거나, 조합원이 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도록 6개월 미만으로 고용했다. 그에 따라 대다수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증가하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일부 협동조합들은 모든 조세를 면제받고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대부를 받았음에도, 소속 조합원들 스스로에게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지역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후에도 납세를 거부했다.<sup>19)</sup>

---

17) <http://priven.org/bolivar-and-cooperativism-by-professor-carlos-molina-camacho>

18) Pineiro Hanecker Havana University 교수

19) 김창근, 2010.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 7(3):138-180.

## 남겨진 협동조합의 과제

SUNACOOOP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등록된 협동조합 약 30만 곳 중 실제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약 7만 개다. 혹자는 이의 절반 정도만이 운영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남미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는 자본주의 경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대안적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엘비 몬산트는 2008년 당시 실제로 운영되는 약 6만 8천 개의 협동조합을 여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 설립된 '자발적 협동조합'<sup>20)</sup>(44%), '지역 은행'(34%),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sup>20)</sup>(14%), '공동 경영 및 연합회'(5%), '신협'(1%), '전통 협동조합'(1%)이 그것이다. 이들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보면, '전통 협동조합'(68만 명), '자발적 협동조합'(6만2천 명),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5만2천 명), '공동 경영 및 연합회'(4만8천 명), '혁신적 협동조합'<sup>21)</sup>(3만1천 명) 순이었다.<sup>22)</sup> 결국, 협동조합 붐이 지나간 뒤에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자발적 협동조합이 규모를 확대했다. 새로운 형태인 공동 경영과 연합체, 혁신적 협동조합 등 대안적 협동조합도 널리 확산됐다. 정부 투자는 직접 목적보다는 간접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 협동조합 붐이 서서히 걷혀가는 시기에, 알베르토 가르시아<sup>23)</sup>는 기고를 통해 베네수엘라 협동조합의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대부분 협동조합은 규모가 작고 경영 및 자금 동원에 취약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통로가 부재하다. 둘째, '진정한' 협동조합

---

20)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부엘반 카라스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 훈련과 장학금을 제공하여, 졸업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들.

21) 공정한 사회, 연대하는 사회, 생태적 사회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대안적 협동조합들.

22) Elvy Monzant. "Diagnosis and Perspectives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of venezuela". (Venezuel Analysis).

23) Alberto García Müller Universidad de los Andes 교수

이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수 관리자의 이익에 복무하며 노동 조건을 저하시켰다. 많은 경우에 협동조합은 정부 대리인으로 역할 했고, 공적 재원은 이들 취약한 협동조합에 낭비됐다. 셋째, 협동조합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른바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많은 협동조합이 실패한 것은 경제적 능력 부족뿐 아니라, 사회적 결속과 노동조합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자립심을 고취해야 한다.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은 협동조합의 정부 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기여와 주인의식을 감소시켰다. 반면 정책의 계획이나 프로그램 기획에서 협동조합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다섯째, 협동조합의 자치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의 규모, 지역 분포,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협동조합을 감사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 혹은 연대경제 섹터의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개념 정립과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sup>24)</sup>

## 한국, 협동조합 붐이 끝난 뒤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에는 2012년 11월부터 10개월간 1만2천 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2013년 11월 30일 현재 3,05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하루 평균 8.5개, 월 평균 255개씩 만들어진 것이다. 곳곳에서 토론회와 강좌가 개최되고 신문지상에 협동조합 관련 기사가 수두룩하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협동조합의 세력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협동조합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설립 속도

---

24)Alberto Garcia Muller. "The big challenges of Venezuelan cooperativism today". <Venezuel Analysis>.

가 빠른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실태조사 결과<sup>25)</sup>, 협동조합 설립 준비 기간은 평균 2.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최소 다섯 명의 협의와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 2.6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감이 있다.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컨설팅 받는다고 해도 그렇다. 협동조합 생존에 대한 우려도 높다. 등록된 협동조합 중 절반가량인 54.4%<sup>26)</sup>만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도 전화 연결 불가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응답하지 않은 곳을 고려하면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운영 중인 곳 가운데 24%가량은 판로 미확보 등 ‘준비 부족’으로 목표 매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협동조합의 최소 60% 이상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던 사람들에게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는 평가도 있다. 대부분 설립된 지 1년 미만으로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꿈과 활력을 가진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제까지고 준비될 때만을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설립하고 부딪치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질적인 도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해 무수한 협동조합들의 역사도 그러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기대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미 어떤 곳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소문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쇄도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국가의 협동조합 지원을 높여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간섭 없는 지원, 목적 없는 지원은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국가 주도 협동조합 붐을 이끌어낸 베네수엘라의 경험에서 우리

---

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26) 조사 대상 747개 중 406개

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즉 정부가 수많은 재원을 투자한 협동조합보다 지원을 받지 않은 자발적 협동조합의 생존율이 높았고, 많은 협동조합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쉽게 관료주의의 뒷에 빠져들고 문화적 위계 구조를 재생산<sup>27)</sup>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길에서 멀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일까? 혹은 자율과 자치, 자립, 민주주의가 어떻게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것일까? 함께 풀어봐야 할 문제다.●

---

27)Camila Harnecker, Ibrahim Steyn. 2012. "Solidarity economy experiments in Brazil and Venezuela and the lessons for a Southern African debate on solidarity finance for informal trade". Ecumenical Service for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19쪽에서 재인용.

## 위기의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

### 대선 유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시간의 흐름은 역시 불규칙적이다. 연초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눈앞에 쌓여 있는데 한 해가 쏜살같이 휩 지나간 느낌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 정치에서 시간 흐름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일 년과 다음 대선까지의 남은 시간 모두가 아득하기만 하다.

2012년 대선 상황을 애써 떠올려보면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이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위 진보 영역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복지'와 '민주'라는 개념을 보수 정당의 후보가 전면에도 들고 나온 것은 당시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진보의 정체성과 가치를 내세운 야권의 후보들이 여권 후보의 '과거' 이력과 태생적 한계를 문제 삼고 있을 때, 보수를 대표한 박근혜 후보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국민행복과 대통합 시대를 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런

---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선거 구도가 실제 득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결국 박근혜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 년 전에 치러진 이 선거가 지금 온 나라를 건잡을 수 없이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국민행복과 대통합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사회 전체를 긴장과 갈등, 충돌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 국민적 피로감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의 밑바탕에 바로 '정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공유하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는 실종되고, 적대적인 영향력 행사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대결 정치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의 이런 사태에 대해 소위 진보적 가치를 주창한 야당 정치인과 사회운동가들은 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박근혜정부야말로 당면한 문제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 당사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민주주의 차원에서 중대한 왜곡과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으로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데, 지난 대선 때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행복, 대통합의 내용은 지금 실종 상태에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 때 주장했던 것과 달라진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 그 어떤 책임 있는 해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 후 1년 사이에 어떤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유권자인 시민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물론 공약을 이행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분명한 비전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가지고 유권자들로부터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와 여당 스스로 자신들의 핵심 공약들을 부정하고 파기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

넘기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알아서 잘할 테니 참고 기다리라’는 인식과 태도를 보인다면 유권자를 업신여기는 오만함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 위기의 민주주의, 무엇 때문인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지친 사람들 가운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통해 보다 안정된 삶과 행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의 선택에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신뢰의 정치인으로 자신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공약대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같은 영역에 있는 보수 쪽의 반발도 최소화해 그 실현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나름의 합리적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이런 기대가 매우 헛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정과 절차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바로 지난 대선 과정 자체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심각한 양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급기야 종교인들까지 나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당면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이자 사회적 신뢰와 질서의 기반인데, 지난 선거에서 이것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의 결과에 대해 패자는 승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려면 과정과 방식 자체가 공명정대(公明正大) 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선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독재는 권력의 자의적恣意的 사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권력의 독점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중요한데, 이것을 특정 집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훼손해 버리면 사회의 기본 신뢰와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는 선거의 공정성 원칙을 집권 연장을 위해 훼손시킨 심각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 성숙시켜가기는커녕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 현실에 당면하고 있다.

둘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신뢰 확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시킨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 무색하게도,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 권력기관이 대선 과정에 광범위하게 지속적,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니 충격 그 자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누구보다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 기관들이 스스로 이익집단이 되어 편향적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가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이런 엄청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다른 곳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건 당사자 개인과 조직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까지 진실 규명은커녕 상황을 호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적으로 몰아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사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외압 의혹 속에 조사 주체인 검찰까지 신뢰를 잃어버렸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의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심지어는 대선 불법 개입의 진실

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소위 ‘중북’<sup>從北</sup> 세력으로 몰아 사회 전체를 낚은 이념 갈등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특정한 의도를 담아 만들어낸 조어<sup>造語</sup>인 ‘중북’이란 말은 비판의 상대를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집단’, 나아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손한 세력’으로 규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말을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밝혀지면 단순한 ‘개인적 일탈’ 행위로 돌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혹한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안통치’, ‘협박정치’, ‘증오의 정치’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 만큼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일각에서는 ‘독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고,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숭고한 마음은 어느새 조롱의 대상이 되어, 약한 상대를 따돌리고 업신여기는 의미에서 ‘민주화 시킨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의견에 강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파커 파머의 이야기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민주주의는 소위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가려서 선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문명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그런데 지난 시절 ‘타는 목마름으로 남몰래 부르던 민주주의’가 제도화 과정을 거쳐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이것이 다시 질식당하고 뿌리 뽑힐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부끄러운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오늘날 일본이 우경화, 군국주의화의 길로 치닫는 배경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결여가 자리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금기의 영역을 설정하고 공론의 장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는 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깨지기도 쉽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지키고 살리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온 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논란을 확대, 지속시키려 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불안 상황을 역이용하려 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국가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공인으로서 역할과 자연인 개인으로서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전환의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민주화 이전 시대로 되돌린 듯한 사건들로 인해 내부적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전반을 둘러싼 환경 변화 또한 여간 심상치 않다. 올해 정전 60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주변 강대국들의 핵심 이익을 둘러싼 양보 없는 대결 태세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은 역사와 영토를 둘러싸고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 온 곳인데,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계기로 분쟁지역화의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주도 하에 노골적으로 군사력에 기반한 전쟁국가로의 길을 재촉하고 있고, 북한 정권은 한반도 전체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를 앞세워 군사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대대적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한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중간 패권 경쟁을 경제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힘’을 앞세운 대결 구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확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도입 등을 위한 군비 증강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FTA와 TPP 등을 통해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 깊숙이 참여해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양보 없는 경쟁 상황에서 힘의 우위를 앞세운 생존전략이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줄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검토가 필요하다. 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양립하기도,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런 ‘힘겨루기’ 방식은 위기 상황을 빌미로 수많은 생명의 희생과 함께 인류가 문명사회를 향해 축적해 온 인권, 평화, 생태, 공동체 같은 가치들을 일거에 소멸시키는 전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전환의 시대에는 그동안 익숙해져 온 가치와 제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새로운 진단과 모색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는 당연한 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과 단절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클수록 다른 목소리에 인내를 갖고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분노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만들어 낸 혼란에 편승해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거나 심지어 투기적 행위를 확산시킨다면 다가올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흔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차이와 다양성을 억압한 채 일치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국익을 내세운 ‘대동단결 大同團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성찰이 배제된 단결에 대한 호소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또 다른 억압적 권위주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패권적 대결 구조와 이로 인한 긴장과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지구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도 어렵게 만든다.

한편, 그렇다고 제각기 각자 살 길을 도모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식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이미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파편화 된 개인주의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데다, 책임을 개인화해서 떠넘기는 방식은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국가권위주의나 시장 자유주의 체제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개인 차원으로 돌린 뒤 이들의 일상생활과 생각, 행동 등을 지배하고 관리함으로써 결국 시민주적 무책임성과 무기력감을 확대시켜 민주주의의 발전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환의 시대를 열어갈 해결책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성찰과 책임 있는 연대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 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할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70년대의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 당면했던 민주주의 문제와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경쟁국가 시대에 요구되는 민주주의 문제는 성격상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 위기 문제 역시 ‘유신시대로의 회귀’ 또는 ‘유신의 부활’로만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성장을 기획하고 추동하던 때에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유와 분배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불균형을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연동된 장기 저성장 상황에서 양극화의 확대에 따른 불안감과 박탈감으로 사회적 관계가 급속히 해체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 자신감을 잃

어버린 채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버리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전환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기본 생존권 보장은 물론 개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보다 넓고 깊어져야 한다. 물론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개발독재를 지탱했던 성장지상주의, 목표달성주의, 속도주의, 결과중심주의 논리가 민주화가 된 지금도 우리의 일터와 삶터, 아이들 교육 현장 등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대선 불법 개입 논란은 물론이고 4대강 사업이나 원전 비리,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문제 등에서처럼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일들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 역시 그동안의 고속 성장이 만들어 낸 화려한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로,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지난 세기 우리가 걸어온 성장 과정이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와 제도 영역에서도 시간 단축을 통해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를 몸과 마음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양적 성장을 목표로 경쟁과 효율, 속도를 강조해온 ‘성장 사회’에서 협력과 균형, 공존과 합의를 바탕으로 질적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성숙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결국 말도 많고 그만큼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가 권위주의와 시장 자본주의가 공통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활용해 작동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외면한 그 어떤 해결책도 위험하다.

당면한 위기 상황이 복합적이고 전환의 과제가 복잡할수록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지혜롭고 책임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 높은 의사결정을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혼재되어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를 향한 사회적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도 다양성과 차이로 인한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민주주의를 통해 길러내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제도화된 권력과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때다.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성찰적 자세,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인내와 겸손함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노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전환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 다람살라의 스마트폰

## - 변화하는 티베트 난민 문화

### 티베트 난민과 다람살라

해발 1780미터. 인도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 주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다람살라는 인도와 네팔, 티베트를 가로지르는 히말라야 산맥의 한 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에 이르는 티베트 난민들의 정신적·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거쳐와 50년 넘는 세월 동안 풍찬노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1959년 중국에서 망명한 달라이 라마와 그를 따르는 티베트인들이 다람살라에 터전을 마련한 것이 1961년,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람살라는 티베트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왔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티베트를 떠나오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눈 쌓인 히말라야를 넘다가 중국 경찰에 잡히거나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티베트인들은 꾸준히 인도로, 이곳 다람살라로 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 “티베트 난민과 함께하는 록바” 활동가

지난 50여 년간 티베트인들이 왜 고향을 버리고 난민의 삶을 택했는가에 대해 설문조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의 지배 이후 꾸준한 정치적 압박,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 티베트어 사용 금지와 같은 문화적 제약이 큰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인에 의해 경제마저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거나 생활이 어려워져 티베트를 떠나 인도로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언어와 문화, 종교를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과 승려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열 살 티베트 소녀 빼마는 다람살라에 가서 티베트어와 티베트 문화를 배우라고 부모님이 친척 아저씨와 함께 인도로 보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히말라야를 걸어서 넘으면서 코피가 나서 울기도 하고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열세 살이 되던 해에 인도에 와서 7년이 지난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인 왕모는 내년에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한 유목민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무얼 배우겠냐며 그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도에 와서 학교를 다니게 된 왕모에게 인도는 배움과 기회의 땅이 되어주었습니다.

## 티베트인들의 제 2의 고향 다람살라의 과거, 현재

티베트인으로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난 티베트인들의 제 2의 고향, 다람살라.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달라이 라마가 다람살라에 정착하던 해에 태어난 인도인 싱은 자신이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었던 시절의 다람살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인 친구들과도 가까이 지냈고, 돈은 비록 부족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지금도 티베트어가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티베트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하나 둘씩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이제 이곳을 찾는 티베트인들은 더 이상 다람살라에 관심이 없다고 그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다람살라를 그저 거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요즘의 젊은 티베트인들이 그에게는 함께 마음을 나눌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다람살라는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30년 전 처음 다람살라를 방문했고 그후 지금까지 다람살라를 오가고 있는 영국 출신의 비구니 사라 스님은 만약 그 당시 누군가가 지금과 같은 모습의 다람살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나 인터넷을 하고, 술집과 식당이 늘어난 다람살라의 모습 말이지요. 참으로 작은 산골 마을이었던, 나라를 잃고 망명정부를 따라 떠도는 가난한 난민들이 모여 살던 다람살라, 그것이 사라 스님이 기억하는 다람살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 바뀐 것이 달라이 라마가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부터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유명해지면서 덩달아 다람살라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어느 해가 티베트인과 현지 인도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티베트 난민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에 히마찰 프라데시 주지사가 찾아와 정중히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 티베트 난민 사회의 문화

이렇게 현재의 다람살라는 과거와는 무척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단 몇 년 전에 이곳을 찾았던 여행자들도 새로 들어선 건물과 상점들을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곳이 바로 이곳 다람살라입니다. 그래서 난민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 전쟁이

나 기아로 난민이 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모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기도 하는 곳이 바로 다람살라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한자리에서 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곳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걸모습만큼 하나의 사회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한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이 공유하는 문화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아야 하는 현재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 혹은 물질문명의 사회, 그리고 첨단 기술사회와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티베트에서 태어나 인도로 온 많은 이들이 문화적 격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화적 격차의 성격이나 정도는 출신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전과 현재의 세대 간 차이도 큼니다. 15년 전 어린 나이에 동생과 함께 인도에 온 장축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그에게는 인도가 신세계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왕모의 경우처럼 장축은 자신이 티베트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렇게 컴퓨터를 쓰거나,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거나, 핸드폰으로 채팅을 한다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다람살라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도 고향 마을에 남아 있을 친구들과 친지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20세가 넘어 인도에 온 남같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는 처음 인도에 와서 티베트의 고향 마을과 달리 너무나 더러운 데다가 수많은 거지들이 손을 내미는 모습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는 티베트와 인도는 비록 중국의 지배 하에 있지만 티베트가 경제적으로는 더 발전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경제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별개로 하고 말이지요. 그러니 티베트 문화를

배우고 자유롭게 종교를 믿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다람살라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럴 바에는 어딘가 다른 나라로 떠날 기회를 찾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세대, 계층, 혹은 각자 문화적 영향 속에서 벗어나 다람살라라는 한정된 공간에 모여 있는 이들 티베트인들이 공유하는 문화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축과 남갈에게 다람살라에서의 생활은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만 두 사람을 포함한 다람살라의 티베트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 다람살라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물질문명, 첨단기술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오가는 다람살라야말로 문화적 의미에서는 하나의 터미널, 혹은 허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과 목적을 갖고 다람살라에 왔든 티베트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다람살라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부 문화 그 자체입니다.

## 첨단의 물질문명과 만나는 티베트인들

7년 전 티베트에서 인도로 온 소남은 외국에 간 친구가 보내주어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다른 친구들이 가진 최신형 휴대폰을 부러워만 하다가 드디어 자신도 하나 장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아, 아니지요. 이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이 단체로 채팅을 하는 데 사용하는 위챗(we chat)이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심지어 티베트에 있는 가족들과도 음성과 화상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60이 넘는 소남의 어머니도 티베트에서 소남과 위챗으로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을 장만한 다와에게 비싼 아이폰을 무슨 돈으로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쑥스러운 표정의 다와가 한 대답은 티베트에 있는 누나가 보

내준 용돈으로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돈 1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는 티베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비싼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특히나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싼 다람살라에서 생활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경제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티베트, 혹은 외국에 있는 티베트 친지들입니다.

티베트에서 가족 중 한 명을 인도로 보내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활비로 돈을 보내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최근 들어 티베트에서 넘어오는 많은 티베트인들이 인도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람살라를 정거장 삼아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로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 보낸 가족이 현지에서 자리를 잡아 티베트의 가족을 마저 부르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이 과정을 거쳐 외국에 거주하는 친지가 있을 경우 다음 단계는 좀 더 쉬워집니다. 형제, 자매 혹은 친척을 외국으로 바로 부르거나 아니면 다시 다람살라를 거쳐 다른 나라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다람살라에 머물고 있는 티베트 출신의 청년들은 티베트에서, 혹은 외국에서 보내주는 경제적 도움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많은 경우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준비를 한다는 명목 하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로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수준의 일일지라도 말이지요.

한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티베트나 해외의 친지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지금과 같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티베트의 가족과 연락이 끊겨 전전공공하거나 인편에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급속한 경제적·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는 티베트 현지는 물론이고 다람살라에서조차 인터넷을 이용한 접촉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생활수준을 뛰어넘는 소비에 대한 욕망, 이것이

왜곡된 물질문명이 빚어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일례로 아이폰은 컴퓨터에 설치된 아이튠즈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를 동기화하지 않으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 통장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은 티베트인들은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한 앱스토어에 등록할 아이디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람살라에는 컴퓨터도 없고 아이디도 만들 수 없는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음악이나 영화를 대신 복사해주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돈을 주고 구입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첨단 기술의 결정체를 가지고 누려야 할 콘텐츠는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실제 삶의 모습과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인 경우도 많지요. 이것이 단지 그들이 소비자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난민의 신분이기 때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인들이 급속하게 이런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인인 제이크는 티베트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만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도 언제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게임을 하거나, 위챗으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들과 채팅을 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그런 행동은 정말 무례한 거라고 제이크는 말합니다.

최근 필자가 일하고 있는 NGO인 ‘티베트 난민과 함께하는 록빠’에는 새로운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위챗 사용 금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서로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는 위챗은 이렇게 업무도 방해할 정도가 되었지요. 점심 식사 시간에 각자 전화기를 들고 음성 메시지를 보내느라 정작 옆에 있는 동료와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모여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요즘의 문화를 돌이켜보니, 과연 새로운 기술과 문화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사회의 일부가 되며 성숙한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을 쓰면서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 뒤섞이는 문화들 속의 티베트 문화

티베트 현지, 인도의 난민 사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여기저기 나뉘어 각기 다른 사회,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일 것입니다.

티베트어를 가르치는 따시 선생님은 중국에서 스물한 살에 인도로 왔습니다. 처음 인도에 와서 영어도 인도어도 잘 모르던 시절, 인도 사람들이 티베트어 단어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단어는 본래 인도어였고, 인도를 다녀온 티베트인들 덕분에 티베트어에 섞여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필자가 티베트를 여행할 때 수도 라싸에 있는 달라이 라마의 여름 궁전 노블링카에서는 인도의 대중적인 음료인 짜이를 파는 카페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도를 오고가는 티베트인들이 전파한 문화입니다. 티베트에서의 문화가 인도로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문화가 반대로 티베트로 흘러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티베트 현지에서는 중국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런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중국화 정책의 결과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화의 뒤섞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과정입니다. 룩빠에서 일하는 스태프 중 비교적 최근에 인도에 온 라모는 티베트어보다는 중국어가 쓰고 읽고 말하기에 더 편합니다. 티베트어는 집에서 부모님께 배우고,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티베트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티베트인들이 유

럽과 미국 등의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2, 3세대 자녀들 역시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TCV(Tibetan Children's Village)에는 해외에 살고 있는 티베트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티베트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나 나라도 아닌 망명 정부와 난민촌을 모국으로 여기고 찾아온 아이들과 티베트의 가족을 떠나 히말라야 산맥을 목숨을 걸고 넘어온 아이들 사이에는 큰 정서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자녀들을 이곳으로 보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도록 하려는 열의를 가진 부모와 그에 따라 다람살라를 찾는 학생들의 존재가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텐진은 휴학을 하고 다람살라에 티베트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려한 부모님의 뜻에 따라 네팔의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대학을 간 경우입니다. 국제학교에서 각 나라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다닌 그는 회화에 비해 부족한 쓰기나 문법을 좀 더 제대로 배우기 위해 다람살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텐진이 느끼는 티베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람살라의 티베트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부모를 비롯한 많은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의 문화와 종교를 배우고 지키기 위해 험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고 낯선 타국에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는데, 티베트의 문화는 히말라야 저쪽 너머의 티베트 땅에서도, 힘겹게 넘어온 인도 땅에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 위협받고 있는 티베트인의 삶과 문화

재일 조선인 학교의 생활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우리 학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하나가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끼

리 살고 있으니까 우리 것을 조금 소홀히 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생활 속에서 지켜지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일본 문화에 흡수되어버리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을 티베트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곳이 중국 지배 하의 티베트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찾아온 이곳 다람살라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떠나간 다른 어느 나라일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팝송을 부르거나 힙합 댄스를 추는 일,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라면 누구나 누리고 싶은 문명이자 문화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지켜지지 못하고 곧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티베트 문화의 쓸쓸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소위 근대화,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해방’을 경험해야 했고, 이제는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에 갑작스레 내던져진 티베트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위협하는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먼 길을 떠난 티베트인들을 위협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곳 다람살라에서조차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인 것입니다.

현재는 정치적 권력을 민간에 이양했지만 여전히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끊임없이 중국 정부에 문화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치를 허락한다면 기꺼이 돌아가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국방과 외교에 관한 권한은 중국 정부에서 가져가도 좋다는 것이지요. 단지 티베트인으로 살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으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티베트 현지에서, 망명지 다람살라에서,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떠나간 티베트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

에서, 티베트인으로서의 삶과 문화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살펴본 많은 사례들만을 놓고 본다면 티베트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긴 시간을 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위해 희망의 증거를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낮은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남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달라이 라마의 거처가 있는 남갈 사원에서는 티베트인들이 오체투지를 올리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기도합니다. 산길을 걷던 아저씨가 바삐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멈춰서 마른 땅에서 피로워하고 있는 지렁이를 축축한 나무 아래의 그늘로 옮겨주는 일은 참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TCV 학교 운동장에 쓰인 커다란 글귀는 ‘others before yourself’, ‘come to learn, go to serve’입니다.

2013년이 끝나가는 지금도 티베트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각자가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 동화되어버리거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위하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 기원하는 심성만은 아직 티베트인들에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닌 이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믿습니다.●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필자가 다람살라에서 생활하며 만난 사람들입니다. 난민인 그들의 신분을 고려하여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스위스 소매유통의 두 거대 소비자협동조합 코프·미그로

## COOP MIGROS

스위스 소비자협동조합 코프<sup>COOP</sup>와 미그로<sup>MIGROS</sup> <sup>1)</sup>를 방문한 건, 2013년 10월 초순에 있었던 한살림연합 해외연수 때였다. 미그로는 스위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철수한 미국의 거대 슈퍼마켓 까르푸를 인수한 사건으로 조금 알려져 있었지만, 코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방문을 잘 맞이하지 않은 탓인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곳이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한살림이 한국 유기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친환경 생산물을 서로 나누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연수팀을 맞아주었다.

코프, 미그로와 만나는 시간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만큼 충분하지 않았지만, 연수팀에 준 인상은 강렬했다.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 특히 스위스 소비자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과 유사하면서도 그들 나름의 독창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협동조합의 세계적인 흐름과 나라별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1) COOP는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이며, 협동조합의 이름이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스위스 쿵'이나 '쿵 스위스'라고 표기하기도 하지만,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COOP(코-프)'다. MIGROS는 독일식 발음으로 '미그로'라고 부른다.

두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역사와 사업 규모, 조직 운영에 관한 소개를 듣고, 직접 소매점을 찾아 물품들을 살펴보았다. 짧은 기간에 접한 경험이지만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 국가 자존감이 강한 나라 스위스, 지역에 뿌리내린 소비자협동조합

초록 빛깔 넓고 비탈진 들판에 자리한 처마 넓은 지붕의 농가 주택. 띄엄 띄엄 한두 마리 소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유럽풍의 서양화나 사진의 한 장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사람들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그런데 그 감탄사가 놀라움의 탄성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의 가격을 보는 순간이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다. 이탈리아 코프에서 구입한 같은 브랜드의 와인을 스위스 코프에서는 두 배 값에 사야 한다. 그것도 유로화가 아닌 스위스프랑<sup>2)</sup>으로 지불한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중립국이다. 중립국이라는 장점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과 26개 주의 권력분점 체제로써 직접민주주의 전통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스위스가 중앙집권적인 유럽연합과 함께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전반적으로 반유럽연합 정서가 강한 편이라 2001년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71%가 반대했고, 2005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실시한 국민투표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유럽연합 가입안이 부결되었다.

---

2) 스위스 화폐 단위를 '스위스프랑' : CHF'로 표기한다. 1 스위스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1,180원 정도 된다. (2014년 1월 기준)

초원이 발달해 있고 물가가 비싼 나라. 유럽에서 국가 자존감이 가장 강한 나라. 네 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sup>3)</sup>. 국가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 답을 얻는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거기에 전국 소매유통 시장의 36.7%를 차지하는 두 개의 거대 소비자협동조합이 있는 나라가 스위스다.

코프와 미그로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으로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에서 선두를 다투는 거대 협동조합이다. 스위스 여행객들의 호주머니에 코프와 미그로의 영수증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마을이나 도심,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서든 이 두 소비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을 만날 수 있다. 소매점뿐 아니라 식당, 편의점, 은행, 호텔, 주유소, 백화점, 스낵바, 전자제품 매장, 문구점 등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구하는 곳, 생활편의를 위한 모든 곳에 코프와 미그로가 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2012년 12월31일 현재), 두 협동조합이 스위스 소매유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코프가 16.9%, 미그로가 19.8%로, 이 둘을 합하면 36.7%라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다. 조합원 수에 있어서도 두 협동조합을 합하면 스위스 전 인구의 64%를 차지할 정도다.<sup>4)</sup>

이처럼 스위스 경제의 중심에 있는 두 협동조합은 각각 조직 형태나 운영 방식에서 독특한 역사성과 특징을 가지며 경쟁한다. 흩어져 있던 지역 소비자협동조합들이 통합해 만든 단일협동조합조직 코프, 개인 사업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열 개의 독립된 단위협동조합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미그로. 각기 다른 색깔의 물품 정책과 조합 운영 방식으로 스위스 경제에 있어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소비자협동조합은 유럽협동조합의 또 다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례다.

---

3) 스위스에서는 독일어(63.7%), 프랑스어(20.4%), 이탈리아어(6.5%), 로망슈어(0.5%)가 공용어지만, 독일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로망슈어는 스위스의 방언이다.

4) 조합원 수를 비교하면, 코프가 295만 명, 미그로가 215만 명으로 조합원 수는 코프가 앞선다. 두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합하면 510만 명으로 스위스 인구 800만 명에서 6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 코프 : 조합원 출자 없는 단일 조합, 유기농업 생산 촉진에 중점

우리나라 생협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낯설다. 이게 협동조합이 맞는지 물음표를 던질 요소들이 많다. 이를테면 조합원 조직의 주체로서 조합원은 보이지 않고 경영자와 직원이 중심에 있다는 느낌, 비조합원 이용이 30~40%에 이를 정도로 조합원 이용률이 높지 않은 점 등이다. 또한 출자나 이용고 배당이 없으며 사업 잉여를 조직의 자본금으로 남긴다.

코프에서 더욱 놀라웠던 건,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는 점이다.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를 신청하면 소식지 독자가 되는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을 내는 것이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는 시작이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심지어 출자금 외에 매월 일정하게 조합비를 내는 생협도 존재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협동조합이 맞는지 머리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 같은 의문에 코프의 시모나 매트<sup>5)</sup> Simona Matt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 “조합이 상당히 커져서 예전 전통적인 개념의 조합과는 많이 다르다. 초기 단계와는 다른 상황으로, 변형된 대형화한 조합이다.” 조합원 배당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하기보다 조합 자체에 이윤이 머물게 하는 방향, 이윤 창출보다 유기농산물 생산 촉진 등 지속 가능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둔다”고 코프의 운영원칙을 강조한다.

코프의 처음 모습은 노동자와 생산자의 연합 형태였다. 1850년,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노동자와 생산자가 함께 소비자클럽운동을 시작했다. 그 모습이 현재 코프로 이어졌다. 창립 이후 100여 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고, 1999년에는 물품공급 관계에 있던 열네 개 지역 소비자협동조합이 코프로 통합되어 지금과 같은 단일 협동조합 조직이 되었다. 조합원 수 290만 명으로 규모가 꽤 큰 협동조합이지만 바젤(Basel)에 본부가 있고 네 개 지역에 지부를 둔 단일 조직이다.<sup>5)</sup>

이탈리아 볼로냐와 모데나의 소비자협동조합도 ‘코프 이탈리아’라는 단일 사업조직 아래 ‘코프 ○○○’라는 브랜드로 지역별 하나의 소비자협동조합을 운영한다. 단일 조직으로써 소비자협동조합이 자리잡기까지는 의지가 강한 강력한 힘의 지도자가 있었다. 스위스의 코프도 유사하다. 각기 색깔 다른 협동조합들이 산재해 있던 것을 하나씩 통합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모나 매트 씨의 말을 빌리자면, 강력한 지도자 한 명의 설득으로 통합과정은 그리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통합되기 전에 혼란을 겪었고, 통합 이후 코프의 사업과 운영이 더 활성화되었다.

코프는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지향점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자연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유

---

5)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출 총액이 278억 스위스프랑(32조6379만 원)이며, 시장점유율에서 식품이 21.9%, 비식품이 12.7%다. 직원 수도 7만5천 명으로 국내 5만4천 명이고, 해외에 2만1천 명이다. 판매장은 2017곳이다. 4개의 지부는 바젤·사피즈하임·고사우·베른에 있으며 6개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

기능업의 생산 증대라는 데 있다. 그것은 코프의 지속가능성 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

지속가능성 전략의 세 가지 맥락은 자연환경 보호와 지구온난화 관련 분야, 직원 및 사회적 차원

에서 가지는 책임성, 유기농 제품과 공정거래에 의한 제품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코프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지속가능성 전략 제품들이 코프 전 품목에서 25%를 차지한다.

유기농 관련 브랜드는 네 가지가 있다. 나투라플랜Naturaplan, 에코플랜Oecoplan, 나투라라인Naturaline, 맥스하벨라MaxHavelaar다.

나투라플랜은 1993년에 시작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1600여 개 제품에 이 라벨이 붙는다. 이 제품들은 전부 비오 스위스Bio swiss 인증을 받은 것이다. 코프는 비오 스위스와 협력관계를 갖고 인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관행과 유기농을 함께 해서는 안 되고 전체가 유기농이어야 한다. 또한 전체 7%의 농지가 휴경지로 더 있어야 한다. 경작물이 비행기로 이동되어서는 안 되고, 하우스에서 난방을 이용한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며, 가공 시 유럽연합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50킬로미터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며, 가공 시 비타민이나 색소, 향신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가공을 촉진하는 성분을 추가해서도 안 되며, 가능한 자체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게 가공해야 한다.

에코플랜은 친환경 세제 등 비식품 제품과 재활용 제품에 붙는 라벨이다. 나투라라인은 유기재배한 코튼 소재 섬유와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이며, 맥스하벨라는 제3세계 현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스위스 내 생산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한 제품에 붙이는 라벨이다.





coop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전략 제품에 붙이는 라벨에는 식물이나 가축의 생물종다양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토종 작물에 붙이는 프로스페시에라라(ProSpecieRara 인증<sup>6)</sup>, 30여 종의 슬로푸드 품목에 붙이는 슬로푸드(SlowFood), 산악지대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산악지대 생산물인 유제품과 치즈제품, 육류가공품에 붙이는 프로몬타나(ProMontagna), 유기종자에 대한 인증 표시인 바이오베리티(Bioverita<sup>7)</sup>)가 있다. 코프는 슬로푸드와 파트너십을 맺어 물품의 판매뿐 아니

라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슬로푸드는 코프와 연대 후 두 개의 지부였던 것이 스위스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코프는 1993년부터 비오 스위스와 스위스 유기농식품 시장을 공동으로 추진해왔고, 유기농업연구소 피블(FiBL)과 함께 1997년부터 유기농업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해왔다.

코프가 미그로와 뚜렛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 물품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고 유기 인증 수준도 유럽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특히 유기농산물을 비중 있게 취급함으로써 스위스 유기농업 확대에 공헌했다. 매주 발행되는 코프의 신문 1면과 2면에 유기농 관련 기사를 실을 정도로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지속가능 브랜드에 주력한다.

6) 프로스페시에라라(ProSpecieRara)는 1982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이윤 창출보다 공익성을 지향한다. 3600여 종의 과일과 채소, 베리, 염소유 치즈 종류를 보유한다. 제철 먹을거리 중심으로 공급한다. 공급 양이 한정적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하며, 특정 시즌에만 공급된다. 식물의 종자와 꽃도 보존하고 판매한다. 코프와 프로스페시에라라는 1999년에 파트너십을 맺어, 프로스페시에라라의 유기농민과 함께 그 생산품들의 판로를 만들고 대중에게 공급한다.

7) 바이오베리티(Bioverita)는 유기종자에 대한 인증 라벨이다. 여러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키워진다고 하더라도 유기농으로 배양된 것이다. 코프는 15년 동안 유기종자에 지원을 해왔고, 2013년에는 870톤 이상의 유기종자로 생산한 밀로 만든 가공제품을 공급했다.

코프는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소매사업이 주 사업 분야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한다. 이를테면 코프 시티<sup>Coop City</sup>라는 백화점 체인, 개별배달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인 코프앳홈<sup>Coop@home</sup>, 그리고 주유소, 편의점, 식당, 전문 가정 가구매장, 조명, 메이크업 관련 할인점, 처방 전용 의약품에서 미용품에 이르는 건강 관련 약품 판매, 보석 체인점, 가전 매장, 여행사 등이 있다. 스위스 어디를 가든 이들 코프 사업체의 심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체들은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되는데, 총 매출액의 27%를 외국에서 벌어들인다.

## 미그로 : 철저히 스위스적, 지역성 강조한 최대 규모의 소매유통 협동조합

“지역에서부터 지역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 조합원과 지역 생산물을 나눈다는 원칙을 강하게 보여주는 미그로의 광고문이다. 지역에 뿌리내린 소비자협동조합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실례다. 코프가 해외사업에서 일정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과 달리 미그로는 글로벌 전략이 없다. 협동조합이 아닌 자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예는 있지만 철저하게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를 강조한다.

또한 사람들이 미그로를 말할 때 매장에서 술과 담배, 성인잡지를 팔지 않는 점을 빼놓지 않는다. 이것들로 인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창시자의 마음이 사업 정책에 담긴 것이다.

미그로는 열 개 협동조합이 연합한 조직이다. 연합은 자회사 운영과 총판, 여행, 금융서비스, 네 가지 분야에 주력하고, 열 개 협동조합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연합이 관여하지 않는다. 매출 규모 면에서 지역 협동조합이 70%를 차지하고 연합회 사업이 30% 정도 비중을 갖는



미그로 창시자 고틀리브 두트바일러 (1888~1962)<sup>9)</sup>

다.<sup>8)</sup>

조합원이 되려면 10스위스프랑을 출자금으로 내야 한다. 배당이나 경제적 이익은 없으나 포인트 카드가 있어 미그로 소속 자회사 이용시 사용할 수 있다.

미그로는 조합원 수가 스위스 인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조직이다. 곳곳에서 'M'이라는 글자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장 수가 많기도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무엇보다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가장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긴다. 스위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데 미그로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만 품질의 수준을 구분하여 가격대를 정해 고품질의 고가 물품부터 저소득층이나 대가족을 위한 저가 제품도 제공한다. 미그로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절반을 뜻하는 'mi'와 도매라는 뜻의 'gros'가 합성된 말로 '소매와 도매의 중간 가격'을 뜻한다. 의미 그대로 고품질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원칙에 충실하다.

미그로의 출발은 협동조합이 아니었다. 고틀리브 두트바일러Gottlieb

8) 미그로의 협동조합 매장인 슈퍼마켓은 6백 개가량 되며, 협동조합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20여 개 있다. 자회사는 매장에 직접 공급하는 식품 제조회사를 비롯해, 온라인 슈퍼마켓 르샵(LeShop.ch), 주유소 미그롤(Migrol), 편의점 미그로리노(Migrolino), 가구점 미카사(Micasa), 서점 리브리스(Ex Libris), 백화점 글로버스(Globus) 등이 있다.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것이 성인교육센터인 클럽슐레(Migros Klubschule)다. 은행과 여행사업은 창시자가 직접 만든 사업으로, 연합의 네 개 사업 중에 주력 사업으로 들어간다.

9) 출처 : Federation of Migros Cooperatives (Company Presentation)

Duttweiler의 개인 사업으로 시작됐다. 고틀리브는 스위스 산악지형 때문에 시장에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품 공급을 시작했다. 1925년, 그는 공급차량 다섯 대와 직원 열여섯 명, 물품 여섯 가지로 미그로의 사



초기 미그로 공급차량(1925)<sup>10)</sup>

업을 시작했다. 주요 물품 여섯 가지는 커피, 쌀, 설탕, 면, 코코넛오일, 비누였다. 시중 가격보다 40% 싸게 공급했으며, 이동 매장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품 규격을 다양하게 만들었고, 가격을 포장지에 직접 인쇄해 넣었다. 1926년에 처음으로 매장을 열었지만 점원들이 주문한 물건을 직접 찾아주는 방식이었다. 조합원이 직접 물건을 골라 판매대에서 계산하는 방식의 매장은 1948년에 문을 열었다.

미그로의 역사적인 사건은 1941년, 창시자 개인 주식을 100만 스위스프랑만 남기고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내놓은 일이다. 이것으로 7만5천 명의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고틀리브 두트바일러는 사업체로서 성장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와 생태, 사회 문제에 관여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1944년에 성인교육기관인 클럽슐레(Klubschule)를 설립했다.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교육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어서 미그로 사업의 일정 부분을 문화·사회·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매출의 1%를 문화기금으로 적립하고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10) 출처 : Federation of Migros Cooperatives (Company Presentation)



했다. 이것이 미그로 컬처 퍼센티지(MIGROS Culture Percentage)다.<sup>11)</sup> 미그로의 문화 사업은 일반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써 문화기금을 활용한다. 미그로는 매년 1억 스위스프랑 이상 문화사업에 투자하며, 46%가 교육에 사용된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미그로는 사업 영역과 조합원 수, 매출 규모가 확대되었고, 1970년에 큰 규모의 슈퍼마켓을 이르는 하이퍼마켓을 만들었다.<sup>12)</sup> 1972년에는 물품마다 바코드를 입혀 좀 더 간편한 계산 체계를 마련했으며, 1974년에는 '엠-사노(M-SANO)'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농약이나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한다. 1997년에는 질은 조금 낮지만 가격이 낮아 저소득층이나 대가족인 조합원들이 마음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저가 브랜드인 '엠-버지(M-Budget)'를 내놓았다.<sup>13)</sup> 적립카

11) 문화기금을 잉여가 아닌 매출의 1%로 정한 것은 사업이 잘 되면 안 되면 상관없이 일정하게 꾸준히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문화기금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약속기금을 설립했는데 자회사가 이익배당의 10%를 내놓는다. 이 기금은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스포츠 분야의 프로젝트에 제공된다.

12) 미그로는 매장 규모에 따라 'M'자를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붙인다. 'M' 하나는 1000m<sup>2</sup>(300평) 규모이고, 하이퍼마켓 정도는 'M'을 세 개 붙인다.

13) 1996년, 후주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값싼 구역을 정해 놓은 것을 보고 미그로에 적용했다. 저소득층과 대가족을 대상으로 70개 제품을 정했고, 현재는 330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초콜릿뿐 아니라 산악자전거, 스노보드, mp3플레이어, 신발과 점등기 등 다양하다.

드도 도입해 카드 지불을 가능하게 했으며, 2010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88년의 역사를 가진 미그로는 2012년 현재, 다섯개 전략사업 안에 50개 사업 부서가 있으며, 스위스에서



총 매출 규모로 14위에 오를 정도로 사업 규모가 나날이 확장되어 갔다. 2010년 경기 침체로 유럽 전체가 휘청거릴 때도 미그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왔고, 온라인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회사들의 사업실적도 점차 확장되었다.

미그로는 소비자협동조합이자 규모 있는 소매유통사업체로서 영향력이 큰 편이지만, 그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스스로의 역할을 둔다는 것이 다른 기업들과 다른 점이다. 미그로 역시 코프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1959년 창시자 고틀리브 두트바일러는 “기업은 순수 경제를 넘어서는 의무가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기업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소매점 그 이상이다”라며 “비상업적인 문화와 교육의 증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물품의 판매”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미그로는 2012년에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인 ‘M세대(Generation M)’를 내놓고 소비와 환경, 건강, 고용 및 사회 분야에서 40개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테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근무조건을 마련하고(공정한 근로계약, 건강한 작업환경, 적당한 임금과 노동 시간, 아동 노동과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 등), 멸종 위기에 처한 물고기 종을 잡지도 소비하지도 않는다는 것, 설탕과 소금, 지방을 줄인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것, 2020년까지 전력 10%, 이산화탄소 20%를 줄이는 것,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점포 30%에 자연 냉매를

사용한 냉동시스템을 갖추고 LED조명을 설치하는, 환경 면에서 지속가능한 매장을 지향하며,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해 페트병이나 배터리, 전자제품과 램프 등 소비자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은 미그로의 모든 사업 영역에 적용된다.

미그로는 스위스적인 것을 추구해 신뢰를 쌓고, 지역성을 강조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게 하며,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담아내 물품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준다. 그런 가치지향적 사업기조 때문인지 수상 기회도 많았다. 이를테면 가장 강력한 브랜드 상인 2013년 올해의 유럽 소매업체, 가장 혁신적인 기업, 2012년 스위스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 문화투자자상, 유럽연합에서 주는 물류체계 효율상 등 수상 경력이 남다르다.

코프와 미그로를 보고 나서 드는 의문은 “우리나라 대형 할인매장과 무엇이 다를까?”였다. 스위스 협동조합 매장을 보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했다. 비조합원 이용을 얼마나 허용해야 하나, 출자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스위스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소비자협동조합 매장의 물품 가격도 그리 싼 편이 아니라면 조합원의 필요는 어떻게 충족시킬까, 잉여의 일정 부분에 대해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의문들을 짚은 만남으로 다 풀 수는 없었다. 단지, 코프는 “이윤 창출보다는 유기농산물 생산 촉진과 경제, 사회, 문화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 미그로는 “스위스적이고 지역성이 강한 생산과 소비,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조합원을 비롯한 스위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위스가 유럽연합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럽경제 지진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두 소비자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자본력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가장 영향력 있는 소매유통기업으로 또한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자신의 자리를 탄탄히 지켜가고 있다.●

# 후쿠시마, 재난 이후의 삶과 대안

- 지역 재생을 위한 이와키 오텐토 SUN 프로젝트

3.11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원전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많은 후쿠시마 주민들은 지진과 원전 사고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잊고 싶어하는 게 지금의 모습일 것이다. 후쿠시마에서 살아가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는 무수한 판단을 강요당하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계속 살 것인지 떠날 것인지, 지역의 식재료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등, 2011년 3월 11일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정부와 동경전력의 보도나 기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의 은폐와 “안전, 문제없다”라는 식의 홍보 활동, 몇 번이고 다시 수정된 안전 기준, 제어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오염수, 정부나 동경전력의 변명을 듣고 있는 중에도 라디오에

---

• 島村 守彦, <이와키 오텐토 SUN기업조합> 사무국장  
•• 지역 퍼실리테이터

서 일기예보와 함께 전해지는 앞바다의 방사선 수치, 날마다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원전 보도...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시, 코리야마 시, 니혼마츠 시, 히로노마치 등의 선거에서 모든 현역 단체장이 낙선하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다. 이는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불안과 불만, 그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 인구 34만 명 규모의 이와키 시(후쿠시마 현)에는 원전 지역으로부터 2만4천 명 이상이 피난해 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기존 주민과 피난민들이 공존하는 커뮤니티 문제다. 시내 중심부에는 차량이 늘어나 정체가 심각해졌으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위해 줄을 서는 곳이 늘어났고, 파친코의 주차장은 평일에도 차가 넘쳐난다. 심야의 변화가 주차장은 만차 상태이다. 많은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고향 가까이 있는 이와키 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 하면서 도심 주택지는 전부 다 팔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피해 상황, 보상과 지원 유무, 재해 전의 커뮤니티, 경제 부흥에 따른 경제활동의 혜택 정도 등, 현재 이와키 시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각각 처한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원전이 있는 8개 지자체에서 피난 온 주민들과 이와키 시민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뮤니티 문제로 표면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더 커져가고 있다.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 기준이나 통제 지역에 설치된 바리케이트와 마찬가지로 지인 '마음의 바리케이트'가 그것이다.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눈에 보이는 피해이지만, 원전 사고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에 의한 마음의 오염이 재도약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 잇따른 귀환 선언, 하지만…

2011년 1월, 가와우치무라에서는 가장 먼저 귀촌선언<sup>1)</sup>을 하고 피난한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선언이 있는 지 약 2년이 지난 2013년 4월 시점의 귀향률은 약 46%에 그치고 있다. 귀향은 대부분 노인층 중심이고 젊은 층이나 아이들의 귀향률은 적어, 가와우치 초등학교의 경우 원전 사고 전에 114명이던 학생 중 24명만 돌아온 상황이다. 2012년 3월에 피난 지시를 해제한 후타바 군 히로노마치에 위치한 히로노마치 초등학교에도 돌아온 아이들은 사고 이전의 20% 정도이고, 많은 주민과 아이들이 지금도 이와키 시내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보통은 불편한 피난생활이라고 표현해야겠지만, 이전보다 편리성이 높은 이와키 시로 피난한 것이 오히려 돌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농지가 넓은 양쪽 지역에서 경작을 재개하는 비율은 20% 정도이고, 폐쇄된 채 방치된 사업소들도 많다. 돌아가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인 데다, 제염 작업을 했다고는 하나 인프라도 불충분한 불편한 장소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원전이 위치한 후쿠시마 현 후타바 군 지역에서는 지금도 제염<sup>除染</sup>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방사성물질을 없애는 ‘제염’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이염<sup>移染</sup>’이 정확할 것이다. 게다가 제염에 의해 방사선 양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산에서의 제염은 거의 시작하지 못한 상태여서 비가 한 번 내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지역도 적지 않다. 산간부에서는 제염을 해도 방사선 양이 변하지 않는 장소도 많아서 70%가 산림인 후쿠시마의 땅은 단기적 해법으로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염 작업이 진행된 지역에는 검은색 플레콘 백(Flexible

---

1)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경계 지역과 계획적 피난 구역에 들어간 8개 지자체에서는 주민 대표뿐 아니라 행정 기능까지 피난해 있었다. 가와우치무라는 관할 지역의 40%가 후쿠시마 제1원전 기준 20km권내에 위치한다.

Containers)에 실린 오염토가 귀택준비구역의 간이 설치장에 산처럼 쌓여 있는 풍경이 방사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움을 통감하게 한다. 제염 작업은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서 작업원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착취 문제가 보도되는가 하면, 부실 제염 문제 및 작업원에 의한 범죄가 2013년 11월 시점으로 140건을 넘는 등 귀환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거기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안 쥐들이 대량 번식해 방 안에 변이 쌓이고 악취를 풍기는 등 집에 돌아온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후쿠시마 현 안에만 떠돌고 일본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지역 부흥을 위한 만남

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9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지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이와키 시내 세 개 NPO 대표가 이와키 시에서 개최한 ‘미래의 에너지를 생각하는 심포지엄’<sup>2)</sup>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심포지엄 전날 수도권 전문가 여성들과 이와키 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함께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이와키 시가 처해 있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3개 NPO법인 더 피플과 후우도 2100, 인디안 빌리지 캠프의 대표 요시다 에미코, 사토미 요시오, 시마무라 모리히코가 의기투합해 각각의 전문분야를 모아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요시다 대표는 ‘오가닉 코튼’ 사업을, 시마무라 대표는 ‘자연에너지’ 사업을, 사토미 대표는 부흥을 위한 활동을 배우는 ‘부흥 스터디투어’ 사업을 각각 맡았다. 이 아이디어를 정리해 이와키 시에 제안했고, 이

---

2) NPO법인 여자교육장려회 주최

와키 시가 이를 정부의 피해지 부흥 모델 조사사업에 신청해 채택이 되었다. 이 사업을 시에서 다시 우리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2012년 7월부터 이와키 오펜토 SUN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3년 2월에는 이와키 오펜토 SUN기업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세 가지 사업을 제휴해 지역에 희망과 고용을 만드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농업 재생의 희망, 오가닉 코튼 사업

원전 사고 이후 경작을 포기한 땅이 늘면서 곤경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오가닉 코튼 사업이다. 생산해도 팔리지 않고 가격도 매길 수 없어 낙심한 농가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목화'였다. '먹는 농업'이 아닌 '입는 농업'을 통해 한 줄기 빛이라도 만들고자, 또한 환경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에서 환경을 배려한 유기농으로 경작하자는 강한 의지에 힘입어 2012년 봄부터 이와키 시내 15곳(1.5헥타르)에서 시험재배가 실시되었다. 그 활동에는 재해 직후부터 후쿠시마에서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온 기업 차원의 봉사자 등 연 3천 명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2013년에는 경작지가 30개소(약 3헥타르)로 늘었으며 이와키 시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린 곳의 교정에서도 재배를 시작했다. 재배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재배한 목화를 제품으로 만들어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지, 원료의 생산에서 상품 기획, 판로 개척까지 어느 하나 경험한 적 없는 사업이었기에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처음으로 수확해 만든 제품은 씨앗이 든 목화송이 자체를 사용한 마스크트 인형이었다. 티셔츠를 만드는 데 사용하려 했던 조면기(수확한 목화송이에서 심지가 되는 씨를 제거하는 기계)의 도입이 늦어진 탓에 급히 생각해낸 상품이었지만 씨앗이 든 목화송이를 접착제로 연결한 바디 부분과 목제 머리 부분을 붙인 귀여운 인형은 상품명 '코튼 베이비'로 2012년 10월 하순부터 판



매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4천 개가 팔린 히트상품이 되었다. 현재도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어 가설주택에 살고 있는 여성 그룹의 소규모 일자리도 생겨났다. 복지시설과 임시 거주자의 일자리로 개당 220

엔(정가 800엔)이 품삯과 판매, 사무 등 현지 인건비에 들어가는 구조이다. 올해는 티셔츠 5천여 장을 목표로 판매가 진행 중이다. 실제 티셔츠가 완성된 2013년 6월 하순부터 판매전략 회의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관련 기업이나 그룹으로 접근해 들어갔다. 현지로 지원이나 봉사를 왔던 수도권 지역은 특히 큰 구매층이 되어주고 있다. 프로젝트에 공감해 응원해주는 기업의 협업 수주에서도 커다란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다. 2013년 8월말 현재 판매량은 1천3백 장. 기존 판로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량 판매가 힘들어 신규 고객 개척이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새로운 아이টে들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손수건과 보자기 상품을 기획 중이며 2014년 2월 출시 예정에 있다.

아직은 오가닉 코튼 재배와 판매의 어려움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역의 농민들이 생업으로 목화를 재배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과 공정 상태로는 쉽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내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키와 후쿠시마, 나아가 일본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이것은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은 아닐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가 “그때 그 지진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리고 싶다. 함께 달리는 많은 동료들로부터 서로 힘을 받아가면서...

## 자연에너지를 만드는 커뮤니티 발전소

후쿠시마에서는 ‘정부가 나쁘다’, ‘도쿄전력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남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무엇이 기준인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은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다. 그러한 후쿠시마의 생각을 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스스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현 내에서도 ‘메가 솔라’나 해상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기업 유치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지역 경제 부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기업이 대규모 시설을 만들어 발전한 에너지와 수익은 지역에 남지 않고 빠져나간다. 우리에게 대기업이 진행하는 수익사업으로써의 메가 솔라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규모 발전소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기업 유치와는 정반대 방식인 것이다. 규모는 작아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후쿠시마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에 우리는 이와키 커뮤니티 발전소라는 이름을 짓고,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땅을 고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까지 진행했다. 필요 자금 1천4백만 엔 가운데 후쿠시마 현의 보조사업에 응모해 건설비의 1/3인 444만 엔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현지 신용협동조합에서 차입했다. 그리고 땅을 고르는 데 필요한 비용 7백만 엔은 우리 스스로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소 건설 부지로 산림을 구입하고, 2012년 8월부터 잡목 숲 벌목을 시작으로 건설이 진행됐다. 벌채가 절반 정도 진행되면서 2013년 1월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무 벌채와 뿌리 뽑기 작업, 구덩이를 파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 작업, 프레임의 조립에서 패널 설치까지,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손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땀 흘려 완성했다.

2013년 4월 25일, 이와키 커뮤니티 발전소가 운전을 개시했다. 매달 20만 엔 미만의 매전 실적이 있어서 7년간 차입금을 갚고 그 이후의 수익금은 조합을 통해 '지역 만들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160명을 넘었다. 처음에는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모일지 불안했지만 다행히 타이어 업체 '브릿지 스톤'이 그 취지에 동의해 강력한 자원봉사 팀을 파견해 주었다. 이 봉사팀은 단순 현장작업뿐만 아니라 쓰나미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부흥 상점가를 방문하고 목화밭에서 일손도 도왔으며, 작업 후에는 내일의 이와키를 함께 생각하는 워크숍에도 참여했다. 재해지 부흥 스터디 투어를 통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함께 땀 흘리는 동료로서의 관계로 변해갔다. 발전소에서는 그 땀의 성과로 발전이 시작되었고 목화밭에서는 목화송이 수확이 진행되어, 2013년 5월 25일 발전소 준공식과 6월 22일 코튼 티셔츠 완성 발표식 등 멋진 순간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발전소 건설과 함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강습회(워크숍)를 가설주택이나 지역의 초·중학교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가설주택에서는 피난민들과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가설주택 내 집회장에 불을 밝혔다. 중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만든 태양광 패널과 축전지, LED조명을 사용해 재해 시 정전에도 꺼지지 않는 방법등을 달았다. 그 활동의 목적은, 자연에너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지식으로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체험하고 배우는 것, 그 배움이 후쿠시마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에게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재는 많은 초·중학교에서 강습회 제의가 오고 있지만 재료비 등의 자금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다. 커뮤니티 발전소 견학 의뢰도 있어 부지 내에 학습 시설을 만들고자 한다. 지역 활동인 부흥 이벤트를 상업용 전력이 아닌 자연에너지로 시행하고 싶다는 의뢰도 들어오고 있어서 태양광 패널이나 축전지 등을 독립 전원으로 활용해 콘서트를 열고,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및 주요 장소에서 점등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곳에 상업용 전력이 있기는 하

나 애써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는 곧 지금까지 생각한 적이 없는 콘센트 구멍 너머까지도 생각해 자연에너지 활용을 후쿠시마에서 펼쳐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사업인 것이다.

## 미래를 위한 배움, 스터디 투어 사업

이와키 오펜토 SUN기업조합에서는 피해지 부흥 스터디 투어를 제 3의 중요 사업으로 육성해 가고자 한다. 이는 사토미 대표가 운영하는 NPO법인 후요우도2100이 재해 이후 실시해 온 피해지 시찰 투어의 연장선상에 있다. 후요우도2100은 지진 후에 설립된 NPO법인이지만, 2100년의 미래를 향해 자신들 세대가 부업토가 되어 지역을 복구하고 일본을 재생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사토미 대표는 지진 전에 오래된 온천여관 후로타키야의 젊은 주인으로 관광업에 종사해왔으며 지역 자원을 살린 관광의 원칙을 찾아 전국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온천 지역 활성화 활동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지진 이후 후로타키야 역시 큰 피해를 입었고 원전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기 속에서 온천 지역 활성화 활동을 함께해 온 동료들이 이와키 시를 찾아와 현지 상황에 감명을 받았다. 주변 여관들이 원전 작업자들의 숙박 공간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던 중에 사토미 대표는 이 마을이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 마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언가 전해지는 것이 없을까, 아니 이 이와키 시민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누구든 요청이 있을 시 1인당 2천 엔의 투어 요금으로 피해를 안내하는 활동을 개시했다. 그것을 NPO법인 후요우도2100의 사업으로 만들었으며 그가 진행해 온 이 투어에 이와키 오펜토 SUN프로젝트의 활동이 더해져 내용의 폭을 넓혀갔다.

지금까지는 재해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지만 이로 인해 농업 재생을 위한 후쿠시마 오가닉 코튼 사업과 시민 커뮤니티 발전소 사업의 현장 견학과 실제 활동 참여 등을 포함해 미래를 위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대지진, 원전 사고, 낙인 문제, 커뮤니티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와키 시를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 교육 여행이나 사원 연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 인구를 늘려 (이를 관광이라고 불러도 된다면) 관광 사업도 지역 부흥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분명 있어서는 안 될 지금의 상황이지만 이를 새롭게 배움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전 사고를 멍에로만 생각지 않고 후세에 전할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이 스터디투어를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

가정용 피아노의 매출이 지진 전의 1/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표에 서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지금의 후쿠시마 상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마음 어딘가가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 것은 이와키 시민과 원전 피난민 사이 알력의 원인이 되기도 해 마음의 오염이 지역에 퍼져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나 행정이 아닌 지역 주민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밖에 없다. 피난민이 지역주민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활동이 연결되기를 바란다.

오가닉 코튼 재배나 태양광을 이용한 커뮤니티 전력 활동은 원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스터디 투어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교류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후쿠시마에서 새로운 관광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기도 하다.

후쿠시마의 힘든 상황은 눈앞의 경제성장만을 우선해 원전이라는 괴물

을 선택한 우리가 불러온 인재이다. 원자력은 버릴 장소도 없는 오염 물질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에너지이면서 사람의 손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몬스터이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회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반성에서 생겨난 가치관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활동에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후쿠시마 스타일'의 생명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가 한국에도 확대되기를 기원한다.●

#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회원이 되어 주세요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을 심화,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한 모심과 살림연구소는 2013년, 사단법인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과 함께 연구소의 운영 및 활동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연구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원께는 아래와 같이 연구소 발간 자료를 보내드리며, 연구소 활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참여하며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론지 외 1종의 연구보고서를 제공받으며 그 밖에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

연구소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며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을 온라인 상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6931-3604 [salim@hansalim.or.kr](mailto:salim@hansalim.or.kr)

※ 연구소 누리방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http://mosim.or.kr>

# 모심과 살림 발간물



밥상의 전환 (2013)

한살림의 협동을 말한다 I, II (2013)

생명의 밥, 밥상을 살리자 (2012)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2012)

구입 문의 모심과살림연구소 <http://mosim.or.kr> 02-6931-3604 [salim@hansalim.or.kr](mailto:salim@hansalim.or.kr)

# 모심과살림연구소 발간물을 전자책[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씨앗으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순환하는 사회를 위하여 (2012)

모심과 살림 0호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 (2012)

모심과 살림 1호 “전환기의 사회운동,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2013)



※ 리디북스,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 PC 전자책 뷰어 프로그램 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 앱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심과  
살림연구소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02-6931-3604 salim@hansalim.or.kr

<http://mosim.or.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